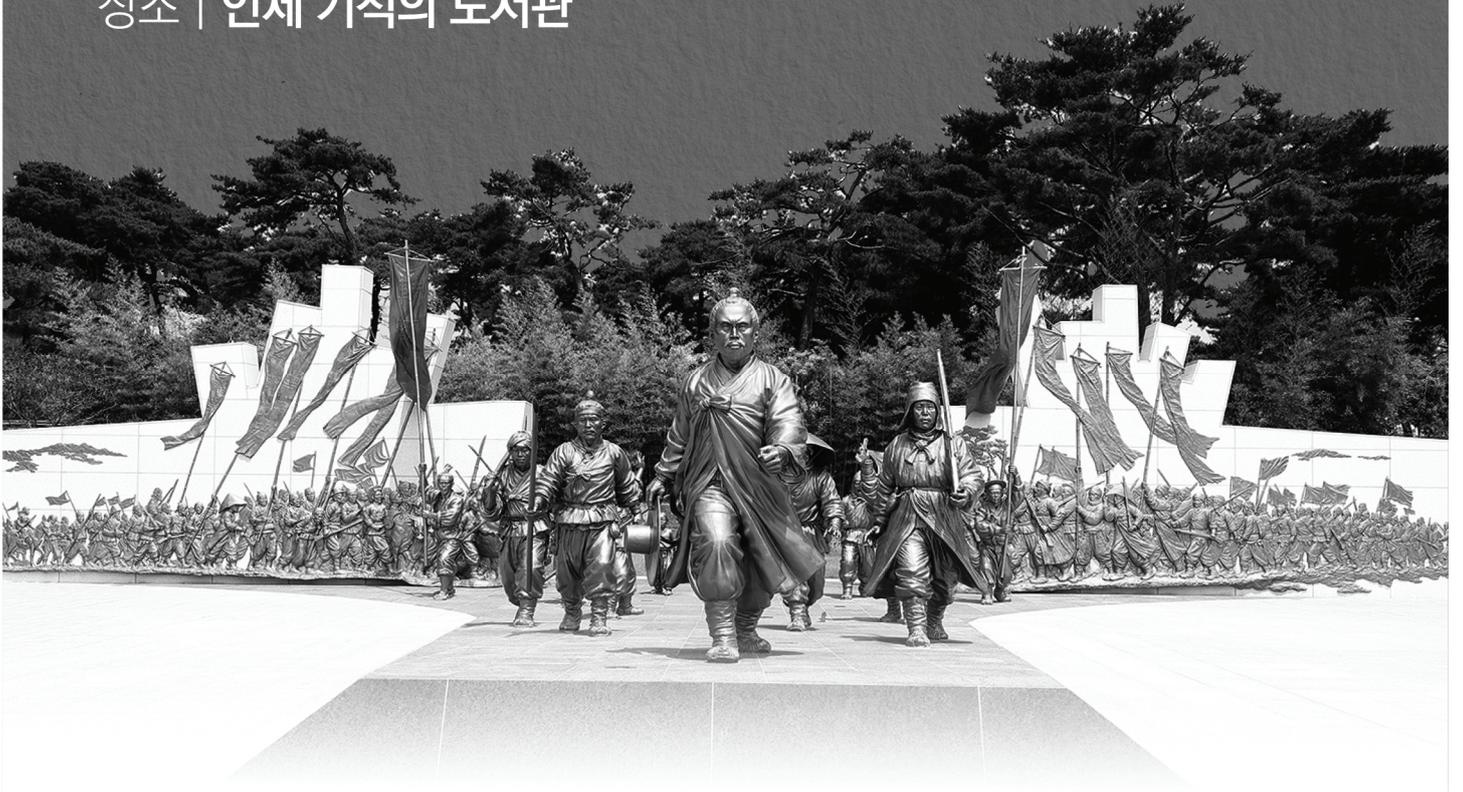


2024 인제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일시 | 2024. 08. 19.(월) 13:50~18:00

장소 | 인제 기적의 도서관



|주최·주관|  인제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인제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 **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14:00 ~ 18:00

❖ **장소** : 인제 기적의 도서관

일 정		내 용
13:50~14:00	10'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사회 : 이병규(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업무협약식
14:00~14:10	10'	◦ 인사말씀 - 최상기(인제군수) -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14:10~14:40	30'	[주제발표1] ◦ 동경대전으로 본 동학의 새로운 이해 - 발표 :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 토론 : 김춘성(천도교 상주선도사, 전 부산예술대 교수)
14:40~15:10	30'	[주제발표2] ◦ 동경대전 인제 경진판의 판본 분석 - 발표 : 손계영(대구가톨릭대 교수) - 토론 :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5:10~15:40	30'	[주제발표3] ◦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 발표 : 엄찬호(강원대 강사) - 토론 :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15:40~16:10	30'	[주제발표4] ◦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 발표 : 유바다(고려대 교수) - 토론 :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6:10~16:20	20'	휴 식
16:20~18:00	80'	[종합토론] * 좌장 : 신영우(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 강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 8. 20.(화)

- 동경대전 간행터, 자작고개, 동창리

목 차

[주제발표1] 동경대전으로 본 동학의 새로운 이해	3
- 발표 :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5
- 토론 : 김춘성(천도교 상주선도사, 전 부산예술대 교수)	27
[주제발표2] 동경대전 인제 경진판의 판본 분석	33
- 발표 : 손계영(대구가톨릭대 교수)	35
- 토론 :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57
[주제발표3]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63
- 발표 : 엄찬호(강원대 강사)	65
- 토론 :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83
[주제발표4]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87
- 발표 : 유바다(고려대 교수)	89
- 토론 :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05
[부록] 인제 동경대전 간행 터[址]	111

주제발표

동경대전으로 본 동학의 새로운 이해

| 발표 | 배 항 섭 (성균관대 교수)

『동경대전』으로 본 동학의 새로운 이해

- 인간중심적 이해를 넘어 -

배항섭(성균관대)

1. 들어가는 말: 기후변동 및 생태문제와 역사연구의 현재성
2. 생명·생태문제와 동학사상 연구의 방향
3. 생명·생태문제 관련 동학사상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4. 동학사상의 인간관·자연관 시론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기후변동, 생태문제와 역사연구의 현재성

역사연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는 현재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이다. 따라서 역사연구는 ‘현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에서 지난 세기말부터 급격히 진행된 글로벌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극한기후 현상들, 그와 더불어 수용 확산되어 간 ‘인류세(anthropocene)’이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 규정, 3년 이상 이어진 Covid-19 바이러스의 팬데믹(pandemic)은 향후 역사연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Covid-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사례로 들어보자. Covid-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이라는 재난이 전 지구를 덮친 지 4년이 지났다. 이에 대해 결국 인간들이 팬데믹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에 대응하여 다시 진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일부 있지만,¹⁾ 대체로 어두운 전망이 많았다.²⁾ 이미 팬데믹의 기억은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지만, 팬데믹이 우리에게

1) G. John Ikenberry, Democracies Will Come out of Their Shell, Foreignpolicy, March 20,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3/20/world-order-after-coronavirus-pandemic/>)

2) 예를 들면 Adam J. Tooze(컬럼비아 대학 교수, 유럽 연구소 소장)는 4월 중순 급격히 확산하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목격하고 “세계는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자유낙하하고 있다”고 하면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하다.”는 말로 그 충격의 강도를 표현함과 동시에 과거의 정치·경제적 각본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지적

던지는 질문들은 매우 심중하고 다양하다. 특히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매우 절실한 당면한 ‘현재’의 과제로 실감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코로나의 역설(Corona Paradox)이다. 이성적, 합리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여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파괴적 합리주의와 그것이 자행되는 현상이 c-19의 팬데믹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반대로 대기를 비롯한 지구의 환경은 깨끗해지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다.³⁾ 인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지구와 자연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우 c-19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의 20배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보고서는 결이 다른 매우 큰 놀라움을 준다.⁴⁾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단지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매우 충격적이며,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근대 인류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⁵⁾

역사연구 역시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들을 꺼안고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지만, 역사학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근대 역사학을 지배해온 역사 인식에 대한 성찰이다.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과제와 도전들은 그동안 역사연구를 지배해온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나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 그와 깊은 관련이 있는 발전론과 내셔널리즘(nationalism), 그리고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로는 대응과 극복이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무엇보다 연구 시각이나 방법, 인식론적 기반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전환은 앞서 언급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중심주의나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적절한, 그리고 내실 있는 비판조차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팬데믹이라는 재난이 인류사회에 새롭게 제기하거나, 더욱 화급한 현재의 문제로 우리의 눈앞에 들이밀고 있는 과제들은 그보다 훨씬 엄중하고 힘겨운 도전이라

했다. Adam J. Tooze, The Normal Economy Is Never Coming Back, Foreignpolicy, April 9,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4/15/how-the-economy-will-look-after-the-coronavirus-pandemic/>)

3) “인도에서 히말라야가 보인다. ‘코로나 역설’”, 『서울신문』, 2020.4.10

4) COVID-19 reduces economic activity, which reduces pollution, which saves lives. G-FEED(Global Food, Environment and Economic Dynamics), Sunday, March 8, 2020 (<http://www.g-feed.com/2020/03/covid-19-reduces-economic-activity.html>)

5)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말처럼 “지구의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파괴하는 ‘화성 침략인’은 바로 우리 자신, 즉 인류”라는 점, c-19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는 “더 거대한 사물의 질서 한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한갓 종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아야 한다. 슬라보예 지젝 지음, 강우성 옮김, 『팬데믹 패닉』, 북하우스, 2020, 30~31쪽

6) 계몽주의 이래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자연을 타자화하는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지배와 통제, 약탈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J. Sundberg, “Decolonizing posthumanist geographies”, *Cultural Geographies*, 21:1, 2014, pp. 34~36.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복잡한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문제들은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세계관, 가정,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구조, 프로세스 및 생활 방식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Ioan Fazey, et al., “Transformation in a changing climate: a research agenda”, *Climate and Development*, 10:3, 2018, p. 210.

할 수 있다. 비단 역사학만의 문제일 수는 없지만, 특히 역사학은 스스로의 ‘필요성과 존립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생각한다. 팬데믹을 맞아 새로운 역사인식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이다.

20세기 말부터 ‘근대 역사학’이 고려하지 않았거나 억압했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재인식, 그를 위해 ‘근대적’이지 않은 방식의 사유와 경험들까지도 시야에 넣는 역사연구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인류세(Anthropocene)’⁷⁾ 혹은 ‘자본세(Capitalocene)’나 ‘기술세(Technocene)’ 등의⁸⁾ 지질학적 시기 규정이 제기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⁹⁾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환경 문제를 배제한 역사연구나 서술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궁색해질 수 있다. 기후·환경 문제와 ‘인류세’ 등의 새로운 개념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포함하는 인류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매우 무겁고 급박한 도전들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역사연구의 대상이었던 인간사회 내부만이 아니라 그 ‘외부’로 치부되어 온 자연환경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역사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학사상이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동경대전』 등 동학경전을 중심으로 동학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근대중심주의 극복이나 기후위기와 생태문제라는 현재적 과제와 관련하여 동학사상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 작업 같은 것임을 밝혀둔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동학사상 연구의 근대중심적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나 동학사상을 기후위기와 생태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한 대표적 연구들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어 『동경대전』 등 동학경전과 「海月神師說法」 등을 토대로 동학사상의 생명관과 자연관,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에서 보이는 동학사상의 생명과 자연관을 그것이 담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7) ‘인류세’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뤼천이다. Paul J. Crutzen & Eugene F. Stoermer,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 2000, pp. 17~18. 인류세의 기점에 대해서는 기원전 8000년, 1610년, 18세기 말, 20세기 중반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기점에 따라 책임 소재와 대응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Julia Adeney Thomas, “The Present Climate of Economics and History”, Gareth Austin ed.,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History in the Anthropocene: Perspectives on Asia and Africa*,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7, pp. 297~98; S. Lewis, M. Maslin, “Defining the Anthropocene”, *Nature* 519, 2015, pp. 171~180; 열 C. 엘리스 지음, 김용진·박범순 옮김, 『인류세』, 교유서가, 2021, 제7장 폴리틱코스(Politikos) 참조.

8) A. Malm, & A. Hornborg, “The geology of mankind? A critique of the Anthropocene narrative”, *The Anthropocene Review*, 1:1, 2014.

9) 새로운 지질학적 시기 규정으로는 ‘인류세’, 자본세 이외에도 다양한 용어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는 Julia Adeney Thomas, op. cit. 참조. 이 용어들의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E. Gattey, “Global histories of empire and climate in the Anthropocene”, *History Compass*, 19:8, 2021; 안드레아스 말름·알프 호른보리, 「인류의 지질학? 인류세 서사 비판」, P. 크뤼천 외 지음, 앞의 책, 148~191쪽 참조.

2. 생명·생태문제와 동학사상 연구의 방향

동학사상에 대한 이해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 동학경전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경전을 지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신비체험’이라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수운 최제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운조차도 1860년 4월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영부와 주문을 받는, 범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비체험을 한¹⁰⁾ 후에도 거의 1년이나 수행을 지속하면서 ‘自然之理’의 존재를 깨달은¹¹⁾ 다음에야 포교에 나설 수 있었다. 신비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주로 유교적 언어를 사용하여 ‘철학적’ 혹은 ‘종교적’으로 기술한 『동경대전』이나 한글로 된 가사체의 『용담유사』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간단치 않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수운은 그의 득도에 대해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라고 하여¹²⁾ 깨달음은 글이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한 순간 꿈결처럼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였다. 수운이 “해몽 못한 너희들은 서책은 아주 폐코 …… 열 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라고¹³⁾ 하여 ‘천인합일’을 깨닫게 되는 수행과정으로서 서책보다 ‘시천주’ 주문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동학사상은 그것에 내포된 깊은 의미를 깨닫는 과정만¹⁴⁾ 간단치 않은 것이 아니라,¹⁵⁾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¹⁶⁾

김용옥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신랄한 지적을 하고 있다. 즉, 『동경대전』은 만인에게 공개되어 있던 글이기 때문에 식자 념새를 피우고자 하는 사람은 안 건드린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경문 이해가 대부분 천도교라는 종교적 입장을 깔고 있고, 한학의 엄밀한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니 피상적으로 논구한 것이 대부분 이라서 도무지 가닥을 잡을 수 없는 헛소리들이 衍蔓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또한 수운의 언어는 일차적으로 그의 의식 속에서 한국말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화사전』을 베껴놓아

10) 「布德文」, 『東經大全』, 不意四月 心寒身戰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耳中 驚起探問則 曰 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問其所然 曰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教人此法 勿疑勿疑 曰然則西道以教人乎 曰不然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11) 「論學文」, 『동경대전』, 吾亦幾至一歲 修而度之則亦不無自然之理 故 一以作呪文 一以作降靈之法 一以作不忘之詞 次第道法 猶爲二十一字而已 轉至辛酉 四方賢士進我而問

12) 「용담가」, 『용담유사』,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만고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

13) 해음없는 이것들이 날로 믿고 그러하나/나는도시 믿지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네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말가/내역시 바라기는 한울님만 전혀 믿고/해몽못한 너희들은 서책은 아주 폐코/수도하기 힘쓰기는 그도또한 도덕이라/문장이고 도덕이고 귀어허사 될까보다/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며/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 하였어라/현인군자 될것이니 도성입덕 못미칠까/이같이 쉬운도를 자포자기 하단말가(「교훈가」, 『용담유사』)

14) 윤석산은 이에 대해 “유한한 존재인 ‘나’가 곧 무한한 존재인 ‘하느님’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시천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고 하였다(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모시는 사람들, 2004, 250쪽)

15) “이러한 경지는 철학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라 하겠다. 수운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한 경지는 오직 정성과 공경을 다한 한마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오문환, 「해제: 수운최제우에 대한 연구 현황」, 예문동양사상연구원·오문환 편저,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2005, 53쪽).

16) 해월 최시형 역시 지금 세속에서 이르는 성황이니 제석이니 성주니 토왕이니 산신이니 수신이니 석신이니 목신이니 하는 등의 음사 등의 헛됨을 강론하면서 “지금 이 말은 도성입덕한 사람이 아니면 깨닫기 어려운 것이니라.”고 하여 깨달음의 어려움을 시사하였다(“心靈之靈”, 『海月神師法說』).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도 “오로지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을 써 내려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고 하였다.¹⁷⁾

이상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동학사상에 대한 이해는 역사학, 철학, 종교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역사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라는 면에 중점을 두어왔다.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연구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양자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기본 성격을 ‘반봉건 반외세’에 두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동학사상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도 동학사상이 가진 근대지향적 성격과 그것이 동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학사상이 가진 평등사상과 내셔널리즘을 ‘선언적’으로 강조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양자 간의 밀도 있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¹⁸⁾ 동학사상의 어떤 내용들이 농민군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전된 연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여기에 더하여 이미 ‘근대 역사학’을 지배했던 핵심 가치들이 회의된 지 오래되었다는 또 다른 연구 지형의 변화에도 대응하여야 한다. 예컨대 인류가 만든 ‘근대 문명’이 자유와 평등, 평화와 인권 같은 가치들을 지향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 더 폭력과 억압, 약탈과 배제라는 ‘문명’과 배치되는 ‘야만’의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근대 최고의 성취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민주주의조차 국내문제나 글로벌한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라는 글로벌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인간중심의 사회/정치질서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¹⁹⁾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가 환경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점이다.²⁰⁾ 따라서 이제는 단지 인간사회의 질서나 지금까지와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태,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민주적’ 질서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²¹⁾ 이점에서 동학과 농민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이전의 근대중심적 발전론, 목적론적 인식, 혹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17) 김용욱, 『동경대전 2』, 통나무, 2021 26~27쪽

18) 수운 최재우를 중심으로 한 동학사상의 연구 동향을 살핀 오문환에 따르면 1980년대를 거치며 동학사상 연구는 양적으로 급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운사상에 대한 논쟁점들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이는 아직까지 수운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하였다(오문환, 앞의 글, 2005, 44쪽).

19)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지적은 배향섭, 「한국 근대사 이해의 글로벌한 전환과 식민주의 비판—기후변동과 역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역사비평』 145, 2023년 겨울 참조

20) Manus I. Midlarsky,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ume: 35 issue: 3, page(s): 341-361, Issue published: May 1, 1998

21) “계몽주의 이후 자유에 대한 어떠한 논의에도 인간이 자유의 획득과 동시에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정을 통하여 획득하고 있는 지질학적 행위에 대한 인식은 존재한 적이 없다”(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지음, 이신철 옮김, 『행성 시대 역사의 기후』, 2023, 에코리브르, 57쪽).

동학사상이나 동학농민군의 생각에서 근대지향성을 찾아내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연구사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길게 설명할 여유는 없지만, 과거의 '진보'가 현재 내지 미래에는 오히려 '보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역사가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앞으로는 기후위거나 그것을 악화시키는 불평등이나 차별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고 나아가 '근대'를 넘어 새로운 문명적 대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는 것이 역사연구의 현재성이라는 면에 더욱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동학사상에 대해 앞서 언급한 '인류세' 혹은 기후위거나 생태문제라는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들어 관련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 몇 가지 연구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²²⁾ 물론 그 연구들이나, 특히 나의 이해는 매우 '인간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3. 생명·생태문제 관련 동학사상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먼저 동학의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만류기원적'으로 설명하거나, 경험적 사실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찍부터 동학사상을 생명사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온 김지하는 해월 최시형이 설법한 '以天食天'을 생명의 전환, 생명의 순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 바 있고,²³⁾ 동학사상을 인간에 의한 생명파괴에 맞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²⁴⁾ 그 후에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확장하여 동학사상을 동북아생명공동체 구상과 연결시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동북아생명공동체 추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출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지혜로운 우주적 인간이 바로 신인간이며, 신인간의 등장이 바로 참으로 지구시대·우주시대의 신인류의 탄생이라고 하였다. '신인간'은 다름 아니라 동학, 천도교이며 말하는 신인간이다. 그는 또 '신인간'을 네오희머니즘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 곧 인간과 사회, 자연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유기적 그물망이며, 하나이되 각각의 그물코는 나름나름 그 삶의 그물을 개성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이다."²⁵⁾

김지하가 동학사상을 생명사상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 것은 매우 선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학사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의들도 전개되고 있다. 일종의 '만류동학기원설'적인 해석이다. 김지하는 동학사상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2) 본 발표문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 추후 글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참조·반영하고자 한다.

23) 김지하, 「일하는 한울님」, 황석영, 김지하, 정호경, 『일하는 하늘님』, 일과 놀이, 1984

24) 김지하, 「인간의 사회적 성화 - 수운사상의 묵상」, 『남녘땅 뱃노래』, 두레, 1985

25) 김지하, 「동북아생명공동체와 새 문화의 창조」, 앞의 책, 『수운 최제우』, 400, 450, 408쪽

동학은 유불선을 통합하고 기독교의 충격을 흡수했다. (중략) 민초들이 곧 한울님을 모신 거룩한 존재임을 일깨워 ‘신인일치’ (중략) 인간가치를 극대화하고 인간실존의 우주적 실현을可期함으로써 오늘날 요구되는 네오휴머니즘의 선구가 되었다. 이른바 환경이라 불리는 동식물과 무기물마저 신령한 한울님이 살아있어 이를 한울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생명사상을 창조했고, …… 생명평화의 길을 열었음을 또한 유념해야 한다. ……사발통문을 확산, 근대적·탈근대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생적 전범을 만들었고, …… 또 동학이 실현하고자 한 사회는 포접이나 집강소에서 나타나듯이 철저히 자율적이며 분권적인 자치사회였지 부르주아적 국민국가도, 계급독재사회도 아니었다. 계급타파를 열렬히 주장했지만, 유토피아를 지향하지는 않았다.²⁶⁾

1860년에 창도된 동학사상에는 이미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논리이다.²⁷⁾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학경전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탈근대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생적 전범”이라는 표현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동학으로부터 굳이 ‘근대적’ 전범을 찾는 것은 서구의 합리주의와 인간중심주의가 인간과 사회적 삶과 자연생태계에 회복하기 힘든 파멸적 위기를 가져온 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 그의 생명사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또 거기에 내포된 생명사상도 환경 내지 생태 파괴라는 당시의 현실로부터 촉발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860년 무렵 조선에는 이러한 사유를 촉발할 만한 현상은 없었고, 서구의 침략과 그들의 우수한 무기와 그것이 가진 파괴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²⁸⁾ 서구 근대 문명을 환경이나 생태문제와 연결시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동경대전』 등 동학사상에는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생태 파괴에 대응하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데 큰 의미를 지니는 ‘통찰’ 내지 ‘지혜’가 내포되어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현재화할 것이라는 문제가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최제우는 무엇보다 ‘시천주’를 통한 정신개벽의 ‘실현’을 추구하였다지만, 주문을 외우며 수행하는 외의 구체적 ‘세속적’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없다.

한편 김용옥은 최근 동학사상을 주자학²⁹⁾ 등 전통사상과 연결하여 이해할 것을 주장하며 『동경대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거질의 저작 2권을 발간하였다. 향후 동학사상 연구에 큰 자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서구적 가치관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연구자와 경전 주석가들에 대해

26) 김지하, 앞의 글, 2005, 396~397쪽

27) 다음과 같은 지적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운이 그려내는 인간상은 바로 21세기 문명이 지향해야 할, 이성을 넘어서서 신을 모시고 자연과 화해하는 인간상임을 알 수 있다”(오문환, 『해제』, 30)

28) 「布德文」, 『동경대전』, 是故 我國惡疾滿世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亦不無廢亡之數 輔國安民計將安出 이따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안민의 계획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29) “인류에게 유교 이상의 상식은 없다. 수운은 이렇게 철저한 상식의 혼도 속에서 성장한 인간이었다.”(『동경대전 1』, 369), “주자학에 의하여 파멸되어 가던 왕조의 명운을 끝내버리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수운의 정신세계에서 오히려 강고한 주자학의 힘을 발견한다”(김용옥, 『동경대전 2』, 66쪽)

비판하며,³⁰⁾ “동학이 없었다면 왕조의 멸망과 그 이후의 성취, 곧 입헌군주제 같이 서문명과 타협한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으로의 탄생은 없었을 것이다.”라고³¹⁾ 주장하였다.³²⁾ 생명사상과는 다르지만, 역시 동학을 근현대사 과정에서 주요한 ‘민족사’의 전환들의 뿌리로 이해하고 있다. 단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이 그 이후 전개된 ‘민족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상의 표현으로 보인다. 일종의 동학에 대한 만류기원설적인 이해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³³⁾

앞서 김지하는 동학의 사발통문을 근대적·탈근대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생적 전범을 만든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오문환은 동학사상을 근대 내지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읽어내고 있다. 수운이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발견한 것은 (근대) 주체의 해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주체의 합리에 기초하여 세워진 근대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하거나, 동학 주문의 ‘조화정’에서 주체는 조화이며 대상이 ‘나’가 되지만, 이는 “근대에서 중세로의 회귀가 아니라 근대의 극복”이 된다고 하였다. 또 동학은 ‘시천주’를 통하여 발견한 사람 주체 안에 신성과 우주성을 다시 불러넣어 줌으로써 “신과 자연으로부터 고립된” “근대적 주체의 공허함”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동학의 신인간(시천주하여 조화정에 이른 인간)이 근대의 이성적 개인에 비할 때 영적 깨달음에 이른 인간관을 제시한다고 한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³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대주체나 근대사회의 해체와 붕괴를 말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동학사상이 ‘근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 곧 다시개벽을 지향했음을 강조하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청된다.

“신과 자연으로부터 고립된” “근대적 주체”는 서구 계몽주의 이후 곧, 자연과 인간의 분리, 인간 이성에 의한 ‘신의 죽음’ 이후의 인간관을 전제로 한 접근이다. 당시 한국의 인간-신-자연에 대한 이해가 서구와 같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인간’을 추구한 이유나 ‘시천주 조화정’에 의해

30) 『동경대전 2』, 31. 특히 『동경대전 1』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동학을 근대의 출발이니, 근대성의 구현이니 하는 모든 언설(디스курс)은 이제 불식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는 서구가 추구해온 근대라는 이념을 추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서구의 근대가 낳은 것은 터무니없는 진보의 신념, 인간의 교만, 서양의 우월성, 환경의 파괴, 불평등의 구조적 확대, 자유의 방종, 과학의 자본주의에로의 예측, 체제의 인간세 지배, 민주의 허상, 이런 것들의 안착일 뿐이다”(『동경대전』 1, 10)

31) 김용옥, 『동경대전 2』, 51쪽

32) 또 김용옥은 수운의 위대성을 강조하면서 동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리학과 서학이 제시하는 내재와 초월의 모든 패러다임을 만족시키면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운동 …… 그 실질적 표현이 동학의 개벽이었다. 동학에 이르러 조선역사에 내재해온 플레타르키아(pletharchia)의 열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된다. 그것이 ‘다시개벽(개벽)’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20세기의 암흑과 21세기의 희망은 모두 이 개벽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김용옥, 『도을심득 동경대전 1』, 통나무, 2004, 140; 『동경대전 1: 나는 코리아이다』, 통나무, 2021, 336)라고 하였다. 역시 동학사상을 ‘21세기의 희망’에 대한 절대적인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33) 그 역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동학경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서구의 세례를 받았거나, 종교적 입장을 전제로 한 접근이 아니라 “역사적 인간” 수운에게 直入할 것을 주장하는 김용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민중에게 수운은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각성을 위해 사람들은 수운의 깨달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스스로의 덕을 개척하고 輔國安民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한다는 것이다. 그의 포덕의 궁극적 관심은 종교의 전도가 아니라, 時運의 타개였다(김용옥, 『동경대전 2』, 25~31, 54~56쪽).

34) 오문환, 「‘시천주’ 주문을 통해 본 수운의 인간관」, 앞의 책, 『수운 최재우』, 132, 141, 144쪽 등 참조. 그는 근대적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신과 자연으로부터 고립된 근대적 주체는 본래적 본성인 하늘님을 잃고 자연과의 본래적 관계를 떠난 공허한 주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같은 글, 133쪽).

탄생하게 되는 신인간의 의미도 당시 조선사회의 현실, 서구가 아니라 유교를 포함한 다양한 전통적 사유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³⁵⁾

이상의 연구들은 각기 중요한 연구사적 의미를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수운 최제우는 이미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이미 160여 년 이전에 선취하고 있었다는 논리로 흐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개념이 제시될 만큼 동학이 창도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시대를 맞고 있다. 전혀 달랐던 시대를 살던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대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접근이나 이해는 자칫 수운과 동학사상을 희화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범인들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저 높은 경지, ‘신의 영역’에 속한 존재로 만들고, 그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지 추종해야 할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더구나 김용옥의 지적처럼 수운은 교주로 인지도된 적이 없었으며, 그냥 ‘선생님’(先生主)이라고만 불렸다. 수운은 바른 삶을 인도하는 스승일 뿐이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선생님으로 모시도록 하였고, 사람들은 해월을 선생님(先生主)으로 부름에 따라 수운은 큰 선생님(大先生主)이라 불렸을 뿐이다.³⁶⁾

다만 그가 당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벽’을 추구한 그의 혜안, 통찰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혜안’을 오늘의 사정에 맞게 재해석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혜안’들을 박제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다음으로 동학사상의 의미를 ‘우주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앞의 문제와 연결된다. 예컨대 김지하는 앞서 언급했듯이 “동북아생명공동체는 자연을 사회 안에 포함하는 우주사회적 공공성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혜로운 우주적 인간이 바로 동학과 천도교에서 말하는 ‘신인간’이며, 신인간의 등장이 바로 참으로 지구시대·우주시대의 신인류의 탄생이라고 하였다.

김용옥은 신비체험 이후 최제우의 사고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오랜 방랑과 기도 후에도 벗어나지 못하던 딜레마, 곧 초월과 내재, 인격성과 비인격성, 유신과 무신, 신비체험과 일상체험. 수직과 수평, 주어중심적 사고와 술어중심적 사고, 일자와 전체 등 논리적 모순을 내면화시키고 융합하고 다시 초월하고 다시 개벽하는 고뇌의 역정이었다. 이것은 결코 19세기 중엽의 조선 지식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21세기적 과제상황이었다. 수운은 2세기를 앞서 태어난 불우한 천재였다. …… 그는 조선 민중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아픔을 조선 대륙(반도)에서 대변한 우주적 비전의 인간(Man of Cosmic Vision)이었다.³⁷⁾

김용옥은 이처럼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은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비전을

35) 이 경우 시천주와 조화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으로의 과제이지만, 근대적 주체를 전제로 한 ‘근대의 초월’ 등의 이해는 논리적 모순과 비약이라고 생각된다.

36) 김용옥, 『동경대전 1: 나는 코리안이다』, 통나무, 2021, 329, 333쪽.

37) 김용옥, 『동경대전 1: 나는 코리안이다』, 통나무, 2021, 336; 『도올심득 동경대전 1』, 통나무, 2004, 213~214쪽

추구하였고, 그것을 ‘소박한 꿈’ 정도로 판단하기도 했다.³⁸⁾ 또 『동경대전』 가운데 「포덕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득도한 신비체험을 철저히 그가 새롭게 설정한 개벽의 우주론적 역사관 속에서 말하려 한다고 하였다.³⁹⁾ 그러나 ‘우주’까지 연결될 만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동학사상에 대해 많은 저작을 제출해 온 윤석산 역시 동학을 우주적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초월성과 내재성이, 절대성과 상대성이, 영원성과 시간성이, 무한성과 유한성이, 물질과 정신이, 신과 자연이,⁴⁰⁾ 신과 인간이 대립하고, 그러므로 갈등-대립과 모순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오늘, 수운 선생의 가르침은 이 위기의 시대에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요, 하늘님과 내가 둘이 아니요, 만유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조화와 융합의 정신을 통하여, 무너지고 훼손된 우주적 질서의 참다운 회복을 꿈꾸며, 현대라는 이 어둠의 별판을 적시며 오늘도 맥맥히 흘러가고 있다. 드디어 후천의 무극 바다를 향하여.”⁴¹⁾

오문환도 수운이 다시개벽 혹은 후천개벽의 의미를 말할 때 “매우 인간적인 맥락에서 이야기 되면서 동시에 우주 구조적 맥락에서 논의된다고 하였다. 신문명의 도래를 의미하는가 하면, 또한 새로운 정치사회의 전면적 변혁을 의미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혹은 정신혁명과 “우주(적) 변혁”으로 이해한다.⁴²⁾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주가 천체물리학적 의미의 우주는 아닐 것이다. 동학사상을 ‘우주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천지’를 그렇게 이해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시천주를 통해 조화정한 새로운 인간은 이미 당시 조선이나 세상을 살아가던 인간과는 다른 신과 합치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인간사회를 벗어난 우주적 차원의 삶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자 한 표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운 최제우는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서 ‘우주’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검결」에만 한번 나온다.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그러나 「검결」의 우주는 여기서 말하는 우주와는 결이 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학이 인간중심적 인식을 성찰하고 하늘-인간-자연 관계의 수평적/유기적 연계성을 추구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우주까지 포괄하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오히려 지극히 오만한 인간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상호 모순적이다.⁴³⁾ 또한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38)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곧 그의 코스모스인 것이다.”, “『용담가』에 표출된 수운의 코스모스는 허황된 추상적인 대천세계가 아니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세계, 그 세계를 다시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으로부터 그는 우주를 개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꿈과 환희에는 또다시 비극적 情調가 감돌고 있다”(김용욱, 『동경대전 2: 우리가 하느님이다』, 통나무, 2021, 21).

39) 『동경대전 2: 우리가 하느님이다』, 24쪽

40) ‘신과 자연’의 갈등 대립이라는 표현은 추가적인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41) 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모시는 사람들, 2004, 307쪽

42) 해월은 우주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물로 본다(“오문환, 『동학의 정치철학: 도덕, 생명, 권력』, 모시는 사람들, 2003, 308~311쪽)

43) “세계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생각은 오랜

것들에 대해서만 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이나 공간은 오히려 사고·고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일 뿐이다. 적어도 대부분의 범인들에게는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동학사상에 대한 지나친 민족주의적 이해를 넘어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지하는 생명공동체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일국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부국강병책이라는 낡은 근대적 정치관, 경쟁적 세계관의 부산물을 넘어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⁴⁴⁾ 오문환 역시 “수운이 지향하는 정치적 삶은 민족국가적 지평을 떠나서 보다 폭넓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⁴⁵⁾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최제우의 사상이 가진 의미를 ‘우주’까지는 아니어도 ‘인류’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것이 가진 현재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제우의 사상에 대한 연구 가운데는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연구도 적지 않다.

예컨대 김용옥은 종교는 그 나름의 유니크한 시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국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⁴⁶⁾ 자신의 책에서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것은 우선 『동경대전 1』의 부제가 “나는 코리안이다”라는 데서도 잘 보인다. 또 『동경대전 1』의 서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민족주의적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보국안민으로부터 다시개벽에 이르는 인류사적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뒷받침된 의식적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단군 이래 그 유례가 없는 체제의 전복이다. 그 전복의 여파가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서구적 이데아의 입조선을 가능케 한 것이다.”⁴⁷⁾ “동학의 동은 서의 상대가 아니다. 서의 침략에 자극받아 일어난 조선혼의 총체이다……동학은 해동의 학이요, 그것은 이 땅의 학이요, 우리 조선의 학이다”⁴⁸⁾

21세기 우리 조선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민족보다도 더 진취적이며 더 변통적이며 더 유동적인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더 보편적인 공동체의 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단초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우리 민족사의 기회를 남·북통일로 수렴하고, 또 남북통일을 통하여 인류문명의 새로운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해나가는 전범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의 이러한 신념의 저변에는 동학에 헌신한 동포들의 선혈이 숨 쉬고 있다. 동학은 고조선의 부활이다.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다른 이름이다.”⁴⁹⁾

역사를 지닌다. 인간은 고대의 종교들에서 반드시 특별하지 않았다. 예컨대 에밀 뒤르켐의 경우 토테미즘에서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관계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최초의 도시 문명 중심지를 세우고 초월적 신의 관념을 창조하고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종교들로부터 근대 사회과학에 이르는, 인간을 세계의 자연적인 부분에 대립시킨 생각의 긴 노선이 존재한다”, “바로 그 **초월적 신의 관념은 인간을 창조주와 그의 창조물, 즉 세계와의 특별한 관계에 놓는다**”(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지음, 이신철 옮김, 앞의 책, 105~107쪽).

44) 김지하, 앞의 글, 2005, 402쪽

45) 오문환, 『해제』, 37쪽

46) 김용옥, 『동경대전 2』, 56쪽

47) “전복의 여파가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서구적 이데아의 입조선을 가능케 한 것이다.”는 표현은 서구 근대의 우월성, 그리고 서구가 추구해온 근대라는 이념에 맞추어 동학을 이해할 필요 없다는 그의 비판과 어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8) 『동경대전 1』, 9~10쪽

21세기의 한국이 보여준 역동적 모습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접근, 특히 동학과 고조선의 부활, 동학 = 홍익인간이라는 논리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좀 더 친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가 비판하는바 “서구의 근대가 낳은 것은 터무니없는 진보의 신념, 인간의 교만, 서양의 우월성, 환경의 파괴, 불평등의 구조적 확대, 자유의 방종, 과학의 자본주의에로의 예속, 체제의 인간세 지배, 민주의 허상”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락될 경우 지나친 민족주의의 표출에 그치고 말 수 있기 때문이다.

3. 동학사상과 동학농민군의 인간관·자연관 시론

1) 동학사상의 생명관·자연관

동학사상에 대한 생태주의적, 생명론적 시각의 접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동학 사상에서 보이는 평등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동학의 경전이나 동학 지도자들의 설법류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동학교도들의 생활, 나아가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에서 그러한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⁵⁰⁾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했듯이 기왕의 연구들 가운데는 동학사상이 가진 의미를 지나치게 선언적으로만 주장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으며, 양자의 관련성을 엄밀하게 궁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 중심의 자연관·우주관을 비판하거나,⁵¹⁾ 동학과 유사한 “우주 개혁” 내지 “인류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나 자연관·우주관을 가지고 살아간 집단이나 “종족”들이 적지 않았다.⁵²⁾

49) 『동경대전 1』, 340쪽

50) representation과 practice의 차이는 중요하다. 고매한 사상을 담고 있거나 설파한 종교, 혹은 이념은 동서고금을 통해 늘상 존재하였다. 사상 내지 이념만으로도 시사해주는 바는 적지 않지만,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실천이 절실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실천은 단지 실천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갈등 등에 대한 해결 노력 등 당대의 ‘현실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조정되어 가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상 그 자체보다는 구체적 현실성을 가진다.

51) 예컨대 2016~2017년 미국 서부의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을 반대하는 스탠딩 락(Standing Rock) 시위에서 아볼 룩킹 호스(Arvol Looking Horse) 추장은 이 땅(territory)에 대한 인디언 원주민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어머니 지구의 원래 관리자인 우리는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원래의 지침을 따르고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와 우리의 뱃줄 같은 관계를 인식하고, 지구가 착취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오늘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여, 인간이 너무 멀리 가서 우리를 생존의 상태에 빠뜨렸다는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연과 지구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멸적인 활동과 개발은 생명에 필수적인 신성한 땅과 신성한 물의 악화와 파괴를 계속 야기하고 있다. Chief Arvol Looking Horse, "Letter to Barack Obama," November 12, 2016, excerpt at <https://oneearthsangha.org/statements/stand-with-standing-rock/>

52) 데이비드 보이드, 이지원 옮김, 『자연의 권리』, 교유서가, 2020, 30~33. 그러나 자이나교, 힌두교, 불교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힘사(산스크리트어로 불상생을 의미하며, 인도 종교문화의 중요한 덕목이다-옮긴이)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와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한 비폭력을 옹호한다.”고 한데서 동학과 달리 자연에 대한 ‘존중’의 대상이 생명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요청된다.

따라서 동학사상이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교나 ‘종족’들의 자연관·우주관과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런 연구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상이 교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다. 앞으로의 과제이다.

기존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동학은 인간평등 사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物物天 事事天”, “以天食天” 등의 설법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중심의 사유를 성찰하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⁵³⁾ 그러나 일상생활 속의 실천에 대해서는 교조 최제우가 자신의婢 2명을 해방하여 하나는 며느리로, 하나는 수양딸로 삼았다는 일화, 그리고 최시형이 잠시도 쉬지 않고 ‘노동’을 했다거나, 나뭇가지 하나도 꺾지 않았고, 땅위에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등 교주가 보여준 일화와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시기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을 동학의 이러한 사상과 연결하여 접근한 연구도 거의 없다. 농민군의 인명존중이나 ‘나눔과 배려’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⁵⁴⁾ 농민군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동학사상과 연계하여 이해하지는 않고 있다.⁵⁵⁾

우선 수운 최제우는 포덕 초기 포덕을 베풀 때 소와 양, 돼지고기를 사용하였으나, 1863년 8월 이후 포덕식에서 육류의 사용을 금지하였다.⁵⁶⁾ 물론 이것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빈곤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불교에서는 더 근원적으로 육식은 물론 생명에 대한 살생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학의 “물물천 사사천”의 생명사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敬物’ 사상은 동학의 독창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개념으로 지적되어 왔다. 경물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관계를 연대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한다. 인간과 자연 생태계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연 사물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이용되고, 통제되고, 관리되고 착취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는 서구 모더니티의 사상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현대 생태학자들에 의해 도달된 인식이다. 오문환은 이같이 경물에 기반한 동학의 인간관을 ‘네오휴머니즘’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모더니티 휴머니즘이 발견한 인간은 하늘

53) 오문환, 「해월의 삼경 사상: 한울, 사람, 생태의 조화」,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역음, 『해월 최시형의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 「해월의 사물(物) 이해」, 『동학연구』 8, 2001 ; 윤석산, 「동학의 공공성과 21세기 생활공동체의 전망」, 『한국언어문화』 60, 2016 ; 송봉구, 「해월 최시형의 待人接物論 연구」, 『동양철학연구』 93, 2018 등등

54)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내용의 새로운 모색-동아시아적 시각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2, 호서사학회, 2012 등

55) 문제의식이 발전론에 입각한 근대지향성 여부나 민족주의와 관련한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다. 최근 근대지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하였기 때문에 반근대였다거나, 비근대였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 인간사회의 질서라는 틀 속에 갇혀 있다.

56) 先生布德之初 以牛羊猪肉通用矣 至於癸亥(1863년)八月 先生顧予傳道之日此道兼儒佛儒三教之教 故不用肉種事, “동유”, 『동경대전』,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서울, 사운연구소, 1996, 이하 『총서』) 26, 102쪽. 표영삼은 초기 동학의 布德式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의관을 정제하고 예탁을 동쪽이나 북쪽을 향하게 차려 놓는다. 촛불을 켜고 분향 사배한 다음 주문을 적은 종이를 주고 받도록 하여 이 주문을 받으면 입도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設位한 곳을 향해 사배를 드리고 축문을 읽고 강령주문과 본 주문을 독특한 음률로 다 같이 송독한다. 이것으로 치제식을 마치게 된다. 차리는 음식물은 醴酒와 떡, 국수, 어묵, 과일, 포와 광, 채소 그리고 향과 초를 준비한다. 육류는 닭을 주로 쓰되 돼지고기도 혹 쓸 수 있으나 다소는 형편대로 한다.(表曠三, 『동경대전』 “해제”, 『총서』 26).

로부터 단절되었으며 物을 정복하는 인간인 반면, 동학의 네오휴머니즘이 찾아낸 인간은 영성을 본위로 하여 만물의 보편적 통일성을 실현시키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동학의 네오휴머니즘에서는 무생명으로 간주되는 자연 사물까지도 하늘님으로 공경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⁷⁾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니라.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지금 사람들은 다만 부모 포태의 이치만 알고 천지포태의 이치와 기운을 알지 못하느니라. 天地 卽父母 父母卽天地 天地父母一體也 父母之胞胎 卽天地之胞胎 今人但知父母胞胎之理 不知天地胞胎之理氣也

사람이 천지의 녹인 줄을 알면 반드시 식고(食告)하는 이치를 알 것이요, 어머니의 젖으로 자란 줄을 알면 반드시 효도로 봉양할 마음이 생길 것이니라. 식고는 반포의 이치요 은덕을 갚는 도리이니,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고하여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 人知天地之祿則 必知食告之理也 知母之乳而長之則 必生孝養之心也 食告反哺之理也 報恩之道也 對食必告于天地 不忘其恩爲本也.⁵⁸⁾

근래에 와서 사람의 윤리가 업신 여겨지게 되어 정녕 부모가 나를 낳아 길러주신 것을 알면 서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여 효도하는 자가 매우 적거늘, 하물며 미묘난측한 무형유적의 천지부모의 이치를 누가 능히 경외하여 효성으로 봉양하겠는가. 挽近以來 人倫蔑如 丁寧知父母之生我育我 而慢而忽之 以孝子甚鮮 又況微妙難測者 無形有跡天地父母之理 孰能敬畏 孝而奉之乎

대개 이 몸은 모두 이것이 천지 부모의 주신 바요 나의 사물이 아니니, 어찌 소홀히 하리오. 지금 세상 사람은 다만 부모의 기혈포태의 이치만 말하고, 천지조화 기성이부의 근본을 알지 못하며 혹은 이기포태의 수를 말하되, 낙지이후에 천포지태 자연이기의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음을 전연 알지 못하니 가히 탄식할 일이다. 蓋此身髮 盡是天地父母之所遺也 非我之私物也 何嘗疎忽哉 今世之人 只言父母氣血胞胎之理 而不知天地造化 氣成理賦之本焉 或言理氣胞胎之數 而全昧落地以後 長養於天胞地胎自然理氣之中 可歎也

한울님은 음양오행으로써 만민을 화생하고 오곡을 장양한 즉, 사람은 곧 오행의 가장 빼어난 기운이요, 곡식도 또한 오행의 으뜸가는 기운이라. 오행의 원기으로써 오행의 수기를 기르나니, 화해서 나고 자라서 이루는 것은 이것이 한울님이 아니고 누구이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 말 하리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께서 오만년 무극대운을 받아 덕을 천하에 퍼서 이 사람들로

57) 오문환, 『해월의 삼경 사상: 한울, 사람, 생태의 조화』,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역음, 『해월 최시형의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126~128

58) 天地父母, 『해월신사법설』

하여금 이 도를 행하여 이 덕을 알게하는 것은 다만 이 한 가지 뿐이라. 以陰陽五行化生萬民 長養五穀則 人是五行之秀氣也 穀亦五行之元氣也 以五行之元氣 飼養五行之秀氣 化而生之長而成之者 非天伊誰 非恩曰何 所以吾師受五萬年無極大運 布德于天下 使斯民 行斯道而知斯德者 只此一端也

우리 스승님의 대도종지는 첫째는 천지 섬기기를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도요, 둘째 식고는 살아계신 부모를 효양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니 내수도를 가히 힘쓰지 않겠는가. 식고의 이치를 잘 알면 도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것이니라. 吾師之大道宗旨 第一事天地如事父母之道也 第二食告如孝養生父母之理也 內修道 可不勉乎 快知食告之理則 道通在其中者此也 59)

동학은 부모에 대한 효도만 강조하는 유교와 달리 천지자연에 대한 은덕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人是五行之秀氣也 穀亦五行之元氣也”라는 구절에서 보이는 人=秀氣, 穀=元氣라는 비유도 앞서 언급한 기독교의 인간관이나 신-인간-피조물 간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상호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유구조를 보여준다. 물론 해월의 경우 법설 가운데 “天은 萬物을 造하시고 萬物의 內에 居하시나니, 故로 萬物의 精은 天이니라. 萬物中 最靈한 者 人이니, 故로 은 萬物의 主니라.”라는 구절은 언뜻 보기에 인간과 자연만물 관계를 차별적으로 보는 듯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人은 生함으로만 人이 되지 못하고 五穀百果의 滋養을 受하여 活하는 것이다. 五穀은 天地의 腴니 人이 此天地의 腴를 食하고 靈力을 發揮케 하는 것이다. 故로 天은 人에 依하고 人은 食에 依하니, 此 以天食天의 下에 立한 吾人은 心告로써 天地萬物의 融和相通을 得함이 어찌 可치 아니하라.60)

천-인-오곡(자연) 간의 순환적 상호의존성, 융화상통성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물물천 사사천’이 상징하듯 ‘物’에도 하늘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은 敬天함으로써 自己의 永生을 알게 될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人吾同胞 物吾同胞의 全的理諦를 깨달을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남을 爲하여 犧牲하는 마음, 世上을 爲하여 義務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敬天은 모든 眞理의 中樞를 把持함이니라.61)

以天食天 : 내 恒常 말할 때에 物物天이요 事事天이라 하였나니, 萬若 이 理致를 是認한다면 物物이 다 以天食天 아님이 없을지니, 以天食天은 어찌 생각하면 理에 相合치 않음과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59) 道訣, 「해월신사법설」

60) 其他, 「해월신사법설」

61) 三敬, 「해월신사법설」

人心의 偏見으로 보는 말이요, 萬一 한울 全體로 본다하면 한울이 한울 全體을 키우기 爲하여 同質이 된 者는 相互扶助로써 서로 氣化를 이루게 하고, 異質이 된 者는 以天食天으로써 서로 氣化를 通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한울은 一面에서 同質的氣化로 種屬을 養케하고 一面에서 異質的 氣化로써 種屬과 種屬의 連帶的 成長發展을 圖謀하는 것이니, 總히 말하면 以天食天은 곧 한울의 氣化作用으로 볼 수 있는데, 大神師께서 侍字를 解義할 때에 內有神靈이라 함은 한울을 이룸이요, 外有氣化라 함은 以天食天을 말한 것이니 至妙한 天地의 妙法이 도무지 氣化에 있느니라.⁶²⁾

사람은 한울을 떠날 수 없고 한울은 사람을 떠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사람의 한 호흡, 한 동정, 한 의식도 이는 서로 화하는 기틀이니라.”人不離天天不離人故 人之一呼吸一動靜一衣食 是相與之機也.⁶³⁾

天은 萬物을 造하시고 萬物의 內에 居하시나니, 故로 萬物의 精은 天이니라. 萬物中 最靈한 者 人이니, 故로 人은 萬物의 主니라. 人은 生함으로만 人이 되지 못하고 五穀百果의 滋養을 受하여 活하는 것이다. 五穀은 天地의 腴니 人이 此天地의 腴를 食하고 靈力을 發揮케 하는 것이다. 故로 天은 人에 依하고 人은 食에 依하니, 此 以天食天의 下에 立한 吾人은 心告로써 天地萬物의 融和 相通을 得함이 어찌 可치 아니하라.⁶⁴⁾

이와 같은 자연관, 경물 사상은 “人語가 곧 天語이며 鳥聲도 亦是 侍天主의 聲이니라.”(天語, 「법설」), 혹은 “六畜이라도 다 아끼며, 나무라도 생순을 꺾지 말며”,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전개되었다.⁶⁵⁾

동학교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⁶⁶⁾ 김용옥은 포교 초기 경주 용담에 모여든 사람들의 ‘신앙공동체’ 비슷한 집단이 있었지만, 그것은 실상 신안공동체가 아닌 생활인의 자발적 모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아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건설하는 공동체 운동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학혁명에 가담한 모든 지도자들은 정착된 지역에 일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민중조직을 활용하여 복락을 누린 유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학이 여느 종교와 다른 점을 강조하였다.⁶⁷⁾

62) 三敬, 「해월신사법설」

63) “天地父母”, 「海月神師法說」

64) “기타”, 「해월신사법설」

65) 六畜이라도 다 아끼며, 나무라도 생순을 꺾지 말며, 부모님 분노하시거든 성품을 거슬리지 말며 웃고, 어린 자식 치지 말고 울리지 마옵소서.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오니(內修道文, 「해월신사법설」). “포태하거든 肉種을 먹지 말며, 海魚도 먹지 말며, 논의 우렁도 먹지 말며, 거령의 가재도 먹지 말며, 고기 냄새도 맡지 말며, 무론 아무 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 기운을 따라 사람이 나면 모질고 탁하니”(內則, 「법설」)

66) 동학교도들은 세계 각지의 천주교 신앙촌이나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교우촌 같은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 생산과 분배, 노약자에 대한 무상 부조를 하는 등의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1』, 빅벨, 1998 ; 김정숙, 「쌍호공소를 통해 본 천주교 교우촌의 성립과 변천」, 『인문연구』 57, 2009 ; 김혜숙, 「19世紀 ‘甕器 教友村’의 信仰生活와 甕器 紋樣」, 『교회사연구』 30, 2008 등 참조.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카톨릭 신앙공동체에 대해서는 김영장, 「교우촌과 예수회 원주민 보호 정착지와 신앙촌의 비교 분석」, 『가톨릭신학』 6(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5 참조

67) 김용옥, 『동경대전 1: 나는 코리안이다』, 통나무, 2021, 329

2) 동학농민군의 생명관·자연관

교조신원운동 시기나 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들이 보여준 행동에서 생명이나 경물에 대한 동학사상이나 교조의 가르침을 일부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1893년 2월 11일 朴承浩를 疏頭로 한 동학교도 대표 40명은 광화문으로 나가 상소문을 올렸다. “各道幼學臣朴承浩等”으로 시작하는 상소문의 내용에는 동학의 핵심 교리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지를 경건히 받들어 일할 때마다 반드시 마음으로 고하고[심고(心告)] 천지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이 하라는 것은 先聖들이 밝히지 못한 것으로써 최제우가 창시한 도리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천지자연에 대한 존중이 최제우가 처음으로 발상한 가르침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농민군은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은 〈四個名義〉를 발표했다.

- 一曰 不殺人 不殺物
- 二曰 忠孝雙全 濟世安民
- 三曰 逐滅倭夷澄清聖道
- 四曰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 立定名分 以從聖訓⁶⁸⁾

‘살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이해가 가지만, ‘살물’을 금지하는 조항은 다른 나라의 민중운동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조항으로 이해가 쉽지 않다. 역시 동학의 三敬 사상, 경천 경인 경물, 곧 하늘-인간-자연 간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가르침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조항이라 생각된다.

또 농민군들이 세몰이를 하면서 영광에 주둔하던 4월 12~16일 사이에 제시한 〈對敵時 約束 4項〉〈12條 戒軍號令〉 역시 농민군의 자연관 내지 경물사상을 잘 보여준다. 영광에 주둔할 무렵에는 농민군의 수는 무장기포 당시의 3배 이상인 1만 2,000명~4,000명에 이르렀다. 또 이 무렵부터 농민군 가운데는 지배층의 탐묵과 학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담한 자들 이외에도 불평을 품은 자, 동학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 입당한 자, 각지의 무뢰배 등이 몰려들기 시작했다.⁶⁹⁾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는 영광에서 농민군의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 두 종류의 행동준칙을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對敵時 約束 4項〉

1. 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刀而勝者 爲首功(매번 대적할 때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68) 「大韓季年史」,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이하 『총서』) 4, 363쪽 ;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292-293쪽. 295쪽

69) 제1차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 양상」, 『동학연구』 11, 2002 참조

것을 최고의 공으로 삼는다).

2. 雖不得已戰 切勿傷命 爲貴(부득이 전투를 하더라도 절대로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3. 每於行進所過之時 切勿害人物(매번 행진하여 지나갈 때 사람과 ‘物’을 해치지 않는다)
4. 孝悌忠信人所居之村 十里內勿爲屯住(孝·悌·忠·信한 사람이 사는 촌락으로부터 10리 이내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12條 戒軍號令〉

1. 降者愛待(항복한 자는 자애롭게 대우해준다)
2. 困者救濟(곤경에 처한 자는 구제해준다)
3. 貪者逐之(탐욕한 관리는 쫓아낸다)
4. 順者敬服(공순한 사람에게는 敬服한다)
5. 走者勿追(도망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는다)
6. 飢者饋之(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인다)
7. 奸猾息之(간활한 자는 그 짓을 못하게 한다)
8. 貧者賑恤(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9. 不忠除之(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逆者曉諭(거역하는 자에게는 효유한다)
11. 病者給藥(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不孝殺之(불효한 자는 죽인다)

위의 조항은 우리들이 舉行하는 근본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地獄에 가들 것이다.⁷⁰⁾

가장 주목되는 점은 〈對敵時 約束 4項〉의 제3항, “切勿害人物”이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가축” 혹은 “다른 사람의 재산” 등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역시 경물사상에 비추어 보면 사람과 “동물과 식물” 혹은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모든 ‘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의 유생 奇幸鉉은 그가 쓴 『鴻齋日記』에서 농민군들은 지나가는 길에서 풀 한 포기 밟지 않았고, 벌레 한 마리 죽이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반면 營軍이 지나간 곳에는 모든 것이 ‘殘滅’되었다고 하였다.⁷¹⁾

70) 『續陰晴史』 上, 311쪽 ; 「東匪討錄」, 『총서』 6, 175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쪽 ; 「朝鮮暴動實記」, 『총서』 25, 202쪽 및 204쪽 ; 「東京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2, 352쪽 ; 「万朝報」, 明治 27年 6月 5日, 397-398쪽 ; 「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3, 17쪽 ; 「內亂實記 朝鮮事件」, 『총서』 25, 191쪽. 「甲午朝鮮內亂始末」에는 동도대장의 계칙 가운데 2개조가 소개되어 있다(『총서』 25, 120쪽). 또 「大阪朝日新聞」과 「万朝報」에서는 12개조의 계군호령이 12개의 軍旗에 쓰여 있다고 하였다.

71) 奇幸鉉 著, 『鴻齋日記(脫草集)』, 1894년 4월 9일조.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사업회, 2017, 403쪽. “東學之人 所過

제2차 봉기 당시 공주 우금터 전투에서 패배한 후 전봉준은 손화중에게 편지를 보내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여 살길을 찾게 하고 쓸데없이 생민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⁷²⁾ 역시 “살리기 위한 도리로서 만물을 죽이는 것은 엄중하지만 잔인하지 않다.”고 하며 “극도로 흉악한 자들은 모두 즉시 일일이 잡아다 처형하여 영원히 우환을 없애고, 포악한 행동을 자행하여 무고한 이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자들은 균율이 엄중하니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한 관군 측의 생명관과는 크게 대비된다.⁷³⁾ 또한 다른 나라의 대규모 반란과 비교해 볼 때 농민군의 인명살상과 관련한 폭력의 강도는 매우 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⁴⁾

이 점에서 자신들로 하여금 목숨을 건 반란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들이라 할 수 있는 탐관오리 등에 대해서는 貪者逐之 奸猾息之 不忠除之 逆者曉諭라 하여 군이 죽임을 회피하면서 유독 “不孝”에 대해서만 “殺之”라고 한 조항이 특이하다. 동학에 내포된 유교의 영향 때문인지 등 설득력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동학사상이나 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에도 서로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면서 동학사상과 농민군의 생각/행동을 ‘근대중심적’이지 않은 방향에서 이해해 나가야 할 것이다.⁷⁵⁾

“불살인 불살물”, 그리고 飢者饋之 貧者賑恤 病者給藥,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토지개혁 구상에서 보이는 ‘평균분작’ 등의 조항은 근대적 사유제와 자연에 대한 약탈을 전제로 한 자연관이나 인간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이었음을 지적해 둔다.

글로벌한 차원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들을 생각할 때 이상과 같은 동학과 농민군의 생명관 자연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발전론적 시각에서 또 근대중심적, 인간중심적 시각에서만 이해되어 오던 연구 방향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환경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인간 사회 내부의 질서나 체제의 ‘민주적’ ‘평등지향적’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민주’와 ‘평등’이 국민국가 내부에 국한될 때 그것이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파괴와 약탈로 이어진 파국적 전개 과정은 근대 이후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또한 ‘민주’와 ‘평등’이 매우 진전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명, 삶의 방식이라면 인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족할지 몰라도,⁷⁶⁾ 그것은 자연 환경에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고,

不踏一生草 不殺一生虫 營軍所過處 無不殘滅云”

72) “琿準始懼貽書化中 使散衆亡命 勿徒殺生民”(「梧下記聞」 三筆, 『총서』 1, 342쪽; 번역서, 462쪽)

73) 「召募事實」(尙州), 『총서』 11, 357~358

74) 배항섭,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과 폭력 : 정당성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배항섭·이경구 엮음, 「비교와 연동으로 본 19세기의 동아시아 : 19세기의 동아시아 4」, 너머북스, 2020

75) 이는 다른 나라의 민중운동에서도 보인다. 태평천국에서도 “尊君順君을 주장하면서도 ‘大平均’을 주장”하는 점, “서민 대중을 동정”하면서 또 “서민 대중에 대해 無道하다”고 하는 점, “재산 공유도 주장하지만, 봉건적 사유 제도를 수호하는 사상 있다”는 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존비귀천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提唱한다”는 점 등 태평천국군의 구호에 상호 충돌하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張穎, 「太平经价值观及其与农民起义的矛盾关系」, 산동대학 석사학위논문, 2008). 탁월한 지식인의 잘 짜여진 ‘사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

76) 명말의 유학자 왕부지도 天의 理는 民 만이 아니라 物에도 관련이 되지만, 백성은 物과의 접하는 방법에 節度가 없기 때문에 物의 측에서 교란적 영향을 입으며, 民意는 자칫하면 사려 깊지 않고 무정견한 것으로 되기 쉬우며 질서 파괴적 성격조차 띄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여 민과 물의 관계에 대해 일종의 생태론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林 文孝, 「中國における公正- 生存と政治」, 三浦徹·岸本美緒·関本照夫 編, 『比較史のアジア : 所有·契約·市場·公正』, 東京大学出版会, 2004, 239)

그 재앙은 다시 인간을 역습할 것이며 그 끝은 인류와 자연 모두의 파멸일 수 있기 때문이다.⁷⁷⁾

맺음말

기후변동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파울 크뤼천도 언급하였듯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예컨대 인류세 국면에서 지구적 규모의 생태적 비상상황은 자본의 과잉축적 및 제국주의적 수탈의 강화 과정과 중첩되고, 이는 신기원을 이루는 중이라 할 경제적, 생태적 위기를 낳고 있으며, “이윤의 흐름을 지속하고자 새로운 소비 진작 경로를 마련하려는 자본의 움직임, 자본의 과잉축적이 전 지구적 생태위기를 가속화한다. 그 결과는 일종의 지구적 아마겟돈 상태로, 이는 사회경제적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 인간종 자체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는 진단이 그것이다.⁷⁸⁾

이는 그동안 우리가 근거해 왔던 인간중심, 근대중심의 역사 인식이 가진 ‘허망함’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자연과 지구라는 인류의 생존과 삶에 불가결한, 인간과 유기적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 있던 존재였지만, 근대인들이 소비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약탈과 통제의 대상으로 만 타자화하였던 존재들을 우리의 인식 속에 끌어안는 순간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근대역사학의 인식론적 기반 내지 근대 이후 인류가 추구해온 ‘보편적’ 가치 내지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던 개념들, 곧 개인과 개인의 탄생,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근대’의 규정을 비롯하여 심지어 민주주의 등등 근대가 복잡한 과정을 통해 구성해 놓은 ‘보편적’ 가치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일 수 있는가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근대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 물론 토지와 인간의 관계처럼 ‘자연’ 내지 物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근대 이후에는 물에 대한 인간의 작용, 물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그 본질이었다. 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도 전근대에는 자연 속의 인간, 근대 이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통제였다면, 이제는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되고 있다.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이해에도 자연과의 관계라는 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역사의 ‘발전’을 가늠해 온 인식 역시 심각하게 성찰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과 그것 둘러싼 인간사회의 질서와 사유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전체사(total history)의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에 제시된 바 있지만, 이제는 환경문제까지 포괄하는

77) 장희익은 인류를 “오늘 온생명에게 치명적 위협을 주고 있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죽임과 투쟁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더불어 삶’을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생존에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온 개체생명으로서의 인식만이 아닌, 우주적 생명, 또는 온생명과의 연관된 생명에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윤석산, 「동학의 공공성과 21세기 생활공동체의 전망」, 206~207)

78) Foster, John Bellamy, “On Fire This Time”, *Monthly Review* Vol.71, No.6 (November 2019), p.10(<https://monthlyreview.org/2019/11/01/on-fire-this-time/>)

더 넓은 의미의 전체사가 요청된다. 앞서 살펴본 동학사상과 생명, 생태문제를 연결하여 이해한 연구들, 그리고 최근 차크라바르티가 지구사(geohistory)를 제안하며 주장했듯이 인간의 행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아니라, 양자 간의 상호 관계성을 포함하는 보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불평등과 환경문제를 초래한 서구와 서구가 구성하고 이 끌어온 근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그 너머를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⁷⁹⁾

앞서 언급했듯이 근대 최고의 성취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민주주의는 국내문제나 글로벌한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가 기후 위기라는 글로벌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인간중심의 사회/정치질서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가 환경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⁸⁰⁾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자유와 평등, 정의, ‘민주주의’ 같이 단지 인간사회의 질서에 국한된 문제의식이 아니라, 자연생태,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⁸¹⁾ 이점에서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이전의 근대중심적 발전론, 목적론적 인식, 혹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79) “자연의 착취를 멈추고 자연의 존중으로 이행하려면, 우리의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데이비드 보이드, 이지원 옮김,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 교유서가, 2020, 280).

80) Midlarsky, Manus I.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ume: 35 issue: 3, page(s): 341-361, Issue published: May 1, 1998

81) 19세기에 들어 헤겔Friedrich Hegel 등에 의해 자연으로부터 역사의 이론적 해방이 촉진되었고, 점차 역사는 자연과 거리를 두었고 자연의 필연성에 갇힌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헤겔에 따르면, 특히 아프리카의 기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기후도 '자연 상태'라고 불리는 절대적인 불의의 늪에 주민들을 가둔다. 그러나 라인하르트 코젤렉 Reinhart Koselleck이 지적했듯이 1870년까지 “모든 역사는 생물학적 원초성에 직접적으로 파묻힌 채 ‘자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18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연은 역사적 사고의 대상에서 사라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복종시킨' 인간의 위업에 경외감을 표하였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가 지적했듯이 '경제와 자연의 완전한 분리'는 아주 최근까지 경제학 사고와 교육의 지배적인 방식이었다(Thomas, Julia Adeney, “The Present Climate of Economics and History”.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History in the Anthropocene: Perspectives on Asia and Africa*, Austin, Gareth ed.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7. ProQuest Ebook Central, pp.293-95

토론문

동경대전으로 본 동학의 새로운 이해

| 토론 | 김 춘 성 (천도교 상주선도사, 전 부산예술대 교수)

동경대전으로 본 동학의 새로운 이해에 대한 토론문

김춘성(천도교 상주선도사, 전 부산예술대 교수)

동학은 1860년 4월 5일 수운 대신사 (최제우, 1824~1864) 의 결정적 종교체험을 통해 창도되었다. 그러므로 금년은 포덕 165년이 되는 해이며 수운 최제우 대신사 출세 20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수운선생의 가르침을 담은 『동경대전』을 최초로 간행한 인제에서 『동경대전』과 동학사상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동학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도원기서를 보면 동경대전 간행소를 경진년(1880) 5월 9일 인제 갑둔리 金顯洙 家에 각판소를 설치하고 11일 개간하기 시작하여 6월 14일에 인출을 마치고 15일에 별도로 제사를 베풀고 100부를 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집 중에서 정성스러운 힘과 비용으로 쓸 재물을 낸 사람은 상주 윤하성이 40금, 정선 접중 35민, 인제접중 130금, 청송접중 6민이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당시 강원도 정선과 인제의 동학교도들이 경전 간행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경대전』은 수운선생이 자신의 신비체험과 깨달음의 내용을 직접 기록한 세계종교사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동학의 경전이다. 수운선생은 자신의 종교체험을 통한 깨달음의 내용을 도로써 말하면 ‘천도’이고, 학으로 말하면 ‘동학’이라고 밝혔다. 즉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라는 의미에서는 천도이며, 이를 밝히고 가르치는 학문으로는 동학이라고 하여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떠난 것이 아닌, 이를 토대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수운은 전통 종교인 유·불·선은 물론 당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던 서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함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교체험에는 범신론적 전통과 유일신적 종교 전통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김경재는 그의 신관을 범재신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학의 본질과 내용을 살피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동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학연구는 사회적 실천운동이나 이를 통해 나타난 동학사상에 집중되어 있어 동학의 본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동학사상이 역사나 정치 사상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운동 여성운동의 사상적 근거로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함으로써 동학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학의 면모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표자께서는 역사학자로서 오늘날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 환경 문제를 배제한 역사연구나 서술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궁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역사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환경문제 ‘인류세’ 등의 개념은 그동안 역사연구의 대상이었던 인간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그 ‘외부’로 치부되어 온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역사 인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보았다.

환경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국가나 단체 및 몇몇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인류의 과제로서 지혜와 통찰 및 실천적 삶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발표자의 인식처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포함하는 인류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동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운 선생이 자신의 종교체험과 깨달음을 담아 직접 저술한 순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과 순 한글로 된 『용담유사』라고 할 수 있다. 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필독하였을 것이다.

『동경대전』은 당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순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나 국문학자, 역사학자 등에 의해 지금까지 동경대전 주해서가 여러 권 나왔다. 그러나 오류도 많고 왜곡도 많아 동학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비판 속에서 각자 자기가 이해한 동학을 말하기 바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최근 동경대전 주해서를 낸 도올이라고 할 수 있다. 도올의 동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나온 『동경대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신학과 동양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동경대전』 주해서는 이러한 갈증을 채워 줄 것으로 기대하여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분 또한 수운선생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파악하였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동학은 유학이나 서학과 다른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동학, 정직하고 위대한 학자로서의 수운선생이었다. 결국 동경대전을 통해서 힘없고 배우지 못한 민중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수운선생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심학으로서의 동학은 보이지 않았다.

수운선생은 당시의 주자학이 만권시서를 읽어 도성덕립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수운은 13자 주문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함으로써 도덕군자의 길이 학식이나 지위와 같은 외재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교 사회에서 소수 엘리트들에게 국한되었던 군자와 성인의 길을 만민에게 열어준 것으로, 당시의 반/상, 적/서, 남/녀, 노/소 등의 차별을 선천의 낡은 문물제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다시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였다.

최근 동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동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발표자께서는 동학사상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기후위기와 생태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동학사상이나 『동경대전』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파괴,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동학의 지혜와 통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실천운동가들이 동학에 주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동경대전 인제 경진판의 판본 분석

| 발표 | 손 계 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1880년대 『동경대전』의 판종과 특징

손계영(대구가톨릭대)

1. 머리말

『동경대전』은 동학(東學)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의 가르침을 담은 동학 경전이다. 1864년 최제우가 대구 감영에서 참형된 이후, 제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이 스승 최제우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1880년 강원도 인제에서 간인하였다. 1880년 인제에서 간인할 당시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필사본 『도원기서(道源記書)』가 남아 있어 『동경대전』의 초간본이 1880년(경진) 경진본(庚辰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현존 판본 가운데 1880년 인제에서 간행되었다는 간인기(刊印記)나 명확한 표기가 있는 현존본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09년 이상훈씨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독립기념관본이 경진본일 가능성에 대해 윤석산은 근거를 제시하였고,¹⁾ 김용옥은 독립기념관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이 동일 판본이며, 해당 판본에는 간인기 등 결정적인 단서는 없으나 초간본인 경진본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

동학 연구자들은 최근까지 1907년 간행된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을 ‘최초의 활자본’이라고 보았다.³⁾ 1907년본보다 이른 시기에 간행된 판본으로는 간인기(刊印記)가 있는 판본 5종과 간인기가 없는 판본 1종이 현존하고 있어 총 6종의 판본이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다른 이견 없이 1907년 신연활자본 이전의 1880년대 판본 6종이 모두 목판본이라고 인식하였고, 목판본이라는 전제하에 오랫동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1907년본을 ‘최초의 활자본’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최근 김용옥(2021)은 지금까지 발견된 1880년대에 간행된 판본들이 모두 목활자본이라고 주장하여 동학 연구자들의 기왕의 인식에 이견을 제시하였다. 목활자본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나오므로 인해 동학 연구에 있어 『동경대전』의 서지학·판본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 이 논문은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재정리하고 보완한 것임
(손계영, 2022, 『1880년대 간행 동경대전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9)

1) 윤석산 (2010).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201-230.

2) 김용옥 (2021). 동경대전 판본에 관하여. 동경대전1. 서울: 통나무. 391-423.

3) 윤석산 (2021a). 『동경대전』 간행의 서지적 고찰. 주해 동경대전. 서울: 모시는 사람들. 407.

되었고, 명확한 근거 제시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판본 연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⁴⁾

1880년 경진본의 간행 과정을 기록한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동경대전』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고 인식하게 만든 용어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를테면 침재(鋟梓), 기궐(劄刷), 간판(刊板), 각판(刻板) 등과 같은 용어이다. 이들 용어는 대부분 목판본 간행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에 그동안 동학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는 1907년 이전 판본들이 모두 목판본이라 믿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1880년 경진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을 ‘새로 발견된 목판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강원도 인제에서 간행된 목판이라는 의미로 ‘인제판 동경대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⁵⁾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880년대 간행된 『동경대전』 판본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판본 4종에 대해서는 판본별 명칭에 대한 재검토, 기관 소장본에 대한 소개, 기본 서지정보 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최근까지 목판본으로 인식되었던 1880년대 판본 4종에 대한 판종을 분석할 것이다. 형태서지학적으로 목활자본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1880년대 판본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1880년 경진본으로 추정되는 7권1책본을 소장처별 소장본 4종(독립기념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장서각본, 개인소장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880년대 판본 현황

『동경대전』 현존 판본은 1907년 판본까지 7종의 판본이 공개되었으나,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1880년대 판본 4종을 소개하고자 한다(표 1 참조).⁶⁾ 1880년대 판본 4종의 경우, 기존 연구자에 따라 각 판본을 이르는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간행 장소와 간행 시기 뒤에 ‘판(板)’자를 붙여 ‘인제경진판’, ‘목천계미중춘판’, ‘경주계미중하판’, ‘인제무자계춘판’ 등이나 ‘새로 발견된 목판본’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때 명칭의 ‘판’자는 목판본의 판목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1880년대 판본을 모두 ‘목판

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동경대전』 판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5) 윤석산의 연구에서는 1880년 경진본으로 추정되는 독립기념관본을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윤석산, 위의 논문, 2010.), 염정섭의 연구(2019)에서는 1880년 인제에서 간행된 목판이라는 의미로 ‘인제판 동경대전’이라고 하였다(염정섭 (2019). 1880년 인제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175-228.). 동학 관련 연구자들은 그동안 1880년대에 간행된 『동경대전』이 목판에 의해 간행된 목판본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6) 1880년대 4종의 판본 이후에는 1891년(신묘) 및 1892년(임진)에 간인된 판본과 1907년에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간인된 판본 등이 있다. 1891년 신묘본에는 권두제가 없으나, 목차제와 권미제(권말제)로 ‘東經集大畧’이라 표기하였다. 반면 1892년 임진본에는 권두제와 권미제가 ‘聖經大畧’으로 표기되어 있다. 두 판본 모두 별도의 서발문이 없으나 권미제 바로 앞에 간인가가 있어 그 간행시기를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辛卯仲春重刊”이라고 표기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壬辰重刊”이라 표기한 간인가가 있다. 이상의 두 판본을 윤석산의 저서(2021)에 영인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저자에게 출처를 확인한 결과, 대구의 한 고서점을 통해 복사본을 구하였으며 현재 원본의 소장처는 알 수 없다고 한다. 1907년 천도교중앙총부 간인 판본은 계선이 없는 無界이며, 연할자로 간행된 신연할자본이다. “布德四十八年孟冬”, “中央總部重刊”이라고 표기된 판권지가 붙어있으며, 제3세 교주인 의암 손병희의 발문과 구암 김연구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천도교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간행되었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있는 판본이다.

본'이라는 인식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인제에서 경진년에 간행된 목판(책판)이 있다면 이는 '인제경진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목판으로 찍은 책은 '인제경진본'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러나 1880년대 판본 4종은 최근 연구에 의해 모두 '목활자본'임이 확인되었으며,⁷⁾ 활자본의 경우에는 목판이 남아있지 않고 인출된 책만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판본에 '판'자보다는 '본(本)'자를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발표자는 목판을 의미하는 '판'자 대신에 책을 의미하는 '본'자를 사용하고, 간행 시기만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계미중춘본', '계미중하본', '무자본'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⁸⁾ 판본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

표 1. 1880년대 판본 현황

구분	간인시기	간인기	판수 (장수)	책 구분	행자수	소장 기관
1	7권1책본	1880년 추정 (경진본으로 추정)	없음	30판	책1~7	8행16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기념관(이상훈 기증본) ◦ 국립중앙도서관 ◦ 한중연 장서각 ◦ 개인소장본(이양재 소장)
2	계미중춘본 (목천본)	1883년		38판	不分卷	8행13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진관 기탁본)
3	계미중하본 (경주본)	1883년		26판	不分卷	9행20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명대 동산도서관 ◦ 개인소장본(문용익 소장)
4	무자본	1888년		29판	不分卷	9행15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80년 강원도 인제에서의 『동경대전』 간행 과정을 기록한 『도원기서』에 의하면 1880년 경진년에 초간본이 간행되었음은 명확한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1880년 경진년 간인이 표기된 현존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2009년 독립기념관본(이상훈 기증본)이 발견되면서 윤석산(2010)은 해당 판본이 경진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해당 판본을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초기 동학 시기의 문서에만 등장하는 문장의 제목이 나온다는 점, 한울님을 뜻하는 '천주'와 수운 최제우를 뜻하는 '선생' 글자 앞에 한 글자 빈 공간을 띄어쓰기 하여 존경을 나타낸다는 점, 내용을 7개의 권(卷)으로 나눠 문집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1880년에 간행된 초간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김용욱(2021)은 해당 판본이

7) 손계영, 「1880년대 간행 『동경대전』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91, 2022.
 8) '목천', '경주'와 같이 간행주체·장소와 관련된 용어는 생략하고 '계미', '무자'와 같이 간행시기를 사용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다만, 계미년(1883)에는 2차례 간행이 있었기 때문에 중춘(仲春)·중하(仲夏)를 추가하여 계미중춘·계미중하로 표기하였다.
 9) 7권1책본은 국립중앙도서관본, 독립기념관본, 장서각본, 개인소장본 등을 비교하여 사용하였으며, 대표되는 판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을 사용하였다. '계미중춘본'의 경우에는 현재 충남역사문화연구원본(김진관 기탁본)이 유일본이기에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계미중하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하였다. '무자본'의 경우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국립중앙도서관본, 계명대본, 규장각본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문이미지를 이용하였으며, 충남역사문화연구원본은 기관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초판본임을 확신한다고 하여 이를 ‘인제경진초판본’이라 명명하였고, 동일한 판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본(BA1912-19)을 발굴하여 소개하며 처음으로 목활자본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손계영(2022)은 동일한 판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PC17-2A)을 발굴하여 소개하였으며, 해당 판본이 목판본이 아니라 활자본인 근거 4가지와 나무 활자인 목활자본인 근거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개인소장본(이양재 소장본)을 발굴함으로써 인해 해당 판본은 현재 독립기념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장서각본, 개인소장본 등이 있다.

해당 판본을 지칭하는 명칭에 대해 언급하자면, 윤석산(2010)의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이라는 명칭의 경우에는 2009년 독립기념관본이 새로 발견된 이후에도 새로운 판본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용욱(2021)의 ‘인제경진초판본’ 경우, 해당 판본이 정확상 1880년에 간행된 경진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해당 판본에는 정확한 간기나 서발문이 없기에 100% 확실하다고 판정하기 어렵고 최근 지속적으로 자료가 발굴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명칭을 사용하기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계영(2022)의 경우에는 해당 판본만의 유일한 특징인 7권1책이라는 점을 내세워 ‘7권1책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¹⁰⁾ 이번 발표에서도 ‘7권1책본’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판본은 1883년 봄에 간인된 『동경대전』이다. 『천도교회사 초고』에 의하면 1883년 2월에 충청도 목천(木川) 구내리(區內里)의 김은경(金殷卿) 집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문헌 기록에서 1883년 2월에 간행되었다는 두 번째 판본은 현재 단 하나의 판본만이 발견되어 공개되고 있다. 원소장자 김찬암(金燦菴)의 손자 김진관 씨가 보관하였던 현존본으로 2021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기탁되었다. 판본의 권말에는 최시형의 발문과 “계미중춘 북접중간(癸未仲春 北接重刊)”이라는 간인기가 붙어있다.

세 번째 판본은 같은 해 1883년 여름에 간인된 것이다. 마지막 권말에 최시형이 새로 쓴 발문과 “계미중하(癸未仲夏) 경주개간(慶州開刊)”이라고 표기된 간인기가 있다. 최시형의 발문을 통해 살펴보면, 1883년 봄에 간인된 목천본과 여름에 간인된 경주본 모두 최시형의 주관으로 출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존본으로는 1969년 강원도 속초의 문용익 씨 소장본이 공개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295-최제우)이 공개되어 있다.

네 번째 판본은 1888년에 간인된 판본이다. 권말에는 작성자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발문과 “무자계춘 북접중간(戊子季春 北接重刊)”이라는 간인기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의 발문 가운데 “정해년(1887) 겨울부터 무자년(1888)까지 김병내(金秉胤)가 … 8·9명의 지우들과 함께 힘을 다해 판각사업을 이루기로 맹세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¹¹⁾ 김병내의 주관에 의해 간인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판본은 충남 아산군 염기면 송곡리의 박명순 씨 소장본이 1978년에 공개된 바 있고, 기관에 소장된 사례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299.52-C454d2)이 있다.

10) 해당 판본을 제외한 나머지 판본의 경우에는 권의 구분이 없는 不分卷 1冊인 반면, 해당 판본에서만 7卷으로 分卷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11) 『동경대전』 무자본 발문. “自丁亥季冬 至於戊子 秉胤心尙慨歎 忘其孤陋 謹與八九諸益 誓同極力 大成剗劂之功”

3. 1880년대 판본의 판종

1880년대 간행된 판본 가운데 1891년 신묘본과 1892년 임진본을 제외한 나머지 4종의 판종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목판본으로 연구되었으나, 해당 판본이 목판본이 아니라 활자본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활자 조판으로 인한 미세한 틈 확인

활자본은 일반적으로 광곽부터 계선, 판심, 어미, 활자까지 판형의 전체를 모두 조립하는 방식이라 하여 이를 조판(組版)이라고 한다. 목활자본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광곽과 계선의 재료는 얇은 대나무가 일반적이고 판심, 어미, 활자의 경우에는 향양목, 자작나무 등 일반 나무를 사용하였다. 세로·가로로 대나무 광곽과 행을 구분하는 계선을 끼운 다음, 가장 가운데 판심에 어미와 서명, 장수(張數) 등을 식자(植字)하였고, 마지막으로 본문 내용에 맞는 활자를 가져다 식자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조판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대나무 광곽의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위치, 광곽의 가로선과 계선이 만나는 위치, 어미와 계선이 만나는 위치, 활자와 계선이 만나는 위치 등 조립이 이루어진 모든 위치에 미세한 빈 공간이 생긴다. 간혹 먹이 번져 빈 공간이 먹으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일부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판형이 조립형 방식인지, 일체형 방식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활자 조판 흔적 (A: 광곽의 모서리 부분, B: 계선과 광곽이 맞닿는 위치, C: 어미와 계선이 맞닿는 위치)

예컨대 <그림 1>의 A 위치를 보면 광곽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부분에 미세한 틈이 있고, 광곽의 가로선과 계선이 만나는 부분(B)에도 미세한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 위치에서도 어미와 계선이 딱 붙지 않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조립된 방식임을 말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글자와 계선 사이, 글자와 광곽 사이에서도 딱 붙지 않고 미세한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활자본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이다.

3.2 형태가 다른 2종 이상의 활자체 사용

『동경대전』 판본의 특징 중 하나이자 활자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 이는 2종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7권1책본과 계미중춘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래의 활자가 있고, 중간중간 그보다 크기가 작거나 획의 두께가 가느다란 활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소자(小字) 활자의 사용 빈도는 7권1책본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그림 2>의 왼쪽 사례와 같이 한 행에 소자가 적어도 한두 자 이상씩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소자 활자의 사용 빈도는 7권1책본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계미중춘본이며, 계미중하본이 가장 낮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무자본의 경우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고 활자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으며 글자 크기가 균일하지 않다. 그 이유가 2종 이상의 활자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글자의 크기가 통일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자본의 경우에는 사용 빈도를 논하기 어려워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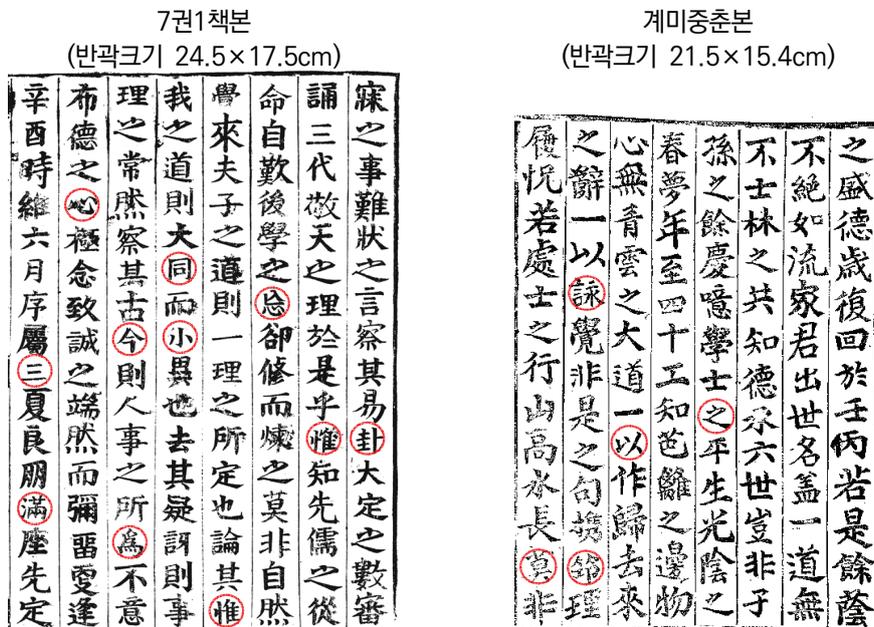


그림 10. 대자(大字)와 소자(小字)가 동시에 사용된 사례 (소자는 동그라미로 표시)

그렇다면 소자 활자 사용 빈도가 높은 7권1책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활자와 새로 제작한 활자를 혼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처음 제작 때부터 일부러 조금 더 작은 활자를 함께 제작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전자의 경우이든 후자의 경우이든 의도적으로 작은 활자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한 행에 16자를 배열하기에 공간이 부족할 때 그보다 작은 활자를 중간에 사용함으로써 16자를 알맞게 식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3.3 글자 배열이 균일하지 않은 식자와 조판

1888년에 간행된 무자본은 전체적으로 9행15자로 구성된 판형이지만, 12곳에서 1행 16자 방식으로 식자하였고 1곳에서는 1행 14자로 배열하였다.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배열 간격도 균일하지 않다. <그림 3>과 같이 정간(井間) 형태로 분할하여 균일하게 배열되지 않은 부분을 짙은 음영으로 처리해 보면 그 배열이 얼마나 불규칙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 수의 증감 현상과 배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현상 등은 무자본이 활자본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7권1책본과 계미중춘본의 경우에도 정간 형태로 분할 하였을 때 가로열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중간중간 소자 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좌우 열이 맞지 않기 때문이며, 균일하지 않은 활자를 배열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계미중하본의 경우에는 다른 판본에 비해 활자 크기가 월등히 작고 1행에 정확하게 20자씩 배열되어 행과 열이 가장 정확하게 배열된 판본이다.



그림 11. 무자본 (9행 15~16자)
[음영 : 글자배열 균일하지 않은 경우]

3.4 활자의 인쇄면에서 나무결 확인

앞서 제시한 활자 테두리가 인쇄되는 현상, 무리하게 활자를 끼우기 위해 활자가 부딪치거나 겹쳐진 현상, 2종 이상의 형태와 크기가 다른 활자를 사용한 현상 등으로 보았을 때 7권1책본, 계미중춘본, 계미중하본의 경우에는 목활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판면의 인쇄 상태, 글자의 두께와 모양 등을 통해서도 3종의 판본이 목활자본임이 확인 가능하다. 다만, 1888년에 간행된 무자본의 경우에는 글자 획의 두께와 글자의 형태가 특이한 점, 인쇄 상태가 고르지 않고 희미한 점, 활자의 중심 위치가 글자마다 다르다는 점,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 수의 변형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나무 재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자본이 나무로 만든 목활자본이 아니라면, 도토(陶土)를 이용하여 불에 구워 제작한 도활자본(陶活字本), 표주박에 글자를 새겨 만든 포활자본(匏活字本), 대나무에 글자를 새겨 만든 죽활자본(竹活字本) 등의 가능성이 있다. 도활자·포활자·죽활자는 금속활자·목활자에 비해 활자의 수명이 길지 않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활자의 재료인 도토, 표주박, 대나무 등은 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라는 점,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 제작 과정에서 실패하였을 경우 비용·시간의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지방에서 제작된 소수의 현존본이 남아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및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도활자가 소장되어 있고, 상주박물관 소장의 도활자 대자(大字) 실물과 고 김두중 교수가 소장하였던 소자(小字) 실물이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무자본의 활자 형태와 인쇄 상태 등을 포활자·도활자로 간행된 현존본과 비교하고 현존 도활자와도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지역에서 출토되어 현재 상주박물관에 소장된 ‘曰’자와 ‘狺’자의 활자 크기를 살펴보았다. 무자본 활자의 세로 길이는 약 1.4cm이지만 상주지역 출토 도활자의 세로 길이는 1.1c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진형, 2013, 367-370), 활자의 글씨체나 인쇄 상태에서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는 무자본 활자 크기와 글씨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활자 실물 및 현존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현존본 및 활자 실물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1880년대 4종의 판본이 활자본임을 말해주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7권1책본·계미중춘본·계미중하본의 경우에는 나무 활자로 제작된 목활자본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무자본의 경우에는 목활자본일 가능성이 적으며 현재로는 활자의 재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각각의 근거가 판본별로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활자본의 근거와 해당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의 유무

	활자본의 근거	7권1책본	계미중춘본	계미중하본	무자본	
1	미세한 틈 발견	광곽과 광곽 사이	△	○	○	○
		광곽과 계선 사이	○	○	○	○
		계선과 어미 사이	△	○	○	○
2	2종 이상의 서로 다른 크기 활자 사용	○	○	○	-	
3	균일하지 않은 식자(植字)·조판(組版)	△	△	×	○	
4	인출면을 통한 활자의 재료	나무	나무	나무	미상	

4. 1880년대 판본의 비교

제4장에서는 1880년 경진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7권1책본, 1883년 봄과 여름에 간행된 계미중춘본과 계미중하본, 1888년에 간행된 무자본 등 4종의 판본을 비교하여 각 판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4.1 독특한 형태의 어미 사용

1880년대에 간행된 『동경대전』 4종을 살펴본 결과, 특이한 형태의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7권1책본의 경우에는 상·중·하 3개의 어미를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 판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의 어미이다. 원본(元本)을 번각한 조선 초기 판본에서 3개의 어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¹²⁾ 『동경대전』 7권1책본의 어미와 같이 2엽화문어미가 있거나,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관된 3개의 어미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다. 특히 상중하 가운데 중간 어미는 양쪽 계선과 연결된 일체형으로 보이며, 상하에 위치한 어미는 활자와 같이 식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중간 어미 위로는 서명 ‘동경대전(東經大全)’과 해당 권수를 ‘권지○(卷之○)’으로 넣었고, 중간 어미 아래에는 해당 권의 장수(張數)를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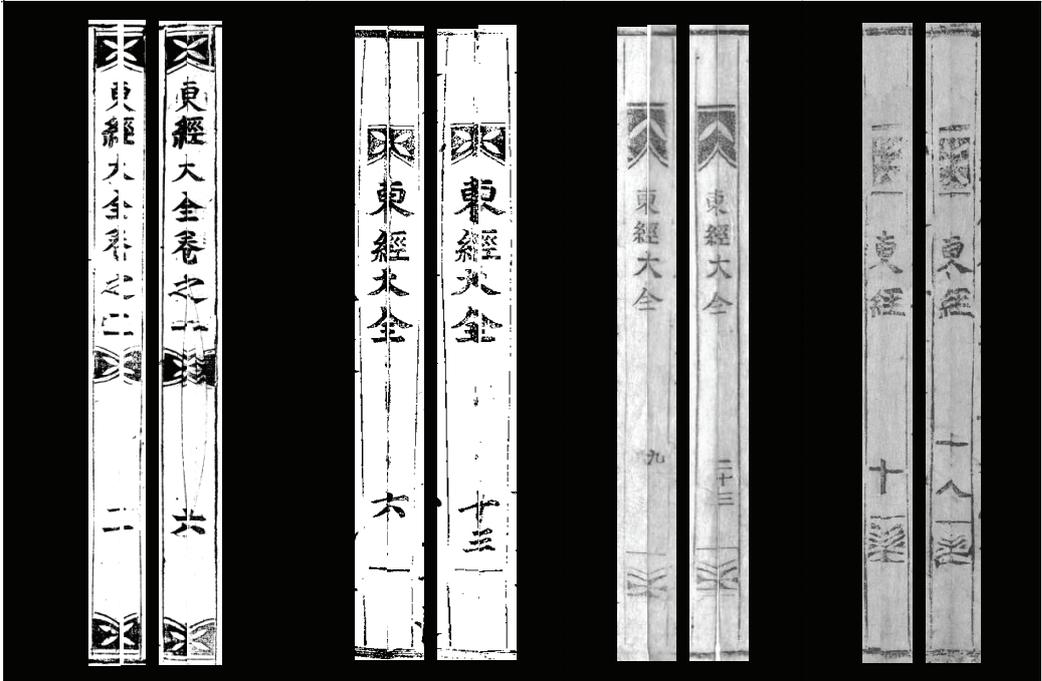
계미중춘본은 위쪽에만 이엽화문어미(二葉花紋魚尾)가 있는 일반적 형태이다. 계미중하본과 무자본은 상하 양쪽에 화문어미가 있는 형태이지만 위·아래 서로 다른 화문 형태의 어미를 사용하였다. 계미중하본의 경우에는 위쪽에 1엽화문, 아래쪽에 2엽화문이고, 무자본의 경우에는 위쪽에 3엽화문, 아래쪽에 4엽화문의 어미를 사용하였다. 위아래 꽃잎의 개수가 서로 다른 개성 있는 어미를 사용하였다. 판본별 어미의 형태를 기억한다면 본문의 특정 면만 보더라도 어느 판본인지 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2) 조선초 원본 번각본 『大學衍義』의 경우 상중하 3개의 어미가 있다.

표 3. 판본별 어미(魚尾)의 형태

	7권1책본	계미중춘본	계미중하본	무자본
어미(魚尾) 개수	3개(上·中·下)	1개(上)	2개(上·下)	2개(上·下)
화문(花紋) 개수	上 2개, 中 2개, 下 2개	上 2개	上 1개, 下 2개	上 3개, 下 4개

판심 형태



4.2 활자의 식자(植字) 과정에서의 오류

『동경대전』 4종의 판본의 구성 체제와 원문의 증첨(增添)·산삭(刪削), 문자의 동이(同異) 등에 대한 교감학적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윤석산 2010 ; 윤석산 2021a). 이 논문에서는 조판하는 과정에서 활자를 잘못 식자한 사례들을 판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7권1책본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식자상의 오류는 권5 「절구(絶句)」에 수록된 칠언절구이다. 제3구에 나오는 “平生命受千年運” 가운데 ‘命’자와 ‘受’자의 활자가 거꾸로 식자되었다. “平生受命千年運”으로 배열되어야 한문의 문리상 맞는 표현이 될 것이다. 때문에 1883년 계미중춘본부터는 이를 바로 고쳐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4의 ①).

두 번째로 계미중춘본에서 확인되는 식자 상의 오류는 <표 4>의 ②번 사례이다. 오류가 확인되는 위치는 「화결시(和訣詩)」의 내용 가운데 “波不興沙十里”와 “路遊閒談兮”가 이어지는 부분이다. 계미중춘본에서는 앞 장에서 “波不興沙十里路”로 끝나 다음 장에 ‘遊’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路遊’로 시작되면서 ‘路’ 자가 2번 중복되어 식자되는 오류가 생겨났다.

표 4. 활자 식자 상에서의 오류 사례
(A: 7권1책본, B: 계미중춘본, C: 계미중하본, D: 무자본)

① 7권1책본				② 계미중춘본			
A 	B 	C 	D 	A 	B 	C 	D
③ 계미중하본				④ 계미중하본			
A 	B 	C 	D 	A 	B 	C 	D
⑤ 계미중하본				⑥ 무자본			
A 	B 	C 	D 	A 	B 	C 	D

세 번째로 계미중하본의 식자상 오류는 <표 4>의 ③~⑤번의 사례이며, 오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판본에 해당된다. ③번의 경우는 「수덕문(修德文)」의 첫 번째 등장하는 문구인 “元亨利貞 天道之常” 부분이며, 원형이정(元亨利貞)의 ‘형(亨)’ 자를 ‘향(享)’ 자로 잘못 식자하였다. ④번의 경우에는 「제자주문(弟子呪文)」에 수록된 ‘降靈呪文’ 부분이다. 계미중하본의 「선생주문(先生呪文)

」에서는 ‘降靈呪文’으로 정확하게 식자하였으나, 그다음에 나오는 「제자주문」에서는 ‘文’ 자가 누락 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⑤번의 경우에도 글자가 누락 된 사례이다. 「팔절(八節)」 가운데 후팔절(後八節) 제2구인 “不知德之所在 欲言浩而難言” 부분이다. 재미중하본에서만 ‘知’ 자가 누락 되어 잘못 식자되었다.

네 번째는 무자본의 오류이다. <표 4>의 ⑥번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논학문(論學文)」의 한 구절인 “吾道 今不聞古不聞之事 今不比古不比之法也” 가운데 ‘今不聞古不聞之事’ 8자가 통으로 누락 되었다. ‘今不聞古不聞之事’과 ‘今不比古不比之法’ 문구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 식자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네 번째 판본인 재미중하본과 무자본은 앞서 간행된 2종의 판본(7권1책본과 재미중춘본)의 누락(漏闕)된 문장을 계속 수정하고 추가하여 간행한 판본이기에 더 많은 내용을 추가하여 간행되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자의 조판 과정에서는 앞선 2종의 판본보다 식자상의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상이한 글씨체의 활자 사용

1880년까지의 동학 활동 역사를 기록한 『도원기서』에 의하면, 1879년 11월에 수단소(修單所)를 설치할 때와 1880년 5월 각판소(刻板所)를 설치할 때 각 역할을 담당할 유사(有司)들을 분정(分定)하였다. 이때 서유사(書有司)로 전세인(全世仁)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윤석산의 연구(2021c)에서는 『도원기서』와 『수운대선생사적안(水雲大先生事跡案)』의 글씨가 모두 전세인이 썼으며, 『동경대전』 각판소의 서유사가 전세인이라는 점에서 1880년에 간행된 경진본의 판각 글씨도 전세인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¹³⁾ 또한 1880년부터 1888년까지 네 번의 간행이 있었다면 동일한 활자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활자의 형태와 크기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5. 판본별 활자의 자형 비교

	留	更	正	豈	形	回	然	申	神	宜	恒
7권1책본	雷	更	正	豈	形	回	然	申	神	宜	恒
재미중춘본	留	更	正	豈	形	回	然	申	神	宜	恒
재미중하본	留	更	正	豈	形	回	然	申	神	宜	恒
무자본	留	更	正	豈	形	回	然	申	神	宜	恒

13) 7권1책본의 활자 글씨와 『도원기서』, 『수운대선생사적안』의 글씨를 비교하여 글씨체가 일치한다면 7권1책본이 1880년에 간행된 경진본으로 판명될 수 있기 때문에 글씨체 비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윤석산, 2021c, 397.)

7권1책본의 활자체를 분석한 결과, 이 판본의 글씨는 이후 간행된 3개의 판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른 판본과 원문을 대조해 보면 문자사용에 있어 다른 판본보다 고자(古字)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¹⁴⁾ 활자 자형(字形)을 살펴보면 이형자(異形字) 사용이 두드러진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留, 更, 申, 宜, 恒 등의 경우에는 정자와는 형태가 다른 이형자를 사용하였다. 正, 豈, 回, 形, 神 자의 경우에는 정자와 유사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다른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正 자는 네 번째 획과 다섯 번째 획이 연결되어 ‘ㄴ’ 자처럼 연결되었고, 豈 자의 경우에는 윗부분의 山 자를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글자를 사용하였다. 回 자는 冂 자 안에 己 자를 넣은 형태의 이형자이다. 形 자는 왼쪽 彳(견)자 부분을 干 자의 반복 형태인 彳자의 형태로 사용하였고, 神 자는 오른쪽의 申 자를 臼 자를 써서 쓴 것이다. 이러한 이형자의 사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미중춘본, 재미중하본, 무자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동경대전』 4종의 활자 크기를 비교해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작은 활자를 사용한 경우는 재미중하본(약 1.0cm)이며, 그다음은 무자본(약 1.4cm)이다. 7권1책본과 재미중춘본의 글씨 크기는 거의 유사하지만, 재미중춘본이 가장 큰 글씨체의 활자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각 판본마다 서로 다른 크기와 형태의 목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판본별 활자의 평균 길이

	7권1책본	재미중춘본	재미중하본	무자본
활자의 평균 길이	1.5cm	1.6cm	1.0cm	1.4cm

* 활자의 평균 길이는 광곽의 세로 길이를 글자수로 나눈 값임. 실제 활자 길이와 다를 수 있음. 정확하게는 한 개의 활자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의 길이로 해석할 수 있음

상주 동학교당에는 교당에서 사용하였던 목활자 56함(한자 대자함 22개, 한자 소자함 10개, 한글 대자함 12개, 한글 소자함 5개, 공함 7개)과 인쇄용구 30종 102점 실물이 전래되고 있다. 또한 교당의 목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한 목활자본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상주 동학교당은 1922년 설립 허가 이전부터 간행사업을 추진하였고, 1909년·1910년에 간행된 『교정경(敎正經)』 이외에도 『도정경(道正經)』, 『도수경(道修經)』 등이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¹⁵⁾ 상주 동학교당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각 접 중에서는 동학의 교리를 전파할 수 있는 경전과 단편 인쇄물 등을 즉각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 목활자와 인쇄 도구, 인쇄 기술 등을 구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분석 대상인 4종의 판본에 사용된 활자들은 간행 주체인 해당 동학교당에서 보유한 목활자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판본 별로 판형, 활자 크기와 자형 등이 서로 다른 판본으로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14) 間字 대신 間자를 사용하거나 詠→咏, 溪→谿, 却→卻, 灑→洒 등과 같이 고자(古字) 사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윤석산, 2021c, 391.)

15) 배현숙 (2016). 상주 동학교당 전존 인쇄도구. 서지학연구, 66. 8.

4.4 판형과 판수의 변화

1880년대에 간행된 4종의 판본을 판형과 전체 판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4종의 판종 가운데 판형의 크기(광곽 크기 기준)가 가장 넓은 판본은 7권1책본이다. 나머지 3개의 판형에 비해 월등히 큰 판형을 가졌다. 그다음은 계미중춘본과 무자본의 순이지만 2개의 판본은 비슷한 편이며, 가장 작은 판형은 계미중하본이다. 계미중하본의 판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7권1책본의 광곽 면적은 계미중하본보다 150% 넓은 형태이다. 반면 반곽(광곽의 절반)에 수록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는 계미중하본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무자본, 7권1책본, 계미중춘본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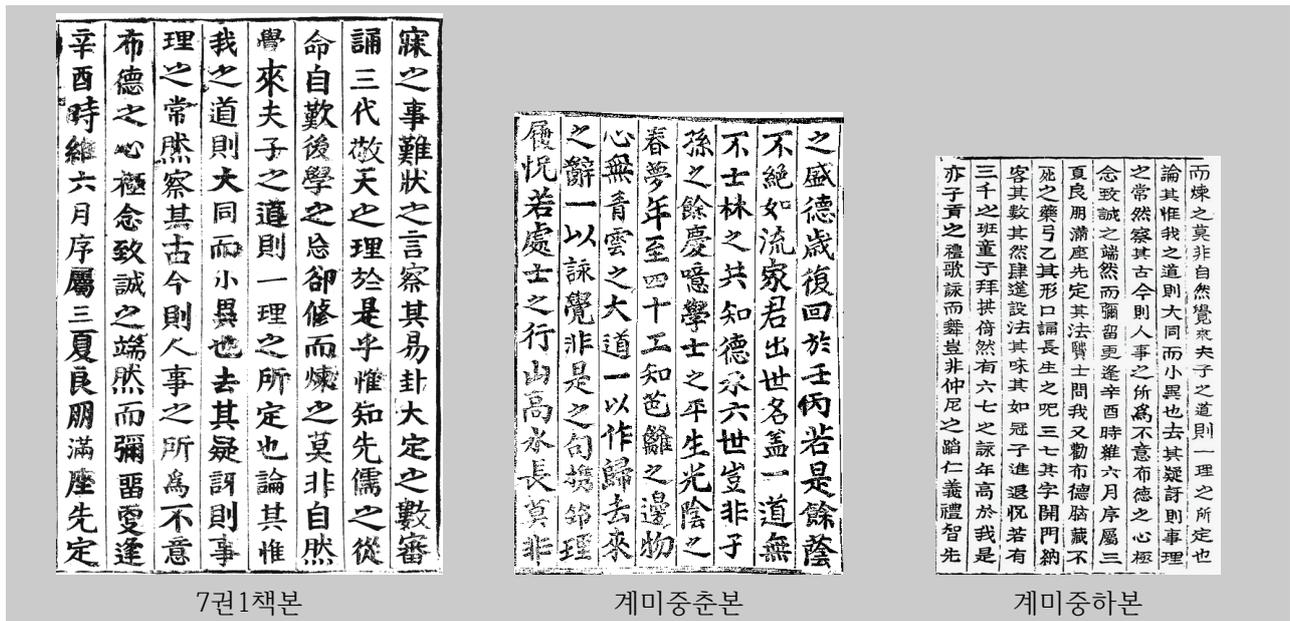


그림 12. 7권1책본·계미중춘본·계미중하본의 판형과 글씨 크기 비교 (같은 비율로 축소한 것임)

표 7. 판본 4종의 판형 비교

	7권1책본	계미중춘본	계미중하본	무자본
전체 판수	30판	38판	26판	29판
반곽의 크기	24.5×17.5cm	21.5×15.4cm	20.2×13.7cm	21.2×15.0cm
행자수	8행 16자	8행 13자	9행 20자	9행 15자
반엽 수록 가능 글자수	128자	104자	180자	135자
활자의 평균 길이	1.5cm	1.6cm	1.0cm	1.4cm

* 7권1책본, 계미중하본, 무자본의 반곽 크기는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크기를 기준으로 하였음. 계미중춘본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제공받은 크기를 기준으로 하였음.

4종의 판본 가운데 가장 크고 시원한 판형은 7권1책본이다. 책의 크기도 크고 판형과 글자 크기도 시원하며 인쇄 상태도 좋아 품위를 갖춘 경전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나머지 판본을 비교해

보면, 계미중하본의 판형이 가장 작지만, 가장 많은 글자 수(180자)를 담을 수 있으므로 전체 페이지 수(판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판형이다. 실제 계미중하본은 4종의 판본 가운데 가장 적은 판수인 26판을 차지하여 책의 두께가 가장 얇다. 반면 계미중춘본은 중간 크기의 판형이지만 하나의 인판에 담을 수 있는 글자 수(104개)가 많지 않아 전체 38판으로 인쇄되었다. 계미중하본에 비해 50% 정도의 많은 지면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표 7 참조). 또한 활자 크기 측면에서도 계미중춘본의 글씨가 계미중하본보다 1.5배로 크게 조판되어 경전을 읽는 이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판본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계미중춘본과 계미중하본이 3개월의 차이를 두고 간행된 것에는 그 간행 목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글자와 판형의 크기 비교로만 보자면, 계미중춘본이 활자가 크고 좀 더 두꺼운 고급형 버전이었다면, 계미중하본은 글자 크기가 작고 책의 두께가 얇은 보급형 버전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5. 7권1책본의 특징

5.1 제5·10·12판의 재조판 현상

표 8. 7권1책본 제5판의 재조판의 흔적

조판1	조판2
<p>독립기념관본</p>	<p>장서각본</p>
<p>개인소장본</p>	<p>국립중앙도서관본</p>
<p>※ 동일 활자·조판 : 독립기념관본=개인소장본</p>	<p>※ 동일 활자·조판 : 장서각본=국립중앙도서관본</p>

목판본의 경우에는 판각된 이후 특정 판으로 여러 부수를 인출하면 해당 지면의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활자본의 경우에도 각 인판에 활자를 식자한 이후 해당 인판으로 여러 차례 인출하더라도 해당 지면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활자본의 경우 조판한 인판을 해판한 이후라도 인출한 지면에 오류가 있거나 인쇄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정 지면의 부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필요한 해당 인판을 재조판하여 다시 인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7권1책본에서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7권1책본은 독립기념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장서각본, 개인소장본 등 4개의 동일한 판본이 있어 재조판 여부를 비교할 수 있다. 동일 판본을 비교한 결과, 전체 30판 가운데 제5판, 제10판, 제12판 등 3개의 판에서 재조판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활자의 형태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3개의 판 가운데 제5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활자를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으며,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활자에 해당된다. <표 9>는 해당 활자를 따로 뽑아 비교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기념관본과 개인소장본의 활자 형태와 조판 형태가 동일하며(조판①),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장서각본이 동일한 형태(조판②)이다. 전체 30판 가운데 어떤 이유로 인해 3판의 경우에만 재조판이 있었는지, 어느 것이 먼저 조판되고 나중에 재조판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표 9. 제5판에서 글씨체가 다른 활자를 사용한 사례

		A-06	B-13	B-14	B-15	C-03	D-15	H-04	H-06	K-02	L-04	L-15	M-02
조판①	독립기념관본	安	心	非	出	不	出	者	故	其	之	之	爲
	개인소장본	安	心	非	出	不	出	者	故	其	之	之	爲
조판②	장서각본	安	心	非	出	不	出	者	故	其	之	之	爲
	국립중앙도서관본	安	心	非	出	不	出	者	改	其	之	之	爲

※ A·B·C는 세로 행의 순서를, 01·02·03은 해당 행의 글자의 배열 순서를 표기한 것임

앞서 살펴본 제5판을 포함하여 3판의 재조판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12판의 경우에는 제5판과 마찬가지로 독립기념관본과 개인소장본이, 장서각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이 동일한 활자의 조판이었다. 제10판의 경우에는 독립기념관본·개인소장본·장서각본이 동일한 형태이고, 국립중앙도서관본이 이들과 다른 형태의 조판임이 확인되었다.

표 10. 7권1책본 재조판된 판차 및 동일 형태의 조판

	독립기념관본	개인소장본	장서각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제5판				
제10판				
제12판				

5.2 활자 테두리가 동시에 인쇄되는 현상

한 글자씩 나무에 새긴 것이 목활자이고, 목활자를 조판하여 인쇄한 책이 목활자본이다. 현재 『동경대전』은 인쇄한 서책만 남아있고, 당시 사용하였던 목활자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용하였던 목활자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그림 17>과 같이 나무 사용량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활자 높이를 최대한 낮추었고, 활자의 테두리 공간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글자 모양과 유사한 형태로 원형, 삼각형, 마름모형, 오각형, 육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림 25. 조선 후기 지방 목활자의 사례

『동경대전』 판본 가운데 7권1책본에는 유독 활자 테두리가 선명하게 인쇄된 사례가 많아 활자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8>은 활자 테두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각 글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年’ ‘外’ 자의 경우에는 동그란 원형 테두리를 볼 수 있고, ‘千’ ‘兮’ 자의 경우에는 마름모꼴, ‘力’ ‘文’ 자의 경우에는 직사각형, ‘人’ 자의 경우에는 삼각형 형태의 테두리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활자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그림 26. 7권1책본의 활자 테두리가 인쇄된 흔적

하지만 이는 7권1책본에서 두드러진 반면, 계미중춘본에서는 매우 드물게 확인되고 계미중하본과 무자본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활자 테두리가 보이게 되면 인쇄면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권1책본 이후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미중춘본부터는 활자의 높이(두께)가 점점 높아지고 활자의 글자를 새길 때 측면의 사선 각도가 가파르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5.3 식자 공간 부족으로 인한 활자 부딪힘 현상

판본별로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 7권1책본 16글자, 계미중춘본 13글자, 계미중하본 20글자이다. 무자본은 15글자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16글자가 나오는 사례도 있다. 활자의 크기가 크면 한 행에 해당 글자 수를 모두 조판하기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7권1책본, 계미중춘본, 계미중하본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금 작은 크기의 소자(小字) 활자를 사용하여 한 행의 글자 수를 균일하게 맞추었다. 소자 활자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권1책본의 경우에는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수를 맞추기에 공간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활자를 무리하게 조판할 경우 활자가 서로 부딪히거나 겹치기도 하고, 억지로 끼우는 과정에서 활자의 한쪽 바닥이 뜨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활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 특정 활자의 일부가 인쇄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7권1책본에서 볼 수 있는 사례로는 <표 11>과 같다.

표 11. 식자 공간 부족으로 인한 활자 부딪힘 현상 (7권1책본)

		국립중앙도서관본	독립기념관본	장서각본	개인소장본
① 제13판 D-01·02	覺來				
② 제14판 C-13·14	禁臥				
③ 제22판 I-02·03	毫磨				
④ 제26판 E-01·02	會中				

〈표 11〉의 ①번 사례는 공간이 부족함에도 한 행에 16자를 모두 식자하기 위해 활자를 무리하게 끼우는 과정에서 ‘覺’자와 ‘來’자 사이의 공간이 부족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본의 경우에는 ‘覺’자의 아랫부분이 거의 인쇄되지 않았고, 독립기념관본과 개인소장본의 경우에는 ‘來’자의 머리 부분이 희미하게 인쇄되었다. ②번의 사례에서는 ‘禁’자와 ‘馱’자 사이 공간이 부족하여 두 활자의 높이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본, 독립기념관본, 개인소장본에서 ‘馱’자의 윗부분이 인쇄되지 않았다. ③번의 사례에서는 ‘磨’자가 ‘毫’의 아랫부분과 무리하게 부딪침으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 독립기념관본, 개인소장본에서 ‘毫’자의 아랫부분이 선명하게 인쇄되지 않았다. ④번의 경우에도 ‘會’자와 ‘中’자 활자가 딱딱하게 끼워져 ‘會’자의 아랫부분이 희미하게 인쇄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활자 두께가 얇고 활자를 무리하게 끼웠을 때 깨지지 않는 소재의 목활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네모반듯한 금속활자나 깨질 수 있는 도활자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상이다.

7.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1880년대 간행된 『동경대전』 판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근까지 목판본으로 인식되었던 4종의 판본에 대한 판종을 살펴보고, 형태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목활자본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활자 조판으로 인해 생겨나는 미세한 틈을 확인함으로써 조립 방식의 활자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태가 다른 2종 이상의 활자체가 사용되었다는 점, 글자 배열이 균일하지 않은 식자와 조판으로 인해 세로와 가로로 글자 배열이 맞지 않거나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 수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 판면의 인쇄 상태와 글자의 형태를 통해 목활자 사용이 확인되었다.

1880년대 『동경대전』 판본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첫째, 판본별로 독특한 형태의 어미를 사용하였다. 특히, 7권1책본의 경우에는 상중하 3개의 어미가 있는 2엽화문어미이고, 계미중하본과 무자본의 경우에는 상어미와 하어미의 화문 개수가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둘째, 식자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7권1책본과 계미중하본보다 계미중하본과 무자본에서 식자 상의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셋째, 4종의 판본 글씨를 비교해 본 결과, 서로 다른 활자를 사용하였다. 이는 각 동학 교당마다 교당이 보유한 목활자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목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판본별로 판형의 크기와 글씨 크기에 차이를 보였다. 판형의 면적은 7권1책본이 가장 넓은 반면, 반쪽에 수록 가능한 최대 글자 수는 계미중하본이 가장 많았다. 활자 크기는 계미중하본이 계미중하본보다 1.5배 크게 조판되어 경전을 읽는 이들의 입장에서 훨씬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판본이었다. 계미중하본이 활자가 크고 두꺼운 고급형 버전이라면, 계미중하본은 글자가 작고 두께가 얇은 보급형 버전으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권1책본 소장처별 소장본(독립기념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장서각본, 개인소장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이들 소장본은 동일한 판본임에도 제5판, 제10판, 제12판 등 3개의 판에서 재조판의 흔적을 확인하였다. 둘째, 활자 테두리가 인쇄되는 현상으로 인해 목활자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셋째, 한 행에 들어가는 활자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활자를 끼움으로 인해 활자가 부딪치거나 겹쳐진 현상이 드러났다.

그동안 동학 연구 분야에서는 『도원기서』 등의 문헌기록에 따라 1880년대 『동경대전』은 목판본이라는 편향된 시각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판본은 모두 활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활자본이라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東經大全』 독립기념관본(이상훈 기증본), 국립중앙도서관본(BA1912-19), 이양재 소장본, 장서각본(C17-2A), 충남역사문화연구원본(김진관 기탁본), 문용익 소장본, 계명대본(295-최제우), 규장각본(299.52-C454d2), 박명순 소장본.

김용옥 (2021). 동경대전1-나는 코리안이다. 서울: 통나무.
윤석산 (2000). 초기동학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윤석산 (2021). 주해 동경대전. 서울: 모시는 사람들.

김진형 (2013). 상주지역 출토 도화자 소개. 상주문화, 23. 363-374.
배현숙 (2016). 상주 동학교당 전존 인쇄도구. 서지학연구, 66. 5-43.
손계영 (2022). 1880년대 간행 『동경대전』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91. 171-202.
염정섭 (2019). 1880년 인쇄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175-228.
옥영정 (2010). 호서지방 목활자본의 현황과 목활자 유형 연구. 서지학보, 36. 119-152.
윤석산 (2010).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201-230.
윤석산 (2021a). 『동경대전』 간행의 서지적 고찰. 주해 동경대전. 서울: 모시는 사람들. 401-417.
윤석산 (2021b). 『동경대전』 간행과 『도원기서』 편찬의 의의. 주해 동경대전. 서울: 모시는 사람들. 453-478.
윤석산 (2021c). 새로 발견된 『동경대전』에 관하여. 주해 동경대전. 서울: 모시는 사람들. 373-400.

토론문

동경대전 인제 경진판의 판본 분석

| 토론 | 전 경 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손계영 교수의 「1880년대 『동경대전』의 판종과 특징」에 대한 토론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동학 사상이나 동학사 연구의 기본서 중의 하나인 『동경대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서 토론자가 먼저 떠올렸던 것은 학제간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학계의 관행이었다. 서지학을 조금만 공부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목판본과 목활자본에 대한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한 채 50여 년 이상 『동경대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허약함을 그대로 노정해 놓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도원기서』에 목판본 출간을 의미하는 ‘침재(鍍梓)’, ‘기궐(劓劓)’, ‘간판(刊板)’, ‘각판(刻板)’ 등과 같은 용어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동경대전』이 목판본으로 인출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존하는 1880년대의 『동경대전』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목활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판본’으로 인식해 온 것은 연구자들이 인접 학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데 얼마나 소홀했느냐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손계영 교수님은 1880년대 간행된 4종의 『동경대전』을 자세히 분석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첫째, 1880년대 간행된 4종의 『동경대전』이 모두 목활자본임을 확인했으며 그에 따라 ‘판(板)’이라 하지 말고 ‘본(本)’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둘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기탁된 “계미중춘 북접중간(癸未仲春 北接重刊)”이 두 번째로 인출된 『동경대전』이며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계미중하(癸未仲夏) 경주개간(慶州開刊)”은 세 번째로 인출된 『동경대전』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무자계춘 북접중간(戊子季春 北接重刊)”은 네 번째로 인출된 『동경대전』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동경대전』의 출간 연대별 계통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셋째, 1880년대에 간행된 『동경대전』이 인쇄 과정에서 부족한 활자를 소자로 활용하고 글자 배열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 등을 통해 활자본 인쇄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 점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무자본이 목활자를 사용한 인쇄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한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어미의 형태의 분석, 활자 식자 과정의 오류, 활자의 자형 비교, 판형과 파수의 변화 등을 통해 4종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현존하는 7권1책본(인제경진초판본) 4권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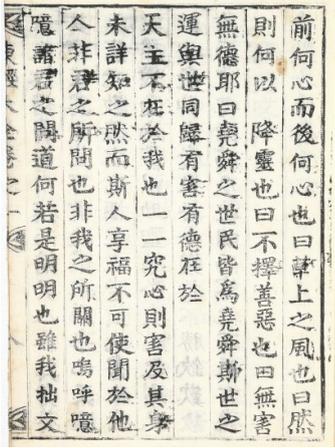
하여 재조판 여부를 규명하고 활자 테두리가 동시에 인쇄되는 상황과 식자 공간 부족으로 활자 부딪힘 현상 등을 밝힌 것은 매우 정치한 분석이며 커다란 연구 성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토론을 해보려고 한다. 먼저 용어의 문제이다. 『동경대전』 초간본이 활자본이라고 하면서도 논문에서는 여러 곳에서 ‘판본’이라고 하고 있다. 예컨대 발표자는 2쪽에서 “1880년대 간행된 『동경대전』 판본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1880년대 판본 4종에 대한 판종을 분석하며… 1880년대 판본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판본이라면 목판본을 지칭하며 인본이라면 활자본을 가리키지 않나 생각한다. 『동경대전』 초간본에 대한 그간의 오해가 『도원기서』에서 활자인쇄를 추진하면서 ‘침재(鋟梓)’, ‘기궐(剗刷)’, ‘간판(刊板)’, ‘각판(刻板)’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목판본과 목활자본을 구분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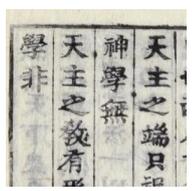
나머지 하나는 손 교수님께서 지적한 ‘식자 공간 부족으로 활자 부딪힘 현상’은 ‘활자의 높낮이나 기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교수님께서 제시한 장서각본을 살펴보면 글자의 자형이 모두 뚜렷하고 온전하게 인쇄가 되었는데 바로 이 점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판단된다. 즉 활자 간의 높낮이나 기울기 때문에 조금 더 성의껏 두드리 인쇄를 하면 장서각본처럼 글자의 자형이 온전하게 인쇄되고 성의 없이 두드리면 국립중앙도서관본이나 독립기념관본처럼 글자의 한쪽이 잘 인쇄되지 않아 자형이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끝으로 앞으로 더 규명되었으면 하는 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가름하려고 한다. 먼저 『동경대전』을 인쇄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그 활자로 인출한 다른 책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경대전』 초간본에는 손계영 교수가 규명했듯이 특이한 자형의 활자(留, 更, 正, 豈, 形, 回, 然, 申, 神, 宜, 恒 등)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추적하면 이 활자를 활용하여 인출한 다른 서적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동경대전』을 인쇄한 사람들이 어떠한 활동을 한 사람들인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인쇄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동경대전』을 인출을 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 하나가 인쇄 상태가 매우 고르지 못하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이양재 소장본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현존하는 모든 초간본과 1880년대에 간행되었던 모든 『동경대전』을 세밀히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1-6B	1-8A

게다가 인쇄가 되지 않은 글자도 있으며 희미하게 인쇄된 부분은 사용자가 후에 가필한 흔적 조차 있다.

			
이양재본	장서각본	이양재본 1-4B	이양재본 2-4A

따라서 인쇄 여건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다급하게 인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행에 이용된 종이 또한 상태가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경대전』이 처음 간행된 후 독자가 이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읽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군다나 『동경대전』과 같은 종교의 경전은 그냥 소장하지 않고 이를 반복적으로 살펴서 암송하는 대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장하고 또 얼마만큼 많이 읽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無’ 자가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맥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자 또는 독자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경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제발표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 발표 | 엄 찬 호 (강원대 강사)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엄찬호(강원대학교 강사)

1. 머리말

동학은 조선말 근대 이행기에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을 기치로 내건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종교로 ‘동학’이란 교조 최제우가 서학(西學)의 도래에 대항하여 동쪽 나라인 우리나라의 도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는 천지인 합일 사상과 인간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부패한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다. 곧 동학의 사상은 신분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는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는 존재로 사람은 모두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근대의 개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요소인 민족의 의미를 서구와 일본에 대한 적대감 표출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제우는 보국안민을 통해 무극대도의 후천개벽 세상으로의 이행을 추구함으로써 근대 사회변혁을 이루고자 하였다.¹⁾

그러므로 동학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담긴 선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한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사적지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학은 최제우의 순도 이후 관의 탄압을 피해 강원도로 숨어들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더구나 1880년 경전의 간행은 동학이 종교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동학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전 간행을 통하여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 박세준, 수운 최제우의 근대성, 『한국학논집』 제73집, 2018, 103쪽.

최초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하게 됨으로써 동학은 하나의 가르침, 즉 한 종교로서 더욱 분명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학교도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동학교리의 체계화를 촉진한 계기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동학의 저력은 『동경대전』 간행을 기반으로 한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 간행을 한 역사적 사실은 당시 동학이 한 교단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측면과 아울러, 한국 근대사의 한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제군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는 2016년 강원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었다. 강원도 인제지역은 최시형의 주요 피신 지역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후 약 1년간 피신하였던 성황거리, 느릅정이, 최제우의 장자 세정이 피신하였다가 양양 관군에게 체포되었던 기린면 귀둔리 등 천도교의 성지이며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동학의 사적지가 분포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인제지역에서 동학 관련 문화재를 발굴 보존 계승하는 작업은 동학의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재를 과거 속에 고정하고 삶과 분리된 활용을 이어가는 것은 그 의미와 가치를 한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해석과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문화재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할 수 있다. 공유란 물리적 상호 교류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억과 정신, 분위기 등 추상적인 형태의 감정 속에서도 공유가 이루어진다. 문화재가 삶과 동떨어진 대상이 아닌 가까운 대상으로서 인식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물리적인 장소의 공유뿐만 아니라 생생한 감정적 공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경대전』 간행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동경대전 간행터의 비정

인제에서는 모두 세 번에 걸쳐 경전의 간행이 있었다. 그 첫 번째가 1880년 김현수가에서 간행된 초간본인 경진초판이고, 두 번째는 1888년 김병내(金秉孿)가에서 간행된 무자계춘판, 세 번째가 1890년 이명수가에서 간행된 경인판 『성경대전(聖經大全)』이다.²⁾

이 중 1880년에 간행된 경진판 『동경대전』은 최초의 동학 경전으로 동학이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최시형은 관의 추적에 쫓기면서 강원도·경상도·충청도 등 산간 지역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고초 속에서도 오직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2) 裴賢淑, 東學教 經典의 刊行과 書誌的 特徵-『東經大全』原文의 校勘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제94집, 2024, 290쪽.

는 일념으로 경전을 간행하였다.

최시형이 고난 속에서도 경전 제판을 착수하게 된 이유는 최제우 사후 최제우에게 직접적으로 도통(道統)을 전수받은 수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행세하고 다니면서, 스스로 도통을 주장하는 이들과 해월의 도통을 정통으로 여기는 측의 대립으로 인하여 동학의 정통성에 위기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최제우의 부인을 비롯한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 이러한 정통성을 객관적으로 방증할 수 있는 기준이 점점 더 희미해져서 최시형은 더욱더 도통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참됨’을 바로잡은 정경(正經)에 대한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곧 동학의 내부적인 필요가 관의 극심한 탄압이라는 외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전을 발간하여 정경을 확립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최시형은 이단이 왜곡하고 와전된 경전이 통용되는 것을 차단하며 권위 있는 정통 경전을 확립하여 교단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³⁾

최시형은 최제우의 저작을 간행하기 위하여 1879년 11월 정선 방시학(房時學)의 집에 수단소(修單所)를 두고 도포덕주(道布德主)를 위시하여 여러 소관을 분정하였다. 이때 서적의 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사로 수정유사(修正有司)·교정유사(校正有司)·서유사(書有司)·필유사(筆有司)·지유사(紙有司)·책자유사(冊字有司)를 정하였다.⁴⁾ 이때 수단소를 마련한 것은 문집에 들어갈 문장을 선정하고, 이를 교정하면서 최종적인 정고본을 마련한 다음 간행을 위한 정서본을 필사하는 과정이었다.⁵⁾ 초간본 『동경대전』은 최시형을 비롯한 최제우의 제자들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논의와 교감을 거쳐 판각한 경전임을 말하는 것이다.

최시형은 『동경대전』을 이미 1879년부터 침재하기 시작했고, 여러 접과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판각소(板刻所)를 인제 갑둔리 김현수의 집에 두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인제 갑둔리에 1880년 5월 초9일 각판소를 설치하고, 11일 개간을 시작하여 6월 14일 인제·정선·청송·상주에서 보내온 비용으로 『동경대전』 100부를 간행하였다.⁶⁾ 인제 경진판 『동경대전』 간행 장소를 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도원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아, 선생의 문집(文集) 침재(鎔梓)를 경영한 지 한 해가 지나 이미 오래구나! 지금 경진년(庚辰年)에 나와 강시원, 전시황 및 여러 사람이 장차 간판(刊板)을 경영하려고 발론(發論)을 하니 각 접중(接中)이 다행히도 나의 의론과 같아 각소(刻所)를 인제(麟蹄) 갑둔리(甲遁里)에 정하게 되었다.⁷⁾

3) 尹錫山, 『東經大全』, 동학사, 1996, 323쪽 ; 이호영, 동경대전의 正經과 문헌비평, 『동학학보』 제11권 1호, 2007, 211~212쪽.

4)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 壹, 亞細亞文化社, 1979, 275-276쪽.

5) 염정섭, 1880년 인제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2019, 202~203쪽.

6) 「崔先生文集道源記書」, 東學思想資料集 壹, 亞細亞文化社, 1979, 277~280쪽.

7) 상동

이처럼 『동경대전』 간행 장소는 인제 갑둔리 김현수가로 알려져 각종 동학 관련 기록과 증언 내용을 토대로 『동경대전』 간행의 업무를 보았던 각판소를 설치한 곳은 현 갑둔리 375번지에 있던 김현수 집터이고, 경전 간행 작업을 한 공방 장소로는 현 갑둔리 351번지 김현수의 사촌들이 살고 있던 집터로 비정하였다.

각판소터에 대한 증언은 갑둔리에 살던 김종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갑둔리를 떠나기 전 김현수 일명 김현규가 살던 집에 살았었는데, 그곳이 갑둔리 375번지로 현재 각판소터로 비정되어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대일항쟁기 지적도를 통해 볼 때 소유주가 김정권(金正權)으로 되어있는데, 김정권은 김현수의 아들인 김영배(金榮培)의 자(字)이다. 지적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대정(大正)’ 연간인 것을 감안하면 김현수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사하고 그의 아들 김영배가 모두 물려받아 그의 소유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곳에 김현수가 살았던 것은 틀림없으므로 『동경대전』의 간행소를 김현수의 집에 설치하였다고 한 곳이 이곳이다.

3. 동경대전 간행터 정비 현황

1) 강원도기념물 지정

(1) 역사문화적 성격

『동경대전』의 간행 장소 즉 간행처를 강원도 인제 갑둔리로 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경대전』 간행 이전에 강원도 인제지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동학 포교 활동, 의식 실행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동학의 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학의 교세와 관련해서, 최제우가 대구에서 사형에 처해진 이후 강원도 지역, 그리고 인제지역에서 동학의 교세가 유지되고 확산되어 나갔다는 점이다.

『해월선생문집(海月先生文集)』에 따르면 최시형은 1880년 2월 하순 이후에 인제지역에 머물렀다. 그때 인제 김연석의 집에서 강시원, 김연국(金演局)과 더불어 대인등행사(大引燈行祀)를 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이어져서 6월에 이르러 최시형은 “강시원, 전시봉(全時鳳), 김시명(金時明)과 더불어 김현수의 집으로 가서 ‘대전’ 100여 권을 간출하여 각처에 반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1880년 이전 동학의 사정은 강원도 지역에서 동학의 교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최제우의 문집을 간행하는 사업이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최시형은 포덕에 경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최제우가 설법할 당시에 그는 그의 저술들을 제자들에게 공부하게 하여 도의 깨우침을 얻게 하였다. 따라서 최제우 순도 이후 최시형 역시 도를 전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여러 곳에서 도가 전하여지기 위해서는 경전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동학의 치제 형식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행하기 위해서도 경전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곧 1880년 인제에서의 『동경대전』 간행을 통해서 동학의 종교적 교리가 점차 완성되어 갔다는 점이다.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할 때 동학의 교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동학의 주요 문건들이 포교 과정에서 집필되었고 이때 주요한 교리들이 정리되고 완성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사상은 포교라는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동학의 교리 완성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이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의 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제우의 가르침이 ‘경전’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조 사회를 유지해 왔던 유학, 또는 당시 새로운 세력으로 들어오고 있던 서학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으로서 동학을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최시형이 이곳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동학이 다른 가르침과 변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가르침을 지닌 종단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한 사건이었다.

이렇듯 이곳 인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동학의 교단은 이후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여 마침내는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는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즉 강원도 인제는 어느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저력을 키울 수 있었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지역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동경대전』 간행이 이루어진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의 각판소는 바로 동학의 교리 정리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역사문화적 의의를 갖고 있는 공간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인제 『동경대전』 각판소터를 2016년 9월 1일 ‘강원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심의 가결하고, 같은 해 12월 2일 도 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 고시하였다. 곧 『동경대전』 간행터에 해당하는 갑둔리 351·375번지 926㎡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 강원도 문화재 조례 제15·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지정 구역 외곽 경계 300m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8조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고시되었다.

(2) 지리적 특성

『동경대전』이 간행된 인제 갑둔리는 본래 남면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 하여 갑둔리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소치리(所峙里), 김부동(金富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라 하였다. 현재 갑둔리는 199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5년 완공,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조성으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이주 해체되어 주민이 거주하지는 않는다.

이곳 갑둔리에는 1890년 7월 최시형이 양구·간성 등을 순회하고 인제에 이르러 약 1년간 머물렀던 이명수(李明秀)의 집이 있는 성황거리(城隍巨里)가 있고, 고려시대의 석탑인 갑둔리 삼층 석탑과 갑둔리오층석탑,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 이야기가 담겨있는 김부대 왕각이 있다.

갑둔리삼층석탑은 갑둔리오층석탑과 함께 1993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7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갑둔초등학교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다. 지금의 자리에 일부 남아있던 기단과 갑둔초등학교에서 보관하던 탑신부로 1988년 새로이 복원해 놓았는데, 돌의 재질·양식·크기가 달라 각기 다른 석탑의 부재로 보인다. 현재 탑신부는 2층 지붕돌과 3층 몸돌이 없어진 상태이다. 각 층의 몸돌에는 기둥 모양을 새겼다. 지붕돌은 두툼한 처마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 네 귀퉁이에서 힘껏 치켜 올라갔고,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일부 탑재를 잃어버렸지만, 지붕돌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세운 탑으로 보이며 현재 남아있는 탑의 총 높이는 214cm이다.

갑둔리오층석탑 역시 고려시대에 건립된 탑으로 '김부탑'이라고도 한다. 이 탑은 2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리고 있는데, 탑신의 1·2·3층 몸돌과 5층 지붕돌은 탑을 복원할 때 새로 만들어 끼워 넣은 것이다. 아래층 기단에는 안상(眼象)을 조각하고 위층 기단에는 기둥 모양과 글을 새겨 놓았다. 탑신의 각 층 지붕돌은 네 귀퉁이가 살짝 치켜 올라갔으며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위층 기단에 고려 정종 2년(1036)이란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 석탑 및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김부대왕각의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이 이 비각을 '김부대왕각(金傳大王閣)'이라 부르며 해마다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에 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다. 비각 내부에는 '신라경순왕태자김공일지신(新羅敬順王太子金公鑑之神)'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또한 『동경대전』 간행터 인근에는 동학 관련 사적으로 느릅정과 귀둔리(貴屯里)가 있고 홍천군 서석면에는 동학농민혁명군 전적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느릅정은 최시형이 동학농민혁명 이후 1895년 1월 홍천을 거쳐 이곳에 이르러 1년간 피신해 있던 최영서(崔永瑞)의 집이 있던 곳이다. 최시형은 이해 12월까지 느릅정에 있다가 원주 치악산 기슭인 수레촌으로 이주하였는데, 느릅정은 현재 국도 44호선 변에 있는 인제 신남휴게소 부근이다.

귀둔리는 최제우의 큰아들 세정(世貞)이 은신해 지내다가 체포된 곳으로 『도원기서』에는 '세정이 기린(麒麟) 장춘보(張春甫)의 집에 있다가 뜻하지 않게 장졸(將卒)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최세정은 인제 옥에 갇혀있다가 양양 관아로 옮겨져 1872년 장살 당하였다.

인제 갑둔리는 『동경대전』 간행터로서의 역사문화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지만 이외에도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장자 마의태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며, 고려시대의 석탑 2기가 역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곳이다. 또한 인제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홍천군 서석에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동학농민혁명군 위령탑이 건립되어 있어 동학의 사상과 혁명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곳이다.

2) 간행터 정비 현황

인제 경진판 『동경대전』 간행터에 해당하는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소재한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인제군 남면 갑둔리이다.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위치한 지역은 원갑둔리로 불리던 지역으로

44번 국도에서 남면~상남 간 446지방도를 통해 진입하여야 한다. 다물리 마을 동쪽으로 고개를 지나면 원갑둔리에 이르며, 원갑둔리 마을의 북서 방향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소하천 좌·우측으로 약 350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각판소터는 남면에서 상남 방향 446번 지방도인 김부대왕로 우측 편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출입구는 446번 지방도 변에 설치된 군사지역 출입구 차단봉을 통과한 후 좌측으로 약 100m 정도 올라가면 자리하고 있다.

공방터는 남면에서 상남 방향 44번 지방도 좌측 편 소하천 건너편에 위치하며, 현재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군사용 도로와 연결해 있고, 군사용 도로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다.

『동경대전』 간행터는 두 곳으로 나누어 정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경대전』을 간행하기 위한 업무 장소로 각판소를 설치하였던 김현수가 곧 갑둔리 375번지와, 경전 간행을 위한 공방 장소로 사용하던 갑둔리 351번지로 ‘각판소터’와 ‘공방터’란 명칭으로 정비하였다.

두 곳은 모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부지로 조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주 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풀과 나무가 우거진 상태였다. 그리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잡목을 제거하고 관람로 확보 및 정비, 수로 및 배수로 정비, 가시성 있는 도로 표지판과 안내판 등이 설치되었다.

『동경대전』 간행터에 대한 정비는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인바 단계별 정비계획에 따르면 1단계 작업은 주변 수목 제거, 공방터 부근 파손 건축물 철거, 공방터 복토 및 평탄 작업, 각판소터 평탄 작업, 각판소터 전면부 수목 제거, 배수로 정비, 유적지 및 진입로 목재 펜스 설치, 진입로 및 바닥면 부직포 설치, 임시주차장(가변주차장과 각판소터 앞 버스 주차장) 설치, 주차장 부근 간이 편의시설 설치, 도로 안내판 설치이다.

2단계의 주요 작업은 각판소터와 공방터 앞 소하천 석축 실시, 임시주차장 정비, 도로 안내판 설치(44번 국도, 446번 지방도 진입부, 유적지 부근 3곳), 각판소터-공방터-주차장 조성지 까지 관람객 동선에 목재 데크 설치(목재 교각 2개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3단계의 주요 작업은 주변 수목 제거(도로에서 조망권 확보), 주차장 및 편의시설 최종 정비, 각판소터와 공방터 유적지 내 기념 조형물 설치, 각판소와 공방터 안내설명판 최종 설치, 주차장 부지 내에 종합 안내판 설치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 각판소터 271㎡에는 진입로 주변과 각판소터 주변의 수목을 제거한 뒤 목재 펜스를 설치하고 진입로에 자연석 바닥돌을 깔아 정비하였다. 그리고 각판소터 앞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 각판소터’ 안내표지판과, ‘간행터 종합안내 지도’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도로에서 각판소터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동경대전 간행터 「각판소터」’라는 기둥 안내표지와 ‘각판소터’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공방터 655㎡에는 주변 수목 제거 후 평탄화 작업을 거쳐 건물터를 조성하고 목재 펜스를 설치하였다. 공방터 전면 좌측의 수로는 석축을 쌓아 정비하였고, 진입로 끝부분에 주차장을 조성

하였다. 공방터 앞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 공방터’ 안내표지판과, ‘간행터 종합안내 지도’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진입로 끝부분 공방터 직전에 ‘동경대전 간행터 「공방터」’라는 기둥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에서 공방터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인제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터’ 안내표지판과,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터 종합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동경대전 간행 공방터, 동경대전 간행 각판소터, 갑둔리 보호수(소나무), 최시형 피신처(성황거리)를 안내하고 있다.

『동경대전』 간행터는 현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장 부지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관람은 인제군에 요청하여 국방부의 협조하에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4. 동경대전 간행터 활용 및 활성화 방안

1) 간행터 활용방안

(1)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시설

가. 천도교 성지

동학은 제2대 교주 최시형이 처형된 후 도통이 손병희에게 전수되었다. 손병희는 초기에 정치와 종교 간의 불가분리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시도를 감행했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일제에 의해 역이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걸고 1905년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 새로운 교리와 체제를 확립하였다.

곧 동학은 지금의 천도교로 이어져 천도교에서는 동학 유적지인 수운 대신사 최제우 유적지, 해월신사 최시형 유적지, 의암성사 손병희 유적지, 춘암상사 박인호 유적지, 동학혁명유적지, 3.1운동 유적지를 성지로 지정하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는 해월신사 유적지로 영월 직동, 영월 소밀원, 단양 장현곡(현 영월 김삿갓면 와석리), 인제 귀둔리와 양양관아, 정선 미천리, 정선 적조암, 정선 무은담, 인제 갑둔리, 고성 왕곡마을, 인제 성황거리, 인제 느릅정, 치악산 수레촌, 원주 송골이 성지로 소개되고, 동학혁명유적지로 흥천 동학혁명위령탑이 성지로 소개되었다. 강원도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유적지는 1곳뿐이지만 최시형 유적지는 1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천도교에서는 교계의 주요 행사나 교인 행사에 성지를 순례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인제 갑둔리는 천도교 경전의 첫 간행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그러므로 『동경대전』 간행터를 중심으로 최시형의 피신처와 흥천 동학농민혁명 위령탑을 연계하는 순례 행선지는 천도교의 중요 성지 순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사문화 관광 답사지

최근 우리나라의 관광은 그 참여의 폭이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광이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잉여 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문화를 누리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면서 관광객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며 정년 이후의 여가 활용 방안으로 관광이 많은 사람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국민 의식의 변화는 관광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와 단순히 먹고 즐기는 형태에서 다양한 체험 관광과 역사문화관광 심지어 다크 투어리즘 등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사문화관광은 지금과 다른 시대의 체험이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여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제지역은 설악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 자원과 백담사 등의 역사문화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이다. 현재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이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제 관광에서 주목받는 것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관광, 내린천을 중심으로 한 레프팅, 오토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레저스포츠가 인제 관광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빙어축제, 황태축제, 합강문화제, 만해축전 등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관광객 유치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생태 체험활동 등이 인제의 매력을 더욱 풍성히 만들고 있다.⁸⁾

여기에 한국 근대의 사회변혁 사상이었던 동학의 경전이 간행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와 신라말 비운의 태자 이야기가 담겨있는 김부대왕각, 갑둔리 삼층석탑과 오층석탑은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인제 역사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훈련시설을 연계한 체험 관광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교육시설로서의 활용

가. 각급 학교 한국 근현대사 및 지역사 교육

각 지역의 역사는 발생하는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사는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 되어있으며, 이를 ‘가꾸고 다듬는’ 정성에 의해 본연의 가치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지역사 정리의 노력은 바로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 주목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역사 교육’이다. 물론 교과부에서도 이점에 착안하여 ‘지역화 교육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를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보완하고, 학교 교육이 현장의 자율성·창의성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속 강조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과정의 제정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권한을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중앙 집중식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는 교육

8) 인제군, 동경대전 간행터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2018, 9쪽.

과정에서 '지역사'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교육 여건상 자율적인 노력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회 현상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게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나아가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이농현상에 따라 도·농간에 문화 격차가 커지면서 향토애는 날로 약화하여 가고 있으며, 보편화와 세계화의 구호 속에 지역 고유의 풍습과 전통적인 지역 문화는 무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2세대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게 하려면 지역 교과서를 통한 교육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화로 재구성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게 됨으로써 얻어진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여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고, 그것은 곧 향토 발전의 가장 큰 정신적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의식을 가진 동질성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지역화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이 아닌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지역화 학습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역사적 기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째는 역사 지식의 가르침이다. 둘째는 역사 속으로의 여행 체험이다. 역사문화유적 내의 모든 풍경은 과거의 기억들을 담고 있고, 이곳에서의 교육은 이 동결된 기억들을 생생한 현재로 전환한다. 셋째는 역사적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시설의 파괴, 확장, 전용, 신축, 용도 변경을 통해 변화된 공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⁹⁾

나. 지역민의 지역사 학습

오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기형적 발전, 장기간의 군부 독재정권에 따른 파행적 정치 운영,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의 형성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 지역 의식의 심화, 지역 간 갈등, 지역 패권주의 등은 지역 문제의 구체적 표현들이다. 근래에 지역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역 문제를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교섭이 점차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지역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삶의 터전인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더하여지면서 지역사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다.

9) 최호근, 기념시설을 활용한 역사교육: 독일의 경험에 대한 검토, 『역사와 담론』 제66집, 2013, 413~419쪽.

지역사회는 그 영역에의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인간집단이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지역에 대한 일체감과 지역 의식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지역 이데올로기화하는 예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반드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민의 삶의 방식에 따라 독특한 문화를 지니기도 한다.

지역사는 지역민들의 삶의 결과물이고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은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인 것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이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민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에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지역민들의 공동 참여의식에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공동 관리 보존의식을 형성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시군은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무수한 고민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정체성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지역민들이 함께 느끼고 누렸던 일들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정체성은 상당 부분 지역에 남겨진 역사 사적지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면에서 지역축제는 지역민들의 문화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의 특성과 소재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지역축제는 사실상 오랜 전통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간직하며 역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생성되었고, 사회 변화 과정을 겪으며 변천을 거듭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올바른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지역홍보,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 관광 자원화 문제 등이 복합·추가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의 일체감을 증폭시키고 적극적으로 재결집시키는 요소를 지녀야 한다. 예컨대 지역 정서가 담겨있어야 하고, 지역민 전체가 참여해야 하며, 지역의 역사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행사가 뒷받침된 축제여야 한다. 지역민 모두가 그 지역 고유의 향토성과 정체성을 느끼고 참여하여 일체감을 확인하고 신명을 되찾을 수 있을 때만 지역축제는 비소로 과거·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제지역의 축제에 지역민이 축제의 주체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지역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인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를 통해서도 간행터가 인제에 있는 의미를 주지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근대의 변혁을 이끌었던 핵심 사상의 출발점이 이곳이라는 점을 부각해 지역민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문화콘텐츠의 기본자료가 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콘텐츠는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특수성을 소재로 하여 지역 브랜드화함으로써 21세기적 지역 문화로 환원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동경대전』 간행터와 관련해서도 인제에 동학이 전해지는 과정, 최시형의 피난 생활, 최세정의 피체 사건, 『동경대전』 간행 과정, 간행된 초간본 『동경대전』 그 자체도 문화콘텐츠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토대로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을 포함한 방송콘텐츠나 만화·웹툰·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원형을 이용한 콘텐츠, 뮤지컬·오페라·연극 등의 공연콘텐츠, 전시기획, 테마파크, 축제 등의 공간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제나 강원도로 확대하여 동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하거나 구전 설화의 수집, 동학 관련 지명 정리, 동학농민혁명 참여 후손 구술 채록, 대일항쟁기 인제지역에서 활동했던 천도교 청우당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인제의 동학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

2)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

가.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

유적지의 홍보가 중요하다. 아무리 유적지의 의미가 있고 잘 조성하였다고 하여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방문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하여 지명도를 고양하고 차별성을 널리 알리며, 방문객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유적지를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적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관심을 고하고 외지인에게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홍보는 군이나 문화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는 것이다. 인제군의 경우 군청 홈페이지에 지정 문화유적에 대해서만 국가유산 포털을 링크하여 알리고 있을 뿐이다. 물론 국가유산 포털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지만, 지역의 관련 이야기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금의 시대는 스토리텔링이 여행의 중심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의 문화유적은 지역과의 관련성을 가질 때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유산 포털은 지정문화재만 소개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문화유적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인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여타의 볼거리나 즐길 거리, 먹거리 등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다 나은 자료를 보여주나 문화유적 부분은 소략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는 문화유적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으로 지리적 한계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온라인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가보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관광객의 유치라는 측면

에서는 오히려 역효과의 소지가 있지만, 문화유적을 홍보하고 정신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또 오프라인상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온라인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이동전화 시대이다. 문화유적지도 모바일 앱을 통해 홍보하면 다양한 세대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홍보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외부에 알리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알려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향토애도 향상할 수 있다.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어야 지역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생들 수업부교재 확보

지역사 교육은 입시 위주의 수업과 중앙 중심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역사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즉, 학생이 주변의 친숙한 역사적 소재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역사 학습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고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준다. 또한 지역사 교육은 자기 고장의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지역사 교육에서는 사료학습, 현장체험학습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 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지역성을 강조'한 제5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이 교육과정은 모든 목표와 내용의 지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많은 도와 시·군이 교육부가 편찬한 교과서 외에 인정교과서로서 지역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또한 4학년의 경우 1학기의 한 단원을 '우리 시·도의 생활'로 설정하여 『사회』 및 『사회과 탐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시·도 별로 다르게 편찬하였다.

그러나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였다.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궤를 같이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을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 편성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3단계로 위계화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일반적·공통적·기본적인 교육과정이 각 지역, 각 학교에서 구체화·다양화되도록 지역 학교의 권한과 재량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학년의 『우리들은 1학년』과 4학년 1학기의 『도·광역시의 생활』은 각 도·광역시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만들고 3학년의 『시·군의 생활』은 각 시·군 교육청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3·4학년의 사회과목의 경우 전국 공용의 『사회』 교과서와 각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회과 탐구』(지역 교과서)를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기본 방향을 두고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육성의 자율성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역사 교육도 초·중·고교에서 학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 교과서와 함께 부교재를 발행하여 두 활동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데, 나의 고장(군·구) 수준의 『사회과 탐구』(3) → 시·도 수준의 『사회과 탐구』(4) → 국가의 자연지리·인문지리·환경·경제·문화를 서술한 『사회과 탐구』(5) → 한국의 역사와 정치, 세계와의 관계 등을 탐구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사회과 탐구』(6)가 부교재로 편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자기 지역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알 수 있는 부교재가 3·4학년의 『사회과 탐구』다. 그래서 이들 교과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5·6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차원에서 다양한 수업 교재가 발행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국사』 교과서의 제10단원 마지막에서 '단원 종합 수행 과제'의 목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 알아보기'가 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을 '신설'했음에도 교과서의 편집은 거의 요식행위와 같이 이루어졌다. 인생을 좌우하는 입시가 걸려 있는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발행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2(휴머니스트, 2002)도 마찬가지다.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교육 과정을 지역화하는 현재의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국가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거의 끼워넣기 식으로 지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등 교육과정에서 지역사 교육의 양과 질은 사실상 교사의 관심과 수업 준비 정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지역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역사교사·향토사학자와의 연대와 공동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사 교재는 문화재 중심의 서술, 향토지와 같은 사실 나열의 서술이나 향토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술은 지양하고, 그 지역민을 주체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미지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용·교사용 나아가 지역민을 위한 그리고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교재가 만들어지고, 지역사 서술도 이제는 종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청각교재, 답사 심지어는 지역 행사와 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단순히 보는 역사에서 벗어나 느끼고 참여하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다.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

인제 갑둔리에서의 『동경대전』 초간본 간행은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천도교 경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동학사상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경전 간행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을 계획하여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념사업은 『동경대전』 간행의 의미를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한 사업이다. 기념사업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동학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이해하는 장이 필요하다.

우선 인제지역 동학 유적지와 흥천의 동학농민혁명 위령탑, 고성 왕곡마을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답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주기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역사문화유적 답사는 계획된 프로그램 때문에 운영되지 않으면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아직 생소한 유적지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기 쉽다. 유적지는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방치되어 시설이 쇠락해져 더욱 발길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자주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하다.

그 외 『동경대전』을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 편찬한 소책자의 발행도 필요하고, 『동경대전』 간행을 알리기 위한 주기적인 학술대회도 필요해 보인다. 또 『동경대전』 간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념시설물 설치와 기념품 개발, 체험행사 개발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라. 동학 유적지 정비

유적지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조물이나 무덤, 또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 의미 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적 문화적 공간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유적은 유적의 역사적 의미나 규모, 공간구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적지의 역할은 공급자의 역할에서 이용자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적지도 관람 답사자와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수요와 필요에 근거하여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적지는 방문자가 역사적 현장과 만남을 통해 상상과 경이감을 촉진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체험과 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유적지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¹⁰⁾

현재 강원도 내에서 동학 관련 사적지 중 기념시설로 지정된 곳은 극히 소수이다. 물론 천도교의 성지로 알려진 곳은 해월 최시형 관련 유적지가 14곳, 동학혁명 관련 유적지가 1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2곳뿐이다. 동학에서 강원도의 위상으로 볼 때 강원도의 유적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학 유적지 전반에 대해 정밀

10) 장소연,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93~95쪽.

한 조사 작업을 하고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유적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역의 문화유적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좀 더 많이 자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물론 요즘은 네비게이션에 의존하여 현장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에도 문화유적 안내표지판을 따라 방문하는 관광객도 있다. 지역의 문화유적은 지정 문화유적이든 비지정 문화유적이든 모두 안내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은 자연경관이나 특정 먹거리보다 지역의 뿌리를 알려주는 문화유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외지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일은 이러한 문화유적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동경대전』 간행터 일원은 궁극적으로는 기념공원이 조성되고 『동경대전』 기념관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지만 여타의 동학 관련 기념관은 수운 최제우를 조명한 경주의 동학 기념관이 유일하다. 차제에 한국의 근대 사상을 대표하는 동학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5. 맺음말

이상에서 1880년 최초로 인제 갑둔리에서 간행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간행터 기념시설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간행터 활용방안으로서는 첫째,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경대전』 간행터를 중심으로 최시형의 피신처와 흥천 동학농민혁명 위령탑을 연계하는 순례 행선지는 천도교의 중요 성지 순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근대의 사회변혁 사상이었던 동학의 경전이 간행된 갑둔리의 『동경대전』 간행터는 인제 역사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둘째, 교육시설로서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전 간행터는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얻어진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여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고, 그것은 곧 향토 발전의 가장 큰 정신적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전 간행터는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동 관리 보존의식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지역 문화콘텐츠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경대전』 간행 사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이용하여 재생산된 모든 가공물 그리고 창작물의 수집,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된 결과물들을 창출할 수 있다.

다음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외부에 알리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알려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향토애도 향상할 수 있다. 지역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형성되어야 지역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지역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 수업부교재 확보가 필요하다. 학생용·교사용 나아가 지역민을 위한 그리고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교재에 『동경대전』 간행터를 포함한 지역 역사문화유적이 소개되어야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간행터가 널리 알려져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제 갑둔리에서의 『동경대전』 초간본 간행은 천도교 경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사의 전환점을 이룬 동학사상의 체계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경전 간행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계획하여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

넷째, 동학 유적지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경전 간행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학 유적지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문화유적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東經大全』

『崔先生文集道源記書』

- 김정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6권 1호, 2004.
- 박맹수, 「東經大全」에 대한 基礎的 研究-「東經大全」研究成果를 中心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4호, 1988.
- 박세준, 수운 최제우의 근대성, 『한국학논집』 제73집, 2018.
- 박인규, 규장각 소장본 『東學書』 분석-자료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통해-, 『奎章閣』 58, 2021.
- 裴賢淑, 東學教 經典의 刊行과 書誌的 特徵-『東經大全』 原文의 校勘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제94집, 2024.
- 성주현, 강원도의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역사와교육』 제20집, 2015.
- 손계영, 1880년대 간행 『東經大全』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 제91집, 2022.
- 안창범, 『동경대전』의 역사적 연구, 『동학학보』 2, 2001.
- 염정섭, 1880년 인제판 동경대전 편찬·간행의 재고찰, 『건지인문학』 25, 2019.
- 원도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회성과 기념공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1호, 2007.
- 尹錫山, 『東經大全』, 동학사, 1996.
- 윤석산, 새로 발견된 목판본 『동경대전』에 관하여, 『동학학보』 20, 2010.
- 이호영, 동경대전의 正經과 문헌비평, 『동학학보』 제11권 1호, 2007.
- 임호민, 崔時亨의 동학재건 활동과 교권장악-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0권1호, 2017.
- 정재호, 동학경전과 동학가사 연구, 『東學研究』 제8집, 2001.
- 韓勝奉, 江原道 麟蹄 地域 崔時亨의 行蹟과 東學 記念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토론문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 토론 |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토론편

조재곤(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강원도는 동학사상 수립과 동학농민혁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동학의 초대 교주 최제우 사망 이후 최시형 등 주요 인사와 교도의 주요 피신처였을 뿐 아니라 경전을 간행함으로써 동학사상과 교리의 체계화를 꾀했던 지역이었다. 그뿐 아니라 영서와 영동을 넘나드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오늘 엄찬호 선생님의 발표문은 해당 자료와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동학의 대표적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의 최초 간행터인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를 중심으로 한 동경대전 간행터를 비정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둘째, 인제라는 지리적 환경과 특수성과 더불어 그간의 간행터 정비 현황을 소개하였다. 셋째,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시설, 교육시설 활용, 문화콘텐츠 활용 등 간행터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경전 간행터에 대한 홍보, 학생들 수업 부교재 확보, 동경대전 간행 기념사업 추진, 동학유적지 정비 등 간행터 기념시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발표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다. 다만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몇 가지 제안을 밝히고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1. 천도교서와 동학도종역사, 시천교종역사, 본교역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최시형이 1881년 6월 충청도 단양군 남면 천동(泉洞; 샘골) 여규덕(呂圭德)의 집에 간행소를 설치하고 용담유사(龍潭遺詞; 대신사 최제우의 노래와 말씀) 수백 부를 발간하였는데, 인쇄비용은 인제군의 접(接)에서 의연금을 내어 전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동경대전 뿐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용담유사도 인제와 밀접한 연관 아래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해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상호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평가와 활용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이와 연동시켜 동학 경전 간행 루트(publication road) 답사기행 추진도 가능해 보인다. 예컨대 강원도 인제(1880년 동경대전 초간본)→ 충북 단양(1881년 용담유사 간행지) → 충남 목천(동경대전 중간본) 등

3. 동경대전 각판소 터는 2016년 12월 2일 강원도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지역 기념물 차원을 벗어나 용담유사 간행터와 더불어 국가유산청 유형 문화유산 등재로의 승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천도교 중앙총부 차원에서의 동학사상 관련 유적지 전수조사와 그에 대한 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4.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최제우, 최시형, 전봉준, 손병희 관련 생가, 기념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제우는 경주 현곡면 가정리 생가가 복원되어 현재는 동학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손병희의 경우 청주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에 의암기념관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최시형의 경우 동경대전 간행터, 강원도 원주 호저면 고산리 송골 피제지(被逮地)와 경주 출생지 표지석, 전봉준의 경우 전북 정읍 이평면 고택과 단소(壇所) 외에는 특별히 정비된 유적지는 보이지 않는다. 동학사상을 집대성하고 대중에게 전파한 최시형과 동학농민혁명을 전국 단위까지 확산시킨 전봉준은 최소한 하나 정도의 기념관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최시형의 경우 동경대전 최초 간행터가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더 나아가 강원도 지역과 인제군의 기념물에서 벗어난 문화콘텐츠 또는 가치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천지일 합일 사상,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인간 평등사상, 개혁사상 등 동학사상의 핵심가치는 동경대전의 전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같은 가치를 확산시키는 기제로서의 동경대전을 현재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 발표자는 현 인제군 갑둔리 351번지 김현수의 집터를 동경대전 각판소로 비정하면서, 김현수(金顯洙)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사하고 그 아들 김영배가 이 땅을 물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토론자가 파악한 문헌 기록 자료에는 김현수의 농민군 참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주제발표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 발표 | 유 바 다 (고려대 교수)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유바다(고려대)

1. 머리말
2. 동학교단의 강원도 지역으로의 피신과 정선, 인제, 홍천 都所의 성립
3.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 1) 동학농민군의 강릉 관아 점령
 - 2) 차기석의 봉평 전투 주도과 동학농민군의 패배
 - 3) 정선 전투와 동학농민군의 패배
 - 4) 차기석의 체포 및 처형
 - 5) 관군 및 일본군의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토벌
4. 맺음말

1. 머리말

강원도 지역은 1864년 최제우 처형 이후 동학교단이 피신한 곳으로 1880년 『東經大全』을 간행하기까지 동학교단 활동의 중심지였다. 교단의 지도부가 충청도 지역으로 진출한 이후에도 강원도 지역 동학의 교세는 상당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大接主를 중심으로 한 包所 내지 都所가 정선, 홍천, 인제 세 곳에 설치되었다. 1894년 3월 동학농민군 기포 이후에는 9월 제2차 기포 당시 강원도 영동 지역의 중심지였던 강릉을 점령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군 활동 실패 이후 1898년 동학교단 최고지도자 최시형이 체포된 곳이 강원도 원주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강원도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해서는 韓祐勗이 가장 먼저 연구를 시작하고,¹⁾ 박준성이

1) 韓祐勗, 1978, 「東學農民軍의 峰起와 戰鬥-江原·黃海道의 경우-」, 『韓國史論』 4.

정리하여²⁾ 그 열개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정은경이 강원도 지역의 농민전쟁을 정리하였고,³⁾ 朴孟洙는 동학교단의 강원도 지방 포교 실태를 밝혀냈다.⁴⁾ 그 이후로는 강원도 현지에서 嚴燦鎬,⁵⁾ 李基遠,⁶⁾ 元永煥⁷⁾이 실증적인 연구를 이루어냈다.

개별 지역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강대덕,⁸⁾ 성주현⁹⁾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급기야 동학학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단행본¹⁰⁾을 출간함으로써 원주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동학학회에서 홍천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단행본¹¹⁾을 출간하였다.

이를 통해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의 전모가 다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근거 자료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강릉부사 李會源이 남긴 『東匪討論』과 『臨瀛討匪小錄』이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밝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려는 이유와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지역은 동학교단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곳이다. 동학교단은 최제우가 처형을 당한 1864년부터 최시형이 체포되는 1898년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또한 이 기간 내에 일어났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동학교단 속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기존 호남 중심의 동학농민군 연구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필 필요가 있다.

둘째, 마찬가지로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활동은 동학교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동학교단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직전까지 강원도 정선에 관동대접주 이원팔, 홍천에 차기석, 인제에 김치운을 대접주로 임명하여 都所를 세우도록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은 바로 이들 대접주 휘하의 도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기존 호남

2) 박준성, 1995,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東學農民革命紀念事業會 편, 『東學農民革命의 地域적 展開와 社會運動』, 새길.
 3) 정은경, 1995,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4) 朴孟洙, 1995, 「江原道地方의 東學秘密布教地에 관한 研究」, 『春川文化』 10.
 5) 嚴燦鎬, 1997, 「강원도 동학의 전래와 농민항쟁」, 『江原文化史研究』 2; 엄찬호, 2010, 「차기석계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과 이후 동향」, 『강원사학』 24·25.
 6) 李基遠, 2000, 「강원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연구」, 『江原史學』 15·16.
 7) 元永煥, 2000, 「강원도 지방의 동학과 동학혁명」, 『江原文化史研究』 5.
 8) 강대덕, 2009, 「원주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조직과 활동」, 『江原文化史研究』 14.
 9) 성주현, 2015, 「강원도의 동학 조직과 동경대전」, 『역사와 교육』 20.
 10) 조규태 외, 2019, 『강원도 원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조규태, 「원주 지역의 동학 포교와 원주 출신 동학인의 동학농민운동」; 조성환, 「원주 동학을 계승한 장일순의 생명사상」; 채길순, 「원주 동학농민혁명사 전개 과정과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성강현, 「동학농민혁명 이후 해월 최시형의 피신과 교단 정비」; 이병규, 「원주 지역 동학농민군과 의병」; 황도근, 「무위당은 어떻게 해월사상을 부활시켰나」; 최민자, 「과학과 영성 그리고 진화」; 임상옥, 「멜라니 조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식천(食天)의 신념 체계」; 김영철, 「동학으로 인해 근대적 인간의 가능성이 열린다」.
 11) 신순철 외, 2016, 『강원도 홍천 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상과 강원도 홍천」; 임형진, 「강원도 일대의 동학 전파와 홍천의 포 조직 분석」; 강효숙, 「일본군 제19대대 동로군, 제18대대, 원산수비대의 강원도 농민군 탄압」; 신영우, 「강원도 홍천의 동학농민군과 풍암리전투」; 전석환, 「해월 최시형의 동학경전 간행의 역사적 의의」; 채길순, 「구비 전승담으로 고찰한 홍천 동학농민혁명 전개 양상」; 이병규, 「강원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동학농민군」; 임상옥, 「최시형의 퍼실리테이션 지향점」; 조극훈, 「동학 개혁사상의 역사철학적 의미」.

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연구 시각만으로는 이들의 활동을 재조명하기 힘들다.

셋째,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을 지역 전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동학교단이 설치한 도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 활동 지역으로는 강릉, 홍천, 평창, 정선 등이 거론되는데 이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심지어 양양, 인제, 삼척에 이르기까지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들은 통문을 주고받고 있었다. 일례로 홍천 서석 전투와 봉평 전투, 정선 전투는 분리할 수 없다. 홍천 서석 전투에서 패배한 차기석은 봉평으로 진출하여 재차 전투를 치렀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 지역 동학교단과 동학농민군 활동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동학교단의 강원도 지역으로의 피신과 정선, 인제, 홍천 都所의 성립

1864년 4월 동학교단 教祖 水雲 崔濟愚가 처형될 무렵, 그와 같이 체포되었던 李慶化가 강원도 영월도 정배되면서 강원도 동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경화는 같은 해 3월 寧越로 정배되었는데 그는 이곳 영월 蘇密院에서 동학을 포교하였다. 이때부터 海月 崔時亨을 비롯한 동학교단 지도자들과 교도들은 강원도 영월 및 旌善 지역으로 피신하기 시작하였다.

1869년 최시형은 전국적으로 包制를 실시하였고, 강원도에는 關東大接主 李哲雨, 홍천과 인제의 도접주로 車基錫, 金致雲을 임명하였다. 같은 해 2월에는 襄陽 사람 崔惠根과 金慶瑞가 최시형에게 찾아왔고, 최시형은 朴春瑞를 데리고 양양으로 가서 포교를 하였다. 이로부터 강원도 영동 지역에까지 동학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871년 최시형은 경상도 寧海에서 李弼濟의 난에 연루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원도 영월의 鄭一進의 집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영월 稷谷里 朴龍傑의 집으로 옮겼다. 이후 首吏 池達俊의 도움을 받고 영월을 근거지로 하여 본격적인 동학 포교에 착수하였다. 1873년 10월에는 姜洙등을 데리고 태백산 葛來寺, 즉 지금의 강원도 정선에 있는 淨岩寺 寂照菴에서 49일간 공부를 하고 동학의 內雙句를 만들었다.¹²⁾

적조암 공부 이후 최시형은 충청도 단양에 머물면서 충청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였으나, 교단의 주요한 제례는 대부분 강원도에서 하였다. 1875년 11월 說法祭는 강원도 정선 무은담에서, 1876년 3월 설법제는 강원도 麟蹄에서, 1877년 10월 九星祭는 정선 무은담에서 하였다. 1878년 7월 25일에도 강원도 정선 무은담에서 開接禮를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시형은 1879년 11월 10일 강원도 정선 방시학의 집에서 사적 간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이듬해인 1880년 1월 『崔先生文集道源記書』가 정리되었다.¹³⁾

12) 嚴燦鎬, 1997, 「강원도 동학의 전래와 농민항쟁」, 『江原文化史研究』 2, 120~122쪽.

이어서 최시형은 최제우가 남긴 『東經大全』을 1880년 5월 강원도 인제 갑둔리에 각판소를 설치하고 한달가량 작업을 벌여 간행하였다.¹⁴⁾ 1881년에는 충청도 단양 남면 천동 여규덕의 집에서 『龍潭遺詞』를 간행하였다.¹⁵⁾

최시형과 강원도 인제의 인연은 오래된 것이었다. 1871년 이필제의 난 이후 강원도 영월도 피난을 갔던 최시형은 그 이듬해인 1872년 3월 23일 麟蹄 南面 舞依梅에 사는 金秉燾의 집에 간 적이 있었다. 이날 최제우의 셋째 딸과 최세정의 셋째 딸이 인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¹⁶⁾ 바로 이러한 내력을 바탕으로 1876년 설법제를 인제에서 지내고, 결국 『동경대전』도 인제에서 발간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 최시형의 활동은 강원도를 벗어나 충청도 단양을 거쳐 보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인제 지역은 최시형의 주요 근거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1881년 10월 최시형은 旌善의 霧隱潭에 있는 劉時憲의 집으로 가서 儒道·仙道·佛道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뜻을 써서 별도로 정성을 올리어 하늘에 고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¹⁷⁾

1887년 3월 21일에도 최시형은 徐仁周·孫天民과 함께 정선에 있는 劉時憲의 집으로 가서 장차 七七之課, 즉 七七齋를 거행하려고 하였다. 이때 유시현이 “葛來山은 일찍이 대신사께서 開壇하여 道를 강연한 곳이니 이곳에 나아가 修煉하면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가 등에 메어 나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최시형은 기뻐하고 승낙하여 즉시 갈래산으로 들어갔다. 入山한 날부터 최시형은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앉아서 눈도 깜박하지 아니하고 어깨를 자리에 붙이지 않은 채로 49일의 기한을 마쳤다.¹⁸⁾ 葛來寺에서의 두 번째 수도라고 볼 수 있다.

1889년에 이르러서는 7월 최시형이 도피하여 인제에 이르렀다가 다시 杆城으로 옮겼다. 10월에는 인제 金演鎬의 집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杆城 旺谷里 金河圖의 집에 옮겨 이르러 그 후원의 한 방을 택하여 머물고 三旬九食으로 겨울을 보냈다. 內修道文도 이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1890년 7월에도 최시형은 楊口, 간성 여러 군을 두루 살피고 인제 南面 城惶巨里 李明秀의 집에 이르러 잠시 머물렀다.¹⁹⁾

1893년 교조신원운동에 이르러 강원도 지역의 동학교단은 더욱 조직화 되었다. 그해 3월 11일 최시형이 전국적으로 각 包의 대접주와 포 이름을 정했다.²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3) 임형진, 2015, 「강원도 일대의 동학 전파와 흥천의 포조직 분석」, 『동학학보』 37, 24~25쪽.

14) 嚴燦鎬, 앞의 논문, 122~123쪽.

15) 임형진, 앞의 논문, 30쪽.

16) 『本教歷史』, 「第二編 海月神師」, “二十三日에神師 | 帶世清及林生 亨 시고 卽越大嶺 亨 사就麟蹄南面舞依梅金秉燾家 亨 시니 …… 是日에大神師第三女及世貞의夫人이 竝爲 捉囚于麟蹄獄 亨 다”.

17) 『東學道宗釋史』, 「第八章 遺蹟刊布及降書」, “同年十月, 師往旌善之霧隱潭劉時憲家, 用儒仙佛合一之義行別獻誠告天禮式, 四衆雲集”.

18) 『東學道宗釋史』, 「第八章 遺蹟刊布及降書」, “三月二十一日, 卽 師之六十一歲初度也, 各包道儒屆期齊集, 稱觥獻壽, 甚盛學也. 師與徐仁周, 孫天民, 往旌善郡劉時憲家, 將行七七之課, 時憲曰, 葛來山曾是 師之開壇演道處也, 卽此修煉, 則一應費用自可據券, 師喜而諾之卽入葛來山, 自入工之日, 師斂膝跪坐, 目不承睫, 脅不貼席, 以終七七之期期滿”.

19) 『天道教書』, 「第二編 海月神師」, “神師避到麟蹄更移杆城十月에神師 | 麟蹄郡金演鎬家에 避到하시엿더니時에捕卒이 跟探하는 지라 更히杆城郡旺谷里金河圖家에 移到하시고 後園一室을 擇하야 寓하실새 三旬九食으로 經冬하시다 神師 | 撰內修道文十一月 …… 七月에神師 | 楊口, 杆城諸郡을 周覽하시고 麟蹄郡南面城惶巨里李明秀家에 至하시 暫留하시더니”.

20) 『天道教書』, 「第二編 海月神師」, “時에神師 | 各包의大接主와 包名을 命하시니 忠義大接主에 孫秉熙, 忠慶大接主에 任奎鎬, 清義

순번	대접주	성명	지역(도)	지역(군현)
1	忠義大接主	孫秉熙	충청도	忠州
2	忠慶大接主	任奎鎬	경상도	慶州
3	淸義大接主	孫天民	충청도	淸州
4	文淸大接主	任貞準	충청도	文義
5	沃義大接主	朴錫圭	충청도	沃川
6	關東大接主	李元八	강원도	旌善
7	湖南大接主	南啓天	전라도	益山
8	尙公大接主	李觀永	경상도	尙州

이때 이르러 동학교단의 주요 근거지는 충주, 청주, 문의, 옥천을 비롯한 충청도, 경주, 상주를 비롯한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곳은 강원도다. 강원도에도 정선을 근거지로 하는 李元八이 關東大接主로 임명되어 그 입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원팔은 『甲午東學亂』에서는 李哲雨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인으로 추정된다.²¹⁾ 그리고 『昌山后人 曹錫憲歷史』에 따르면 1895년 7월 정선 關東 接主 이원팔이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관동대접주 이원팔의 근거지는 강원도 정선으로 추정된다.²²⁾ 이러한 사실은 최근 都所 관련 석사학위논문에서 밝혀졌다.²³⁾

같은 해 10월 강원도 지역의 포접 조직은 더 확대되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적 포접 조직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²⁴⁾

순번	성명	지역(도)	지역(군현)
1	金演局	충청도	文巖
2	孫秉熙, 李容九	충청도	忠州
3	孫天民	충청도	淸州
4	朴錫奎	충청도	沃川
5	任奎鎬	충청도	報恩
6	朴熙寅	충청도	禮山
7	任貞宰	충청도	文義
8	朴元七	전라도	靑山
9	金洛喆	전라도	扶安
10	孫華仲	전라도	茂長
11	金開南	전라도	南原
12	成斗煥	충청도	淸風
13	車基錫	강원도	洪川
14	金致雲	강원도	旌蹄

大接主에孫天民、文淸大接主에任貞準、沃義大接主에朴錫圭、關東大接主에李元八、湖南大接主에南啓天、尙公大接主에李觀永等이將次廟堂에建白하야”.

- 21) 『甲午東學亂』, 「第六十九章 甲午東學亂」, “時亨이各包의規模를組織하니 淸義大接主난孫天民이오 忠義大接主난孫秉熙오 忠慶大接主난任奎鎬오 文淸大接主난任貞準이오 沃義大接主난朴錫奎오 關東大接主난李哲雨오 湖南大接主난南啓天이오 尙公大接主난李觀永이라라”.
- 22) 『昌山后人 曹錫憲歷史』, “先時事實七月二十日에關東接主李元八氏가自丈席으로朴湘菴丈게入來호스某乙即爲入來호라신分付을傳호고”.
- 23) 權容秀, 2023, 「1894년 호남 지역 동학농민군의 독자적 都所 설립」,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3쪽.
- 24) 『侍天教宗釋史』, 「第十章 爲師訟冤」, “是時教門大關、稱丈席爲法所又稱法軒金演局定包所于文巖孫秉熙李容九定包所于忠州郡外西村黃山里、孫天民定包所于淸州郡松山里、其餘沃川朴錫奎、報恩任奎鎬、禮山朴熙寅、文義任貞宰、靑山朴元七、扶安金洛喆、茂長孫華仲、南原金開南、淸風成斗煥、洪川車基錫、旌蹄金致雲等、各自該郡組織本包、另寔都所、全瑋準募教徒、駐在於全羅道金溝郡院坪.”.

3월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충청도 지역에 包所, 즉 대접주 중심의 都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전라도에 김낙철, 손화중, 김개남을 중심으로 한 신규 도소의 설치가 눈에 띈다. 다음으로 강원도 홍천에 차기석, 인제에 김치운의 도소가 설치가 주목된다. 이로써 1894년 동학농민혁명 직전 공식적으로는 강원도 정선에 關東大接主 이원팔이 임명되고 홍천에 차기석, 인제에 김치운의 도소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정선은 최시형이 1864년 강원도 영월로 피신한 직후 정착했던 곳으로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의 교단 중심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최시형은 1869년 關東大接主로 李哲雨를 임명했던 것이다. 이철우는 이원팔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인제 또한 최시형과의 인연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별하다. 김치운은 이미 1869년에 인제의 도접주로 임명된 바 있다. 여기서 홍천도 눈에 띄는데 역시 1869년 이곳이 차기석이 도접주로 임명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강원도 정선, 인제, 홍천에서 동학교단의 조직이 발달하였고 1893년 10월 동학농민혁명 직전에도 이곳을 중심으로 동학교단이 포소 내지 도소 단위로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정선은 경상도 북부 및 충청도 북부 지역과 통하는 강원도 남부의 초기 동학교단의 중심지이고, 인제는 영동 지역에 걸친 강원도 북부의 역시 초기 동학교단의 중심지였으며, 홍천은 상대적으로 경기도 지역과 가까운 강원도 중부 내륙 동학교단의 활동 장소였다. 바로 이렇게 강원도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동학교단의 조직은 1894년 동학농민군 활동의 주요한 근거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1) 동학농민군의 강릉 관아 점령

1894년 3월 호남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起包하였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이는 강원도 지역 동학교도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호남 동학농민군과는 별 다른 연계가 없었고, 여전히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단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같은 해 여름과 가을 사이에 먼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2차 기포의 움직임이 있자, 강원도에서도 原州·寧越·平昌·旌善 4개 고을을 중심으로 동학의 接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평창의 吳德甫는 8월부터 布教를 한다고 평창 관아의 신리면에 와서 머무르며 接을 설치했다.²⁵⁾

8월 20일에는 동학교도들이 강릉 대관령 서쪽 大和面을 침범하여 金長水의 집을 훼손하고 그 집의 가사와 집기를 탈취한 뒤에 대관령을 넘어간다고 큰소리쳤다.²⁶⁾ 이때 동학교도들은 “강릉의

25) 『東匪討論』, 「甲午十一月二十一日 關平昌郡」, “本郡居東徒吳德甫爲名漢去八月分稱以布道來留本府新里面非但設接到處作梗無所不至是如”.

26) 『臨瀛討匪小錄』, “八月念間犯本邑嶺西大和面毀金長水宅家舍奪其家事汁物而聲言踰大關嶺而來”.

어떤 부잣집은 우리들을 위해 술을 빚고 소를 잡아 저장하여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선교의 이 아무개는 우리를 해치려고 창검을 접고하고 있다”고 하였다.²⁷⁾ 강릉의 李會源이 동학농민군 토벌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1,000여 명에 이른 이들은 강릉의 대화면에 들어와 毛老峙를 넘어 珍富面으로 향하였다. 9월 3일에는 대관령을 넘어와 邱山驛에 묵었다.²⁸⁾

급기야 9월 4일 영월과 평창, 정선 등 5개 고을의 동학의 무리 수천 명이 江陵府使가 바뀌는 때를 엿보아 일제히 강릉 읍내에 들어와서 三政을 바로잡을 것을 칭하고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²⁹⁾ 이들은 지나는 곳의 길목에서 말을 빼앗아 타고, 총과 칼을 가져갔으며 강릉 府中에 4~5일을 머물렀다. 維正과 軍稅 및 糶稅, 환곡 등의 三政을 삭감하였고, 饑戶를 불러다가 재물을 요구하고 전답문서를 빼앗고자 하였다. 관원과 백성을 관아의 옥사에 가두고 민간의 訟詞를 처결했으며, 徒黨들을 불러 모으고 군기 탈취를 시도하였다.³⁰⁾

구체적으로는 평창의 전 좌수 李致澤, 이름을 알 수 없는 權地官, 진사 朴載會, 영월의 이름을 알 수 없는 羅教長, 三陟의 黃察訪, 旌善과 餘糧驛의 池曰吉, 강릉 大和面의 金相五, 公孔啓正, 金順吉, 孫永八 등이 동학을 칭하면서 영월·평창·정선 등의 3개 읍에서 수천여 명을 이끌었다.³¹⁾

정선에는 이미 관동대접주 이원팔의 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선뿐만 아니라 인근 영월과 평창에 接이 설치되고 동학농민군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봉기하자마자 강원도 영동 지역의 중심지인 강릉을 점령하였다. 이는 9월 중순에야 이루어지는 호남 지역의 삼례기포보다도 더욱 앞선 것이었다. 동학농민군 강릉 점령 당시의 광경을 이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9월 4일 巳時 경에 읍에 들어오는데,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탄 자가 수십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걸어서 뒤를 따랐다. 길게 늘어져서 모이고 흩어지는데 통솔이 되지 않았고 尊卑도 없었다. 반은 대낮에 우비를 입었고, 검은 때가 묻은 破衣를 걸쳤으며, 수백 隊의 귀신 얼굴을 한 병사들은 도읍을 통과해 시장에 가는 백성들처럼 보였다. 13字 天主呪文은 상갓집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곡소리처럼 들렸다.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박이며 웃으면서 귓속말을 하는 비루한 모습들을 모두 적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세력은 대단하여 백성들의 민심이 그것에 놀리어

27) 『臨瀛討匪小錄』, “於是匪徒在嶺西而倡言曰江陵某富家則爲余等釀酒貯牛而待吾來仙橋李某則欲害余而檢考鎗刀或有解之者曰仙橋閱槍備防他盜斷無別意渠或疑信而其威喝之言難以盡記”.

28) 『臨瀛討匪小錄』, “湖中內郡堤淸等地匪徒與東峽寧平地匪徒合數千驅入本邑大和面踰毛老峙入珍富面則劫掠轉甚 …… 九月初三日踰大關嶺揚揚自得雀躍狼驅無復次序而來宿邱山驛”.

29) 『東匪討論』, 「在營 九月初八日」, “甲午夏秋之間先自兩湖之地創起東學之名本道原州寧越平昌旌善等四邑亦漸其害往往有設接處而外托尙學內懷騙財數月之間其徒黨之寔繁便成覆雲世界誠一難測事也同年九月初四日寧平旌等三邑東徒數千人覘瞰[] [] 遞之時齊到邑底冒定三政資言濟民故爲先供饋之由以公兄文狀馳告營門矣回題內三政平均何待民言而矯革須即馳往查報以爲憑處之意告課兼邑尙事在營九月初八日”.

30) 『東匪討論』, 「九月初八日 文告 巡營及兼官」, “公廨各處守直等節申飭無事是白乎於自今月初四日何許亂類稱以東學自寧平旌三邑流離來到者數千餘名入邑供饋之由業已馳告是白在果所過沿路奪乘馬匹收取銃鎗留住府中至於四五日維正軍糶稅三政任意減削或扳放饑戶討索錢財欲奪田畝文書毆打吏民捉囚府獄民間詞訟無難決處威脅牢刑嘯聚徒黨忿除良欲奪軍器”.

31) 『東匪討論』, 「留鄉座首爲牒報事」, “今月初四日平昌前座首李致澤名不知權地官進士朴載會寧越名不知羅教長三陟黃察訪旌善餘糧驛池曰吉及本府大和面金相五孔啓正金順吉孫永八等稱以東學自寧平旌三邑領率數千餘名”.

따랐다. 이에 마을에서 恒産이 없는 무뢰배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하고,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징험할 수 있는 신비한 술법이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양반에게 눌린 분노가 있어도 지체가 낮아 퍼지 못한 자나 남의 재물을 빼앗을 마음이 있으나 재주가 모자라서 빼앗기 어려운 자도 스스로 운수가 형통하리라 말하며 다투어 지름길을 찾아 몰려들었다.³²⁾

동학농민군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광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강릉은 일시적으로 동학농민군의 해방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다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각 面의 대소 민인 4,000~5,000명이 9월 7일 戌時 쯤에 한꺼번에 읍에 들어와 동학농민군을 몰아냈다.³³⁾ 9월 26일에는 강릉 大和面의 九道味에 사는 金相五, 土田에 사는 孔啓正, 鴈尾에 사는 全順吉, 桂村에 사는 孫永八, 平昌의 進士 朴載會 등이 東徒라고 칭하며 강릉읍에서 그들을 몰아낸 것에 반감을 품어 軍號로 徒黨을 모으며 砲手를 모집해서 복수를 하러 嶺東을 공격할 계획을 꾸리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³⁴⁾ 이러한 가운데 10월 들어 강릉부사 李會源이 關東召募使를 겸직하게 되었다.³⁵⁾ 이회원은 이미 10월 1일 공식적으로 강릉부사로 임명된 바 있다.³⁶⁾ 본격적으로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대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차기석의 봉평 전투 주도과 동학농민군의 패배

강릉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은 더 이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11월 2일에 이르러서는 강릉 영서의 蓬坪 등에 있던 동학농민군도 이미 토벌당하여 동학농민군 지도자 7명이 체포당하고 나머지 무리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더 이상 강릉을 공략할 수 없었던 동학농민군은 정선과 평창에 집결하였다.³⁷⁾ 체포당한 7명은 尹泰烈, 李昌文, 金大永, 金喜烈, 龍河京, 吳順永, 李和奎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총살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과 평창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그 기세가 대단하고 강릉부로 향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³⁸⁾ 정선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3,000여 명이고, 평창의 後坪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32) 『臨瀛討匪小錄』, “初四日巳時量入邑或騎或輶者數十人餘皆步從逶迤散聚元無統率亦無尊卑半跪白日之雨具橫掛黑黴之破衣數百隊鬼面卒見若通都赴市之民十三字天主咒聽如葬家返魂之哭揚眉瞬目嘻笑附語卑瑣儀形無足彈記然其聲勢浩大民情脅附於是邑村間無恒産潑皮徒謂得生路之可活沒知覺蒙駭輩謂有神術之可驗至或有見屈兩班之忿而地卑未撼者有攫取他財之心而才劣難售者自稱運路之亨通競尋捷徑而奔騰”.

33) 『東匪討論』, 「留鄉座首爲牒報事」, “各面大小民人四五千名不勝憤鬱今月初七日戌時量倡義齊發一齊入邑故府內民人亦爲出義竝力聲罪毆逐之際渠等之當場被死爲二十名被傷後逃走之中路所死爲數十餘名本邑民人之所傷不可勝數所奪銃爲七柄鎗爲一百五十七柄馬爲三匹是乎”.

34) 『東匪討論』, 「文狀草」, “本府大和面處在於邑府絕遠京 營沿路之地 進貢上納與文牒輸運陸續不絕是白乎所該面九道味居金相五居士田居孔啓正雁尾居全順吉桂村居孫永八平昌進士朴載會等稱以東徒挾憾於本邑之毆逐囂聚徒黨招募砲手謂以復讐將有嶺東歐計之討忿除良使嶺東之人不得來往 進上與上納各樣文牒莫可通行是乎”.

35) 『東匪討論』, 「九月廿九日 文告 巡營」, “關東召募使以本府使差下事 甲午十月”.

36) 『臨瀛討匪小錄』, “是日初昏自京司三懸鈴知委下來特拜前承旨李[]爲江陵府使”.

37)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二日 戌時 關襄陽」, “本府嶺西蓬坪等地匪徒今已往討魁首七漢捉得後在逃餘黨一位跟捕是在果即聞匪徒猖獗聚會于旌善平昌兩邑方欲調兵勦討是如乎”.

38)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一日 牒巡營」, “蓬坪匪徒魁首尹泰烈及同黨李昌文金大永金喜烈龍河京吳順永李和奎七漢等衆憤所激當場砲殺餘外逃散之賊另加追捕次轉向內面計料是乎於 …… 旌善平昌兩邑匪徒猖獗聚會于各其該邑內數至幾千聲勢壯大欲向本府是如傳說浪藉”.

1,000여 명이였다.³⁹⁾

이에 대응하여 강릉부사 이회원은 襄陽과 三陟에서 軍丁을 모집하였다.⁴⁰⁾ 이는 영동 지방 전체는 관군의 통제하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1월 5일에 이르러서는 양양에서 이석범이 병정 300명을 이끌고 오게 되었다. 그리고 순영 중영이 강릉 대화에 도착하게 되었으므로 강릉에서도 포군 800명을 보내어 주둔하고 있는 진중에 합류하게 하였다. 여기에 일본군 2개 중대도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군정 1隊를 뽑아 요충지를 지키게 하고, 다른 1隊는 바로 정선읍의 요충지를 공격하게 하였다.⁴¹⁾ 구체적으로는 巡營中軍都討捕使가 병정을 이끌고 일본군 2개 중대와 함께 11월 3일 云交站에 이른 상황이었다.⁴²⁾

지금은 강원도 평창에 속해 있는 봉평에서의 전투는 11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봉평 내면의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여 9명이 참수되었다. 도망간 남은 무리들은 해당 면에서 포수가 잡아 죽였다. 중군 이진석이 이끌던 군병은 대화로 향하여 순영 중군의 행진을 맞이하고 일본군과 힘을 합쳐 평창과 정선 2개 고을의 동학농민군을 격파하였다.⁴³⁾ 이때 동학농민군이 10,000여 명이 있었는데 100여 명이 총살당하고, 연이어 접주李文甫 등 5명이 체포되어 참수당했다.⁴⁴⁾

이때 봉평 내면에는 강원도 증부 영서 내륙 동학교단의 중심지였던 흥천에서 都所를 꾸리고 있었던 車箕錫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석은 접주 朴鍾伯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이미 10월 12일 흥천에서 밤에 불을 지르고 강릉 사람들을 죽였다. 이들은 수백 명의 무리들을 이루어 각기 총과 창을 소지하고 있었다.⁴⁵⁾ 이때 접주 朴宗石이 같이 활동하였다. 지평현감 맹영재가 흥천 東倉으로 갈 것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차기석이 밤에 불을 지른 창고는 東倉으로 보인다.⁴⁶⁾

이후 차기석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0월 22일 흥천 瑞石面 魚論里에서 맹영재의 부대와 마주쳤다. 여기서 동학농민군 100명 중 10여 명이 총을 맞아 죽었다. 맹영재는 豐巖里까지 추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은 흙으로 보루를 쌓아 백기를 꽂고 수천 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바로 접전을 해서 한낮부터 저물 때까지 이어졌고, 관군 측 砲兵이 승세를 타니 동학농민군이 점차 무너져서

39)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三日 牒兼」, “旌善邑都聚匪徒爲三千餘名平昌後坪都聚爲千名氣勢壯大誠非細慮除良彼徒將欲向本府是如爲有置”.

40) 『東匪討論』, 「傳令 各面」, “旌平兩邑匪徒勦滅次方召募軍丁於襄陽三陟兩邑則所緊者行鞋也”.

41)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五日 甘結襄陽」, “旌旌平兩邑東匪勦滅次使李錫範領率兵丁三百名來待之意已有所發關是在果今月初四日自巡中營率來軍到于大和地使本府已發砲軍八百名合率留陣矣日兵丁二中隊下來方將分路討滅故又抄軍丁一隊防守於隘口一隊直衝旌邑要路”.

42) 『東匪討論』, 「襄陽作廳 回納」, “今此平旌匪徒聚會作亂其勢壯大自巡營別定巡中軍都討捕使率兵並與日兵丁二中隊今月初三日到被云交站”.

43)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五日 酉時 關杆城郡」, “本府蓬坪內面匪徒猖獗作弊故自本府調兵勦討捕捉賊魁九漢梟首警衆在逃餘黨自該面砲手一邊盡劉而中軍李震錫所率軍兵即向大和應接巡中軍陣並與日兵合力巡討于平旌兩邑匪徒”.

44) 『東匪討論』, 「在平昌邑 初十日」, “今月初五日平昌後坪等地與東徒萬餘名接戰而砲殺匪徒百餘名連得接主李文甫等五漢梟首警衆追進于旌善等地是如乎”.

45)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一日 牒巡營」, “去月二十二日辰時到付 祕甘內節該即接洪川縣監所報則東徒今月十三日夜突入東倉故火倉舍魁首車箕錫接主朴鍾伯率其同黨擅殺人命於江陵地是乎矣作梗之漢俱是本縣之人則縣監率應檢各人到被停屍處東徒幾百名各持銃鎗圍立停屍處使不得行檢是乎矣”.

46) 『甲午軍政實記』 卷3, 1894년 10월 21일.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는 동학농민군을 추격하여 총에 맞아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차기석과 박종백은 도주하였다.⁴⁷⁾ 이것이 바로 강원도 홍천 서석 풍암리 전투였다.

차기석은 서석에서 달아나 길도 없는 험산준령을 넘어 봉평 방면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봉평면 領軍隊長 姜羽西의 수본에 의하면, 내면의 차기석이 麒麟, 麟蹄, 襄陽, 杆城 등에 통문을 보내고 軍號로 동학농민군을 모아 봉평을 공략하고자 하였다.⁴⁸⁾ 그는 1,000여 명을 모아 봉평과 내면 및 영서의 각 읍 등지에 출몰해서 창과 총을 빼앗고 창고와 가옥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⁴⁹⁾ 이를 보면 홍천의 차기석이 봉평까지 도주에 성공하여 인제, 양양, 간성 방면의 영동 지역까지 시야에 넣고 강원도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회원이 언급하였듯이 봉평과 내면은 100리가 되는 산골짜기인데 곧 梁山泊과 같은 소굴이 되었다.⁵⁰⁾ 이때 차기석은 “자신들과 湖匪, 호남과 호서의 동학도는 같지 않고 다만 학업을 하며 의롭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⁵¹⁾라고 하였다. 호남 지역의 동학농민군보다는 동학교단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7일경 동학농민군이 봉평 내면 1리 倉村에서 봉평대장 姜渭瑞, 즉 위의 姜羽西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⁵²⁾ 이때 관군 3명이 부상당하고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민간 10여 호를 불태웠다.⁵³⁾ 봉평대장 강위서를 습격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다름 아닌 차기석이었다. 그는 몰래 산 위에서 무리를 모았다가 밤에 강위서의 陣中을 습격하였다. 공격 성공 이후 이들은 봉평 내면에 계속 머물렀다.⁵⁴⁾

삼척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눈에 띈다. 11월 8일경 삼척 道上面 柳川洞의 동학농민군과 정선의 大田 및 弓田谷에 있는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여 정선과 삼척 2개 읍의 경계를 왕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⁵⁵⁾ 이원회는 영월, 평창, 정선의 동학농민군이 싸움에 져 도망쳐서 동쪽 길에 이르러 삼척으로 향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⁵⁶⁾ 실제로 정선 전투 이후 영월·평창·정선에서 쫓겨난 동학농민군이 삼척의 上下長面에 도망가서 숨었다.⁵⁷⁾ 양양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양양 관아로 압송된 동학농민군 12명도 눈에 띈다.⁵⁸⁾

47) 『甲午軍政實記』卷3, 1894년 11월 2일.

48)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五日 西時 關杆城郡」, “即見蓬坪面領軍隊長姜羽西手本則內面賊魁車其錫暗自發通于麒麟襄陽杆城等地嘯聚匪徒欲屠蓬坪云”.

49) 『東匪討論』, 「江原道行江陵大都護府使兼關東招募使」, “今月初六日姜渭瑞手本內東徒巨魁車箕錫聚黨千餘名出沒於蓬坪內面及嶺西各邑等地搶奪鎗銃殺人命倉舍民戶放火燒燼”.

50) 『臨瀛討匪小錄』, “兩面百里絕峽便作梁泊之巢穴”.

51) 『臨瀛討匪小錄』, “先是內面地有匪魁車箕錫者自稱得道誑誘愚民徒衆爲千餘人傳者謂此與湖匪徒不同只以學業爲事不爲非義之舉此即其徒護黨之說誠不足信”.

52) 『東匪討論』, 「傳令 招募從事官朴東儀」, “蓬坪隊長姜渭西入于內面一里倉村見敗於東徒是如則果如所報極爲可悶”.

53) 『東匪討論』, 「傳令 招募從事官朴東儀珍富面都執綱金允熙」, “即接執綱所報則蓬坪砲手隊長姜渭瑞還陣于該面倉底軍率所傷者爲三名內面匪徒數百名放火民家十餘戶刺殺民人亦爲十餘名云”.

54) 『東匪討論』, 「甲午十一月日 牒巡使」, “故今月初七日領率砲軍發送旌善邑與巡中軍東西分討爲乎於”.

55)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八日 關 三陟府使」, “三陟道上面柳川洞匪徒輩與旌善大田及弓田谷所在匪徒合勢聚會來往于旌三兩邑之界是如”.

56) 『東匪討論』, 「甲午十一月初九日 關三陟鎮營」, “寧平旌匪徒勦滅次巡中軍率砲軍與日兵先任平昌所據東徒後將向旌邑則彼徒之逃散東路勢所必至”.

57) 『東匪討論』, 「甲午十一月二十日 關三陟府」, “寧平旌所逐匪徒皆逃竄于三陟上下長面是如爲有置”.

이를 보면 남쪽으로는 삼척부터 북쪽으로는 양양에 이르기까지 영동 지역 전반에 걸쳐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석이 麟蹄, 襄陽, 杆城 등에 통문을 보내고 軍號로 동학농민군을 모아 봉평을 공략하고자 하고자 한 행동에는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3) 정선 전투와 동학농민군의 패배

11월 9일에 이르면 巡營中軍行陣所가 정선읍에까지 진출하였다.⁵⁹⁾ 일본군도 정선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⁶⁰⁾ 정선의 동학농민군은 도망가서 흩어졌다.⁶¹⁾ 이미 11월 7일 강릉에서 나온 포군이 순영 중군과 함께 정선읍으로 가서 동서로 나누어 동학농민군을 물리쳤다.⁶²⁾

이때 강릉 관아 중군 출신 이진석과 출신 曹轍承이 군정을 이끌고 가서 바로 정선군 여량으로 들어가 동학농민군과 접전을 하여 10여 명을 쏘아 죽였고 이증집 등 5명을 사로잡아 결박하여 보냈다. 동학농민군의 빈집 70여 호는 흩어진 동학농민군이 돌아와서 거처하여 소굴이 될 것을 염려하여 바로 불태웠다. 방향을 바꿔 정선읍으로 들어갈 때에 일본군이 먼저 들어가 동학농민군을 섬멸했다. 정선의 동학농민군 이증집, 林順哲, 김윤언 등 3명은 한꺼번에 쏘아 죽였고, 羅正伯과 鄭萬千 등 3명은 산골짜기 백성으로 협박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올렸다가 바로 돌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귀화시켰다.⁶³⁾

정선 전투 이후 달아난 정선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成斗煥과 劉道元이었다.⁶⁴⁾ 성두환은 앞서 소개한 1893년 10월 최시형이 전국적으로 包所를 정할 때 충청도 淸風에서 都所를 꾸린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중 하나였다. 淸風은 지금 충청북도 제천에 속한 곳으로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남부지역과 가까운 곳이었다.

4) 차기석의 체포 및 처형

차기석은 정선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봉평 내면에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11월 16일 무렵 관군이 元棠里에 행군하여 내면 동학농민군 지도자 차기석과 吳德玄, 그리고 집강 朴碩元

58) 『東匪討論』, 「甲午十二月初十日 牒兼使」, “本面散逃之匪十二名與襄陽民丁跟捉押送于襄陽府是如”.

59) 『東匪討論』, 「傳令 行軍領官及副吏房」, “中軍及李世完領率砲軍與面丁罔夜馳往于旌善邑巡中軍行陣所合力應變在逃匪徒無遺討滅後還現是矣如是”.

60) 『東匪討論』, 「告目草 旌善留陣日兵帶率軍官」.

61) 『東匪討論』, 「傳令 行軍中軍及副吏房李世完姜東五」, “旌善匪徒雖云逃散何不馳往于信地觀其賊黨之去就遽爾回軍爲計耶”.

62) 『東匪討論』, 「甲午十一月日 牒巡使」, “姜渭瑞馳入內面一里倉底雲處東匪各逃分散之際車箕錫漢暗地聚群于山上是如可夜劫姜渭瑞留軍則事在非意不能抵敵於彼輩被死者三名所傷者至於八名仍爲敗歸是如有蓬坪面執綱所報忿除良彼徒復聚黨類威脅平民不入渠黨則這間殺害人命爲六十餘名燒火民家亦至十餘戶其所行悖不有餘地況且厥輩之成群作黨數至不少云推此觀之匪魁之車箕錫尙在內面釀毒行兇丁寧無疑”.

63) 『東匪討論』, 「甲午十一月日 牒巡使」, “今月初六日本府中軍出身李震錫出身曹轍承率軍丁發送矣直入旌善餘糧地與匪徒相接砲殺十餘名生擒李仲集等五漢結縛捉來匪徒之空家七十餘戶爲念散徒之還接成窩卽爲故火轉向該邑之際日兵先入勦滅云 …… 旌善匪徒李仲集林順哲金允彥等三人一時砲殺羅正伯鄭萬千等二人以其峽岷怯於威脅不獲已錄名旋卽背道是如故曉諭歸化是乎所”.

64) 『東匪討論』, 「傳令 臨溪面留陣中軍副吏房及李世完姜東五等」, “今此旌邑匪徒之逃竄已爲稔知而渠魁不得不捉得然後來頭生弊可以除去是如乎領率砲軍與鎗手軍丁次次馳往于地境及餘糧等地匪徒之隱避者及在家者一竝捕捉數罪討滅後中軍段領率砲手鎗手中精兵限一百名卽爲馳進于旌善邑日兵所住處合力勦討是遣匪魁成斗煥劉道元等期於跟捉納上俾除後弊之地宜尙事”.

등 3명을 사로잡은 보고가 도착하였다.⁶⁵⁾ 구체적으로는 11월 11일 봉평 창촌에 주둔하고 있던 강위서가 自雲包에서 접주 魏承國과 접사 沈成淑 등 17명을 쏘아 죽였다. 다음 날인 11월 12일 관군 측 박동이가 이석범의 분의군병과 합세하여 바로 원당리로 진격하였다. 실제로 省察 오덕현 등 3명은 우선 쏘아 죽였고, 차기석은 승세를 타서 사로잡았다.

이들은 靑頭里로 진격하여 흥천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權成五 등 12명을 쏘아 죽이고 약수포로 들어갔다. 이석범의 동생인 國範은 병정을 이끌고 신배령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석범의 副從인 金翼濟는 병정을 인솔하여 응봉령으로 바로 나아가 세 방향의 길에서 협공하여 접주 金致實 등 11명을 쏘아 죽였으며, 접사 朴學祚를 사로잡았다. 사로잡은 동학농민군 중에 孫應先 등 60여명은 개고기를 나누어서 먹게 하고 귀화시켰다. 다른 한편 강위서는 興亭 3리 등지로 방향을 바꿔 林正浩 등 38명을 쏘아 죽였고 나머지 무리 100여명은 귀화시켰다.⁶⁶⁾

11월 17일에는 동학농민군 池德化가 다시 붙잡혀 문초를 받고, 박석원, 오덕현과 함께 총살되었다. 나머지 9명은 문초를 한 뒤 개고기를 나누어 먹이고 돌려보냈다.⁶⁷⁾ 이쯤 되면 차기석도 살아남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때 봉평 내편 방면에서 활동한 관군 측 인물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蓬坪面 執綱 兼 召募從事官 姜渭瑞

砲手隊長 秋雲端

珍富面 道岩面 砲手都隊長 李順瑞

珍富面 砲手隊長 出身 崔允凡

道巖面 砲手隊長 權學汝

內面 三里 防守都隊長 黃好汝

一里 防守都隊長 金允信

束沙里 銀頭嶺 防守軍官 金正善

內面一里 執綱 韓學愈⁶⁸⁾

봉평, 진부, 도암에 걸쳐 포진해 있었는데 이는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가는 도상에 있다. 이는 차기석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이 강릉 진출을 노리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東匪討論』, 「傳令 召募從事官朴東儀洪鍾愚副從事官張燾周金僑秀崔舟河軍官姜渭瑞」, “即接所報行陣於元棠里內面匪魁車其錫同黨吳德玄執綱朴碩元等三名生擒是如”.

66) 『東匪討論』, 「江原道行江陵大都護府使兼關東召募使」, “今月十一日朴東儀留陣於一里倉村姜渭瑞與洪川許垆發通合勢直討自雲包砲殺接主魏承國接司沈成淑等十七漢其翌日朴東儀與李錫範奮義軍兵合陣直進于元堂里攻討車箕錫之時省察吳德玄等三漢先爲砲殺車箕錫段乘勝生擒前進于靑頭里砲殺洪川匪魁權成五等十二漢轉入藥水包而李錫範之弟國範率兵直由于新排嶺李錫範副從金翼濟率兵直進于鷹峯嶺三路挾攻砲殺接主金致實等十一漢生擒接司朴學祚所捉匪徒中孫應先等六十餘人分食狗肉曉諭歸化是乎所”.

67) 『東匪討論』, 「傳令 內面行陣所諸從事官」, “即接所報池德化更爲捉得捧招並與朴碩元吳德玄即爲砲殺其餘九名捧招後狗肉分食即令反道是如”.

68) 『東匪討論』, 「甲午十一月二十一日 關平昌郡」.

봉평에서 붙잡힌 차기석의 운명은 어두울 수 밖에 없었다. 그는 11월 22일 박학조와 함께 教場에서 참수당하였고, 首級은 驛子를 정해 강원도의 감영으로 보내졌다.⁶⁹⁾

5) 관군 및 일본군의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군 토벌

이미 흥천 등지에서는 砥平縣監 맹영재가 군사를 인솔하여 동학농민군을 토벌하였고, 황성 등지에서는 해당 현감이 소모관 鄭俊時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토벌하였으며, 평창과 영월 등지에서는 일본군도 들어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다. 강릉부사 겸 관동소모사 이원회는 직접 “다른 군대가 이미 지나간 곳은 나아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각 군대는 그대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⁷⁰⁾ 이제 강원도에서의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은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일찍 8월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接을 설치하여 활동하였던 오덕보도 압송될 운명에 처하였다.⁷¹⁾ 봉평의 金星七도 총살당했다.⁷²⁾ 신배령에서 활동하였던 孫長業, 金昌守, 李寬九, 吳周實, 李東益, 高俊成 등을 체포되어 엄중히 형을 받고 문초를 당했다. 손장업, 김창수, 이관구, 오주실은 위협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넣었다가 바로 동비의 도를 배반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동익은 진사를 칭하며 도처에서 폐단을 저질러 온 경내에 소문이 낭자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고준성은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자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장업 등 4명은 비도의 도를 배반하고 귀화한 것을 믿어 풀어주었고, 이동익과 고준성 2명은 저지른 죄가 가볍지가 않아 관아의 옥사에 가두게 되었다.⁷³⁾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있을 때 관동대접주였던 이원팔은 동학교단 본진을 따라 1894년 12월 18일 충청도 보은 북실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참수당했다.⁷⁴⁾ 다만 『昌山后人 曹錫憲歷史』에서는 1895년 7월에도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어 생존 여부를 더욱 추적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麟蹄에 都所를 꾸렸던 김치운의 이후 행적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아마도 인제는 동학농민군의 주 활동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뚜렷한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에 가장 먼저 대접주가 되어 都所를 세운 정선의 이원팔과 흥천의 차기석이 처형된 점은 그만큼 이 지역동학교단의 주요 지도자들이 격렬하게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선 전투 이후 달아난 성두환은 成斗漢이

69) 『東匪討論』, 「江原道行江陵大都護府使兼關東召募使」, “生擒巨魁車箕錫朴學祚兩漢今月二十二日開坐教場梟首警衆後首級定驛子上送于本道監營爲乎旵”.

70) 『東匪討論』, 「江原道行江陵大都護府使兼關東召募使」, “洪川等地砥平縣監率兵討平橫城等地該縣監與召募官鄭俊時率兵討平平昌寧越等地日兵先爲討平則他兵已過之地不必前進故各軍仍爲回還是乎所”.

71) 『東匪討論』, 「甲午十一月二十九日 關平昌郡」, “本郡居匪徒吳德甫捉上之意關飭已久尙無阜白揆以舉行稽忽極矣吳匪之前後行悖不可容貸多發伶俐校卒期於跟捉定將羅押上是矣”.

72) 『東匪討論』, 「傳令 蓬坪面執綱及頭民」, “本面匪徒中有名之金星七今既捉得砲殺後渠之家藏什物依捧招後錄傳令是在果”.

73) 『東匪討論』, 「甲午十二月初五日」, “至于新排嶺匪徒孫長業·金昌守·李寬九·吳周實·李東益·高俊成等捉得以來故爲先嚴刑問招則孫長業·金昌守·李寬九·吳周實段怯於威脅不得已參名矣旋即背道是如是豈遭李東益段素以有名之漢稱以進士到處作弊一境喧藉高俊成段前後罪犯無隱自服是乎所參聽所招詳探輿論則孫長業等四漢之反道歸化丁寧無疑故一併曉諭放送李東益高俊成兩漢罪犯非輕姑爲牢囚府獄爲乎旵”.

74) 『討匪大略』, 「甲午十二月」, “是役也斬賊魁所謂大接主任浩李元八金君五鄭大春等其餘雖有死者不知其名號之爲誰”.

기도 한데, 그는 결국 체포되어 1895년 3월 전봉준과 함께 사형에 처해졌다.⁷⁵⁾

동학교단의 최고지도자 최시형이 체포된 곳도 강원도 원주였다. 그는 1898년 1월 원주에 은거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같은 해 7월 18일 교수형을 선고받고 사형에 처해졌다.⁷⁶⁾ 이를 통해 볼 때 동학농민혁명의 처음과 끝에는 강원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동학교단은 1864년 최제우가 처형당한 직후 강원도 영월 및 정선지역으로 피신하여 활동을 이어나갔다. 1869년 전국적으로 包制를 실시할 때 강원도에는 關東大接主 李哲雨, 홍천과 인제의 도접주로 車基錫, 金致雲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학교단은 1880년 인제 갑둔리에서 『東經大全』을 발간하고 충청도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은 동학교단의 주요 근거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최시형은 1887년 강원도 정선에서 七七齋를 거행하였고 1889년에는 인제에 도피하였다가 간성에 이르러 내수도문을 지었다.

1893년 교조신원운동이 시작하자 최시형은 다시 강원도 정선의 이원팔을 관동대접주로 임명하였고, 10월에 이르러서는 차기석과 김치운으로 하여금 각각 강원도 홍천과 인제에 포소, 즉 도소를 차리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동학교단의 포소 조직은 이듬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강원도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9월 2차 기포가 일어나자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 등의 고을에서 동학농민군이 일어나 강릉 관아를 점령하였다. 이는 호남지역의 삼례기포보다도 빠른 것이었다. 이들은 강릉 관아 점령 이후 곧 물러나게 된다.

다른 한편 강원도 홍천에서도 대접주 차기석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이 일어났다. 이들은 10월 홍천 서석 풍암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험산준령을 넘어 봉평으로 도주하였다. 이들과 봉평 지역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여 일어난 전투가 바로 11월 4일경 일어난 봉평 전투다. 이들은 영동 지역, 인제, 양양, 간성에게까지 통문을 보내는 등 영서, 영동 지역을 아우르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11월 7일 정선 전투에서도 동학농민군은 패배하였다. 상당수의 동학농민군이

75)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十九號 判決宣告書原本」, “忠清道清風面洞居農業平民被告成斗漢年四十八 …… 其所爲는大典會通推斷條軍服騎馬 〇고作變官門者를不待時處斬이란明文을照 〇야處罪 〇거시니라 右에理由로以被告에成斗漢을死刑에處 〇노라 開國五百四年三月 日 法務衙門權設裁判所”.

76) 『東學關聯判決宣告書』, 「崔時亨·黃萬己·朴允大·宋一會(光武二年七月十八日)」, “江原道原州郡 平民被告 崔時亨年七十二 …… 警務廳官人의게被捉 〇야朴允大와眼同前導 〇야原州地方에前任 〇야崔時亨을捕獲 〇얏고 …… 被告崔時亨은大明律祭祀編一應左道亂正之術或隱藏圖像燒香集夜聚曉散伴修善事扇惑人民爲首者律로絞에處 〇고”.

희생되었고 충청도 제천 방면에서 합류한 성두환 등도 달아났다. 봉평 내면에 은거하고 있었던 차기석은 11월 12일 체포되고 말았다. 차기석은 결국 1월 22일 강릉 교장에서 참수당했고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잦아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강원도 지역 동학농민혁명은 정선 이원팔, 홍천 차기석, 인제 김치운의 도소를 필두로 하여 평창, 봉평, 홍천, 정선, 강릉, 인제, 양양, 간성, 삼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유기적이게 진행되었다. 그만큼 동학교단의 포접 조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인제에서는 직접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봉평, 평창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대관령을 넘어 강릉, 영동 지역으로 끝내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인제는 『동경대전』을 출간한 곳으로 당연히 동학교단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었다. 봉평의 차기석이 인제, 간성에까지 통문을 보낸 것을 통해 볼 때 인제 지역에도 자료에 드러나지 않은 동학농민군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토론문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 토론 | 박 준 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강원도 지역에서의 동학교단과 농민군 활동 토론편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투쟁하고 활동하던 동학농민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농민군 2대 지도자로 꼽는 김개남의 활동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었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각 지역 농민군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성과로 나온 것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의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1995,2 새길)과 한국역사연구회의 <<1894년 농민전쟁연구 4-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이었다.

1994년 이전에 강원도 동학농민군 활동을 논문으로 다룬 글은 韓祐勗의 「東學農民軍의 峰起와 戰鬪-江原·黃海道의 경우-」(1978, 『韓國史論』 4)가 유일했다. 이 글은 한우근의 <<동학과 농민봉기>>(1983, 일조각)에 정리되어 수록되었으나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다. 그 이후 강원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글이 박준성의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1995, 새길이다. 강원도 동학 농민군의 활동을 다룰 때 바탕이 되는 기본 자료는 <<東匪討論>>과 <<臨瀛討匪小錄>>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몇 편의 글이 발표되었으나 활용한 자료는 위 두 가지이고 내용에서도 획기적으로 진전된 점은 보이지 않았다. 답보상태였던 강원도 농민군 활동은 <<갑오군정실기>>가 발굴되면서 좀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다. 그를 바탕으로 2016년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가 열렸고 그 성과물이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에 담겨 있다. 여기에 박준성의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강원도 농민군과 관련이 있는 '성두한'을 다룬 신영우의 <성두한과 충북 북부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실려있다. 신영우의 <강원도 홍천의 동학농민군과 풍암리 전투>>(동학학보)37, 2015)도 <<갑오군정실기>>에 힘입은 바 컸다.

1. 발표자는 “근거 자료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였던 강릉부사 李會源이 남긴 『東匪討論』과 『臨瀛討匪小錄』이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밝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갑오군정실기>>의 사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1869년 최시형은 전국적으로 包制를 실시하였고, 강원도에는 關東大接主 李哲雨, 홍천과 인제의 도접주로 車基錫, 金致雲을 임명하였다” “일찍이 최시형은 1869년 關東大接主로 李哲雨를 임명했던 것이다. 이철우는 이원팔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인제 또한 최시형과의 인연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별하다. 김치운은 이미 1869년에 인제의 도접주로 임명된 바 있다. 여기서 홍천도 눈에 띄는데 역시 1869년 이곳이 차기석이 도접주로 임명된 적이 있다”. 1869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3. “평창의 吳德甫는 8월부터 布教를 한다고 평창 관아의 신리면에 와서 머무르며 接을 설치했다.: -> 신리면은 강릉부, 현 주문진. “8월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接을 설치하여 활동하였던 오덕보도 압송될 운명에 처하였다.” -> 빨리 잡아서 압송하라는 관문
4. “9월 4일 영월과 평창, 정선 등 5개 고을의 동학의 무리 수천 명이 江陵府使가 바뀌는 때를 엿보아 일제히 강릉 읍내에 들어와서 三政을 바로잡을 것을 칭하고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 이미 강릉은 공관상태였다.
5. ‘봉평 내면’, ‘봉평 내면 1里 倉村’ 하면 내면이 봉평에 속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차기석은 정선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봉평 내면에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봉평과 내면은 각각 강릉부에 속해 있었지만 내면이 봉평 소속은 아니다. 차기석의 근거지는 봉평이라기 보다 내면이었다. ‘內面賊魁車其錫’ ‘內面地有匪魁車箕錫’
6. “차기석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0월 22일 홍천 瑞石面 魚論里에서 맹영재의 부대와 마주쳤다. 여기서 동학농민군 100명 중 10여 명이 총을 맞아 죽었다. 맹영재는 豐巖里까지 추격하였다.”-> 서석면 어론리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풍암리 전투가 벌어진 날은 오랫동안 10월 22일이라고 통설처럼 알아 왔다. <<갑오군정실기>> 원문은 “二十三日轉向于瑞石面魚論里”이다. 10월 22일이 아니라 23일이다.
7. “차기석은 서석에서 달아나 길도 없는 험산준령을 넘어 봉평 방면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 홍천 서석 생곡리에서 내면이나 봉평으로 넘어가는 길은 있었다.
8. 1876년 인제 접주로 활동한 김계원은 그해 3월 자기 집에서 수운 최제우의 환원향례를 진행하였다. 김계원은 1879년 인제의 김현수 집에서 해월이 치성제를 지낼 때 장춘보, 김경식, 김윤희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1877년 해월의 구성제는 장춘보와 김치운이 담당하였다. 1890년 6월 최초로 간행된 동경대전은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 김현수집에서 100여권으로 간행되었다. 인제에서 최시형의 포덕을 거두고 동경대전 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김현수는 1893년 최시형이 교단 조직을 개편할 때 인제포를 맡겼던 김치운의 본명이다. 김치운은 9월 18일 최시형의 기포령 이후에도 강원도에서 기포한 지도자들로 거명된다. 1894년 동학농민

혁명 때 인제에서 활동한 김계원과 김현수는 동학을 매개로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1894년 김계원은 인제 양구 쪽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895년 63세의 나이로 고등재판소에서 장형 100대에 3천리 유리의 형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이루어진 최시형의 포덕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지원하였던 유인상(유도원), 이원팔(이철우)은 1984년 강원도 동학농민군을 이끌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들도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 다만 1893년 이전 차기석의 행적은 아직 미궁이다.

부 록

인제 동경대전 간행 터[址]

인제 동경대전 간행 터[址]

1. 지정개요

- 지정종별·번호 : 강원도 기념물 제89호
- 명 칭 : 인제 동경대전 간행 터(麟蹄 東經大全 刊行址)
- 시 대 : 1880년
- 소재지 : 인제군 남면 갑둔리 351·375번지
- 소유자 : 국유(국방부)
- 관리자 : 인제군
- 지정면적 : 926㎡(문화재지정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지정구역	보호구역	주소	성명
계	2필지		926	926	-		
남면 갑둔리	351	잡종지	655	655	-	국유	국방부
	375	전	271	271	-		

- 지정일자 : 2016년 12월 2일(도보 게재일)

2. 문화재의 위치 및 주변 문화재

1) 문화재의 위치

- 갑둔리 동경대전 간행터에 해당하는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소재한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인제군 남면 갑둔리이다.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위치한 지역은 원갑둔리로 불리던 지역으로 44번 국도에서 남면~상남간 446지방도를 통해 진입한다.
- 다물리 마을 동쪽으로 고개를 지나면 원갑둔리에 이른다. 원갑둔리 마을의 북서방향으로 소하천이 흐르며, 각판소터와 공방터가 소하천 좌우측으로 약 350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 갑둔리는 본래 남면 지역으로 임진왜란 때 군사들이 진을 쳤다하여 갑둔리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所峙里, 金富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갑둔리라 하였다.

- 해방과 함께 국토가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양단되자 38선 이남지역에 있던 갑둔리는 富坪, 於論, 亭子, 新豊, 新月, 金富里 7개 리와 인제읍의 원대리와 기린면의 北里, 鎭洞里와 함께 그 해 9월 19일에 홍천군에 편입되어 신남면에 소속되었다. 1951년에 수복되어 軍政 아래에 있다가 1954년 11월 17일 행정 이양에 따라 民政으로 돌아와 남면에 소속되어 있었다.
- 현재 갑둔리는 199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5년 완공,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조성으로 인하여 갑둔리 마을 전체가 이주 및 해체되어 주민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2) 주변 문화재

- 갑둔리 삼층석탑 : 건립 연대는 고려시대이며,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아 부재를 수습하여 복원할 당시 2기의 탑을 하나로 합하여 복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단층으로 기단의 하대석 위에는 면석 대신 다른 탑의 탑신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 갑석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탑의 총고는 214cm이다. 1993년 6월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7호로 지정되었다.
- 갑둔리 오층석탑 : 고려시대의 탑으로 일명 김부탑이라고도 한다. 기단은 이중기단으로 하층기단의 지대석은 원래 4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현재는 깨어져 6매로 되어 있다. 상층기단 중대석의 명문은 갑둔 향토사적 연구회에서 판독하였는데, 판독에 따르면 명문의 '太平 16년'은 1036년(인종3)이 되므로 탑의 조성시기가 1036년임을 알 수 있다.
- 김부대왕각 : 건립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 비각을 김부대왕각이라 부르며 해마다 洞祭를 지내고 있다. 동제는 음력 5월 5일과 9월 9일 2회에 걸쳐 치른다. 祭物에는 필히 미나리적과 취떡이 빠져서는 안 되고 배례는 4배를 한다. 비각 내부에는 「新羅敬順王太子金公鑑之神」이라는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본래 위패 내용은 「新羅敬順王第一子之神位」로 새겨져 있었으나 훗날 어느 후손에 의하여 지금의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3) 인제의 동학관련 유적지

- 인제읍의 귀둔리 : 최제우의 큰 아들 세정이 은신해 지내다가 체포된 곳이다.

- 신남면의 유목정 : 동학농민혁명 후 최시형이 일시 머물던 곳이다.

3. 연혁 · 역사성 · 지정가치

1) 연 혁

- 강원도에서 종교적 의례와 조직 강화를 통해 교세를 확장해 나갔던 최시형은 동학교단의 내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기 위해 동학역사 기록인 道跡과 스승의 가르침을 담은 經典 간행을 계획하게 된다. 『崔先生文集道源記書』와 『大先生事蹟』등 천도교 측 기록에 따르면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도적 및 경전 간행은 처음 旌善 남면에 있는 房時學의 집에서 기획되었다. 1879년 11월 10일 사적 간행을 위해 인등제를 지냈던 방시학의 집에 수단소를 설치, 강시원 등을 중심으로 사적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다.
- 편찬 작업은 2개월 만에 탈고하여 1880년 1월 정선 동면 전세인에 의해 정서되었고 『崔先生文集道源記書』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었다.
- 동학의 역사를 정리한 최시형은 서둘러 경전 간행에 착수한다. 그동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경비를 조달할 여유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1880년 4월 하순 중견지도자들과 협의하여 각 집에서 비용을 염출하기로 하였다.
- 1880년 5월 9일 인제 남면 갑둔리 김현수의 집에 각판소를 설치, 5월 11일부터 개간 즉 간행 작업을 시작하여 거의 한 달 만인 6월 14일에 완성하였다.
- 1880년 6월 15일 『동경대전』 간행을 알리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동학의 첫 경전인 庚辰版 『동경대전』으로, 100여 권이 각처로 분포되었다. 이것이 저본이 되어 1880년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판본으로 확대 간행되었는데, 『동경대전』이 동학경전의 규범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갑둔리는 현재 199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5년 완공, 200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조성으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이주 및 해체되어 주민이 살지 않은 곳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동경대전 간행터에 해당하는 351, 375번지 일원도 현재 국유지로 국방부의 관리 하에 속해 있다.

2) 동학의 증흥과 강원도

-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전환기에 근대적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양에서 근대시민혁명으로 근대사회가 열렸듯이 동학농민혁명은 전근대적 사회체제를 붕괴시키고 근대사회로 가는 길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근대사회의 신분제를 타파하고 집강소를 통하여 백성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일제강점에 대항한 반침략적·반제국주의 투쟁이었다.
- 그러나 동학은 초창기에 ‘혹세무민’한다는 비판아래 1864년 교조 최제우가 처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 최제우의 가족과 최시형을 비롯한 주요 제자들은 정부의 탄압을 피하여 강원도 지방에서 은거하며 포교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로써 강원도는 동학 중흥의 근거지가 되었고, 제2의 주요 동학 포교지가 되었다.
- 1864년 최제우의 제자 이경화가 영월로 정배되어 영월 소밀원에서 포교를 시작한 이래, 강원도 영월과 정선지역은 관의 지목을 피하여 잠복을 거듭해야 했던 동학교단의 지도자와 교도들의 피신처 역할을 했으며 조직의 복원과 교세확장의 기반을 제공했다.
- 강원도 지역에서 동학이 본격적으로 포교되기 시작한 것은 1869년 3월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姜洙와 함께 이필제의 난을 피해 태백산으로 가던 도중 1년 10개월간 은거하여 체류하면서 부터이다. 최시형은 인제, 양양, 정선, 원주, 홍천 등지에서 포소를 설치하고 제의를 행하는 등 강원도에서 동학의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교단으로서의 체제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경전 간행 사업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 1879년에는 정선 방시학의 집에서 동학의 연원과 역사를 기록한 『道源記書』를 간행했고, 1880년에는 인제에서 동학의 최초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한 것이다. 인제의 경우, 1879년경에는 大致祭를 운영할 만큼 교세가 확장되어 있었다.
- 그때까지 동학교단에는 경전이 간행된 적이 없으며 암송을 통해 전파되어 왔다. 하지만 강원지역에서 포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요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의 印刊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최초의 경전 간행이 강원도 인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동학 포교 활동에서 인제 지역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경전 간행을 통해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한 동학은, 영월·정선 등 영서지방의 비밀 포교지를 중심으로 교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동학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여 마침내는 한국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는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도 인제는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동력을 키울 수 있었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한다.

3) 동경대전 간행과 인제

- 최시형이 인제 갑둔리에서 최초의 경전 『동경대전』을 간행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동학이 다른 가르침과는 변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가르침을 지닌 종단으로의 면모를 공고한 사건이라고 하겠다.
- 왜냐하면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학은 경전 간행을 통하여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경전인 『동경대전』을 간행하게 됨으로써 동학은 하나의 가르침, 즉 한 종교로서 보다 분명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동학도의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동학 교리의 체계화를 촉진시킨 계기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따라서 한국근대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동학농민혁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동학의 저력은 『동경대전』 간행을 기반으로 한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강원도 인제 갑둔리에서 『동경대전』 간행을 한 역사적 사실은 당시 동학이 한 교단으로서 정립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사의 한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4) 동경대전 간행터의 역사성과 문화재 지정가치

- 인제 남면 갑둔리에 거주하다가 동학에 입도하여 활동한 김현수라는 인물은 김치운(金致雲: 또는 金致云)과 동일인이며, 김해김씨 족보에는 ‘金顯奎’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학술고증 조사를 통해 규명되었다. 또한 김현수의 집터가 현재 폐교가 된 어론초등학교 갑둔분교 인근(現 사격장)이었다는 사실은 천도교 측에서 구전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 동경대전을 간행하기 위한 업무를 보는 각판소를 설치한 곳은 인제 동학 활동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김현수의 가옥(갑둔리 375번지)이며, 경전 각판 작업을 한 工房 장소로 사용한 곳은 인제군 남면 갑둔리 351번지로 밝혀졌

다. 동경대전 간행에 있어 두 장소 모두 성지로서 의미가 깊은 곳으로, 동학의 포교활동과 관련해 주요 유적지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1880년 간행된 이른바 庚辰版 『동경대전』은 동학 창도 이후 최초로 간행된 경전이라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기록과 철저한 학술고증 조사를 통해 규명되었듯이, 이것이 인제 갑둔리 김현수의 집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경대전이 간행되는 등 동학 발전에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 인제 갑둔리는 최초로 『동경대전』을 간행한 지역으로서의 의의와 함께, 동학이 독자적 정체성을 지닌 교단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한 지역으로 그 의의를 지닌다. 동시에 동학교단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 지역이라고 하겠다. 또한 인제에서 간행된 『동경대전』은 이후 간행되는 모든 『동경대전』 판본의 중요한 저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동학의 최초 경전이 강원도 인제 갑둔리에서 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역사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심의위원 의견

- 심의일자 : 2016년 9월 1일
- 심의위원 : 이상현, 한재수, 최영철, 최장순, 유재춘, 김도경, 홍성익, 김남돈
- 심의의견
 - 1860년(철종 11) 崔濟愚가 창도한 동학은 급격히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포교는 금지되었고, 敎祖 최제우는 제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1864년 봄, 대구감영에서 흑세무민하였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하여졌다. 이후 동학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동학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강원도 지역은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서 동학의 2대 교주인 海月 崔時亨을 비롯한 동학의 주요 인물들이 강원도 지역으로 피신하여 다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 시기 강원지역의 영월, 평창, 정선, 원주, 횡성, 홍천, 인제, 양양 등지에서 특히 활발하게 포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강원도 지역에서의 포교활동으로 동학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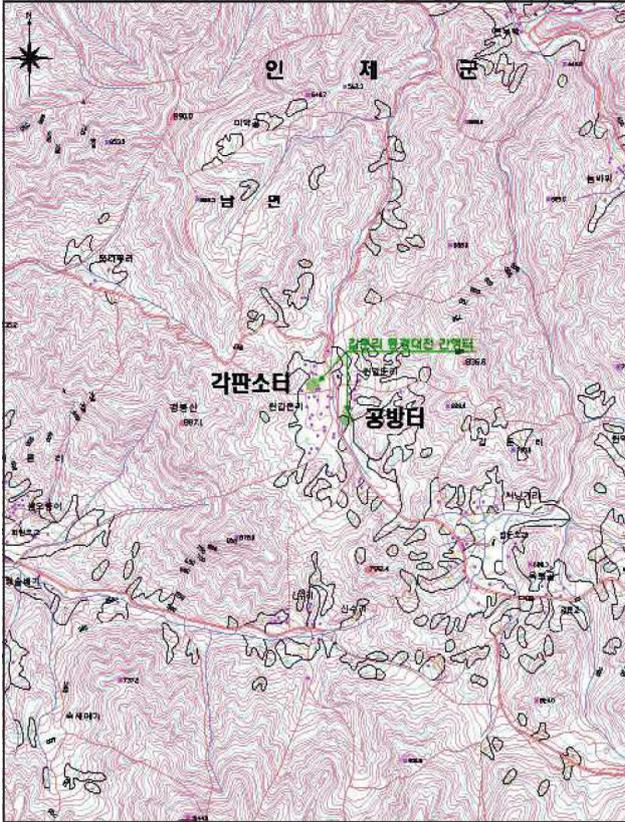
- 이러한 강원지역에서 동학 포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학을 보다 체계화된 종교로 만들기 위해 동학의 주요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의 印刊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그간의 강원도 지역 포교활동을 기반으로, 포교의 주요 중심지중 하나이고 경전 간행작업의 적지라고 판단된 강원도 인제의 갑둔리지역에서 동학 경전인 『동경대전』 간행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이 1880년 간행된 이른바 “庚辰版” 동경대전으로, 동학 창도 이후 최초로 간행된 경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인제지역에서의 동경대전 간행은 동학 탄압이 절정에 달한 시기,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제2 포교의 성과로 동학이 재기하면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바로 동학을 체계화한 “동경대전”의 간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근대사에서 동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건대, 동학이 재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동경대전”의 간행은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경전이 간행된 “장소” 역시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대부분의 비용을 동학의 인제점에서 부담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인제의 동경대전이 간행된 장소에 대해서는 그간 증언조사와 일부 연구가 있었지만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고증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서 그 간행터에 대한 고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기록을 통하여 인제 김현수(족보상 김현규, 동학 관련 기록에 ‘致雲’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김현수의 字임) 가옥이 동경대전 간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각판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그간 김현수 가옥터에 대한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후손의 증언,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지적도, 관련 족보 자료 등을 활용한 고증을 통하여 당시 동경대전 각판소가 설치되었던 김현수 가옥터(갑둔리 375번지)가 명확하게 고증되었고, 경전의 판각작업을 한 工房 장소로 사용한 곳은 인제군 남면 갑둔리 351번지(이곳은 당초 각판소로 알려진 곳이었으나 최근의 조사과정에서 김현수의 사촌 가옥으로 밝혀졌음)였다.
- 따라서 인제에서의 동경대전 간행과 관련하여 간행업무를 관장한 각판소

가 설치되었던 김현수(김현규)가 살고 있던 집터인 “갑둔리 375번지”와 실제 판각 작업이 이루어진 그의 사촌(혹은 숙부댁이라고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곳임) 집터인 “갑둔리 351번지”가 모두 인제 동경대전 간행과 관련하여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 동학관련 유적지는 대개 전북지역과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는 동학군 최후 격전지로 알려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의 자작고개 일대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동학군의 전적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동학농민군 봉기는 동학이 정부의 탄압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강원도 지역에서의 포교를 기반으로 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특히 동학이 재기하는 가운데 강원도 인제지역에서 최초로 동학 경전이 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史實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제시한 인제군 남면 갑둔리의 동학 관련 유적지는 ‘민족종교 동학의 최초 경전을 간행한 장소’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우선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과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정사유

- 강원도 인제지역은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이 정부의 탄압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의 주요 인물들이 피신하여 포교활동을 지속하며 동학을 재기시키는 기반을 마련한 곳이다.
- 특히 인제 갑둔리는 동학 창도이후 동학을 보다 체계화된 종교로 만들기 위해 동학의 주요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인 「동경대전」을 최초로 간행한 곳이다.
- 「동경대전」은 동학이 재기하면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다. 한국근대사에서 동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볼 때 동학이 재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동경대전」의 간행은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경전이 간행된 장소 역시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보존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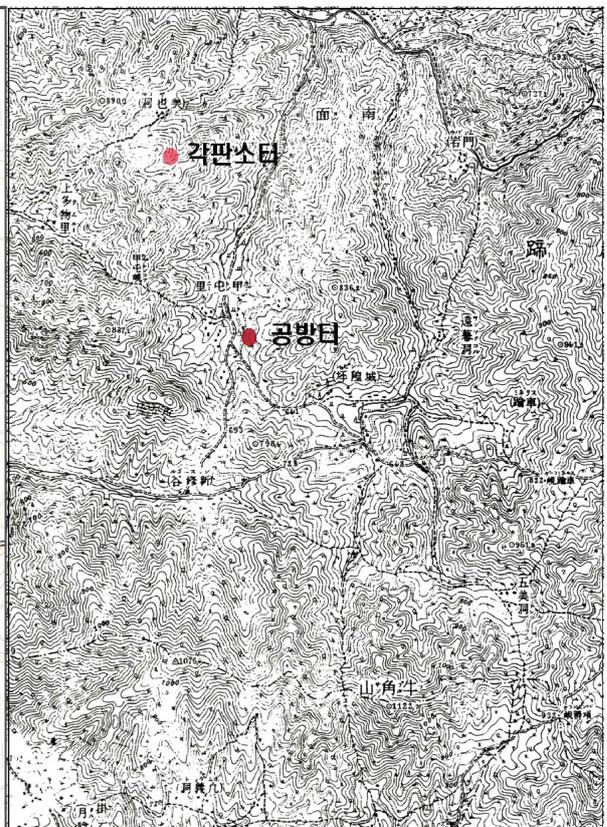
<동경대전 간행터 위치(수치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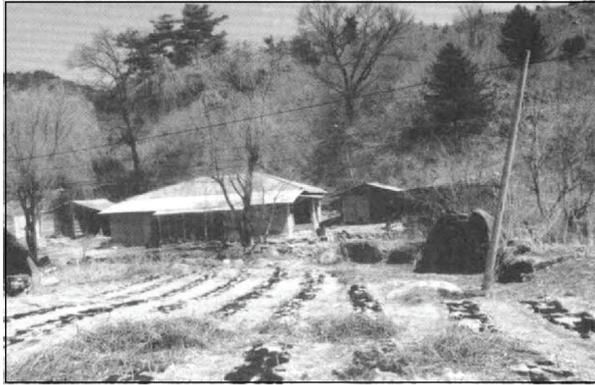
<지적도+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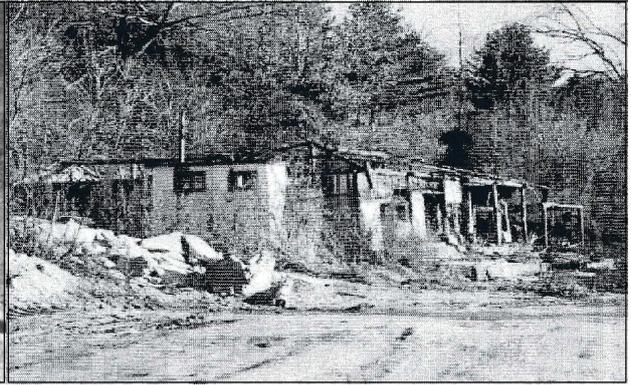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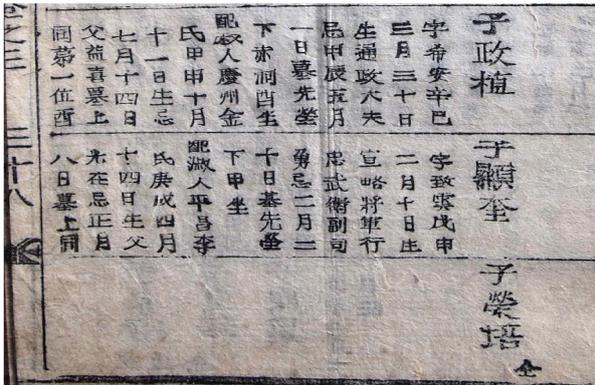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지형도>



김현수 가옥 전경(공방터, 1997년 당시)



김현수 가옥 전경(공방터,이주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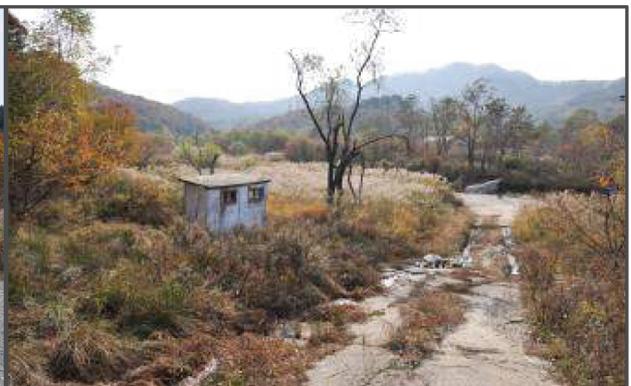
김해김씨 족보상 김현수(김현규, 字치운) 부분



동경대전 간행터 중 공방터 원경



동경대전 간행터 중 공방터 전경



동경대전 간행터 중 공방터(나무주변) 근경



동경대전 간행터 중 각판소터 원경



동경대전 간행터 중 각판소터 근경

2024 인제 동학사상과 동경대전 학술대회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주 최 인제군
주 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 530-9431 / www.1894.or.kr
인 쇄 2024년 8월 16일
발 행 2024년 8월 19일
편집인쇄 그린칼라인쇄
